

기본연구 2001-13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2001. 12

김성귀, 홍장원, 박상우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김 성 귀 : 제1장, 제2장, 제4장, 제6장

◆ 연 구 진

-홍 장 원 : 제3장

-박 상 우 : 제5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최 승 담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엄 서 호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 김 향 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머 리 말

관광은 지구촌 최대의 산업으로 많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이다. 이러한 관광은 우리나라에서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양한 테마를 찾는 관광추세의 변화로 전통적 관광에서 생태형, 체험형, 모험형 등으로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블루투어리즘의 활성화도 예견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어촌관광을 포함한 농어촌 관광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되는 때이다.

현재 어업인들의 소득은 도시민들의 3분의 2에 불과하여 새로운 어업의 소득원 발굴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을 비롯한 어업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어업의 소득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주제인 어촌관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촌관광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특성과 실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관광 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획집 중심의 획일적 개발로 어촌의 분위기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어촌이 가진 독특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개발방식으로는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연구가 어촌마다 가진 관광자원과 특성 등을 고려한 유형별 어촌관광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어촌관광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에 대한 기본 체계와 바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초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이론 정립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 어촌관광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둔 이 연구를 계기로 어촌관광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어촌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매우 일천하며 더우기 어촌 관광에 대하여는 최근에 어업외 소득 증대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식되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관계로 관련 연구도 거의 없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어촌관광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이론 정립을 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시발점에 불과하며 이 연구를 계기로 어촌관광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 연구가 후속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집필에 참가한 연구자 그리고 연구수행에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연구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소견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목 차

〈요 약〉	1
제 1 장 서 론	13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 14	
2) 연구의 방법 / 15	
4. 연구의 기대효과	15
제 2 장 어촌관광의 현황과 유형 분류	16
1. 어촌의 여건 변화와 어촌관광	16
2. 어촌관광의 개념	27
1) 어촌 관광자원 / 31	
3. 어촌관광의 특성과 발전	33
1) 어촌관광의 고유한 특성 / 33	
2) 어촌관광개발 발전단계 / 34	
3) 현재의 어촌 관광 구조 / 38	
4. 어촌관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	41
5. 어촌관광의 유형	42

제 3 장 어촌관광활동 실태분석 ————— 49

1. 어촌관광활동에 대한 현황분석 49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49
 - 2) 조사개요 / 49
 - 3) 표본의 특성 / 50
 - 4) 설문조사 결과분석 / 51
2. 어촌관광유형별 특성분류 57
 - 1)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에 따른 구분 / 57
 - 2)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구분 / 60
 - 3) 이용숙박시설에 따른 구분 / 62
 - 4) 관광정보 수집방법의 차이 / 63
 - 5) 어촌관광 활동시 불편사항의 분류 / 65
 - 6)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의 분류 / 67

제 4 장 유형별 관리 및 개발정책 ————— 71

1. 해수욕형 71
 - 1) 현황 / 71
 - 2) 해외사례 / 74
 - 3)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결과 평가 / 76
 - 4) 정책 방향 / 78
2. 바다낚시형 80
 - 1) 현황 / 80
 - 2) 국내외 사례 / 82
 - 3) 정책 방향 / 87
3. 해양스포츠형 89
 - 1) 현황 / 89

2) 국내외 사례 / 92	
3) 정책 방향 / 93	
4. 생태체험형	96
1) 현황 / 96	
2) 국내외 사례 / 103	
3) 정책 방향 / 109	
5. 어촌경관/휴양형	111
1) 현황 / 111	
2) 국내외 사례 / 114	
3) 정책 방향 / 115	
6. 어촌역사문화형	117
1) 현황 / 117	
2) 국내외 사례 / 118	
3) 정책방향 / 122	
7. 수산물 구매/시식형	123
1) 현황 / 123	
2) 국내외 사례 / 124	
3) 정책 방향 / 128	
8. 유형별 개발방안	128
1) 요약 / 128	
2) 관광 유형별 개발방향 / 130	
9. 유형별 소득화 방안 검토	131

제 5 장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 지침—————133

1. 해수욕형	133
2. 바다낚시형	137
3. 생태체험형	140
4. 어촌경관휴양형	142
5. 어촌역사문화형	144
6. 수산물 구매/시식형	145
7. 기타 일반적 지침들	146
1) 보행자의 접근성 / 146	
2) 옥외광고물 & 서비스 시설 / 148	
3) 해안의 건축물 관리 / 151	
4) 주차장 조성 / 152	
5) 해안 경사면 보호 / 153	

제 6 장 결 론—————156

참고문헌	159
------------	-----

표 차례

<표 2-1> 어가소득의 상대적 비교	19
<표 2-2> 어업의 소득과 이전소득	20
<표 2-3>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	21
<표 2-4> 어촌관광사업의 어촌소득 증대에 도움 정도	21
<표 2-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22
<표 2-6> 국가별 주당 실질 노동 시간 및 연간 총 휴가 일수	25
<표 2-7>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	31
<표 2-8> 어촌관련 관광자원의 분류 및 현황	32
<표 2-9> 어촌의 자원 잠재력	33
<표 2-10> 어촌관광의 SWOT 분석	34
<표 2-11> 어촌의 관광지 발전 단계	35
<표 2-12> 우리나라 어촌친수공간 관련사업별 현황	42
<표 2-13> 우리나라의 주요 어촌관광 유형별 현황	45
<표 2-14> 어촌관광 유형별 내용	47
<표 2-15> 유형별 분석상의 장단점 비교	48
<표 3-1> 표본의 특성	51
<표 3-2>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에 분류	58
<표 4-1> 해역별 해수욕장 수 및 특징	72
<표 4-2> 해수욕장 관련 시설 수입의 예	79
<표 4-3>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 현황	97
<표 4-4> 주요갯벌 지구별 철새도래 현황	99
<표 4-5>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지정 현황	101
<표 4-6> 해상국립공원 현황	112
<표 4-7>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의 어부립 및 방풍림 현황	113
<표 4-8> 어촌의 문화관광 자원 분포	118
<표 4-9> 전국 수산물 시식형/구입형 어항어촌	123
<표 4-10> 유형별 요약표	129
<표 4-11> 관광 유형별 개발방향	130
<표 4-12> 유형별 소득화 방안	132

그 립 차 례

<그림 2-1> 어촌계의 관광 분야와 시설	37
<그림 2-2> 어촌관광자원의 공간적 구조	39
<그림 2-3> 어촌관광 개발시 고려해야 할 지역 어업력	40
<그림 3-1>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어촌관광 활동	52
<그림 3-2>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동반형태	53
<그림 3-3>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이용교통수단	53
<그림 3-4> 이용 숙박시설	54
<그림 3-5> 어촌관광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방법	55
<그림 3-6> 어촌관광 활동시 느끼는 문제점	55
<그림 3-7>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 시설	56
<그림 3-8> 동반형태에 따른 분류 I	59
<그림 3-9> 동반형태에 따른 분류 II	60
<그림 3-10>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I	61
<그림 3-11>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II	61
<그림 3-12> 이용숙박시설에 따른 분류 I	62
<그림 3-13> 이용숙박시설에 따른 분류 II	63
<그림 3-14> 관광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 I	64
<그림 3-15> 관광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 II	65
<그림 3-16> 어촌관광활동시 불편사항의 구분 I	66
<그림 3-17> 어촌관광활동시 불편사항의 구분 II	67
<그림 3-18>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의 구분 I	68
<그림 3-19>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의 구분 II	69
<그림 4-1> 백사장의 바닥이 드러난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73
<그림 4-2> 니스해변의 공간배치	75
<그림 4-3> 니스해변의 기능배치도	75
<그림 4-4> 고산어촌계와 민박 전경	85
<그림 4-5> 고산어촌계 민박 전경과 내부 구조	86
<그림 4-6> 일본 이찌하라시의 낚시잔교	88

<그림 4-7> 후쓰의 조개잡이 체험장소	104
<그림 4-8> 야쓰 자연생태관찰공원	105
<그림 4-9> 강화도 갯벌 및 갯벌생태학습장	108
<그림 4-10> 호타어촌의 식사시설	125
<그림 4-11> 오조 어촌계 식사·숙박 시설	126
<그림 5-1> 해변의 관리 방안	133
<그림 5-2> 해변의 부적절한 개발사례	135
<그림 5-3> 해변의 부적절한 개발 사례	135
<그림 5-4> 해변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	136
<그림 5-5> 바람직한 바다낚시 시설 개발 방향	137
<그림 5-6> 바다낚시 시설의 개발 방향	138
<그림 5-7> 해변시설물 설치 사례(해안도로)	139
<그림 5-8> 해변시설물 설치 사례(해안접근로)	140
<그림 5-9> 바다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방안	142
<그림 5-10> 해변조망과 조화된 바람직한 건물 시설 방향	143
<그림 5-11> 식당 등 해변시설물 배치 방안	145
<그림 5-12> 바람직하지 못한 해변시설물 설치 사례	146
<그림 5-13> 해변시설물 설치 방안	147
<그림 5-14> 경관에 악영향을 주는 옥외 광고물 설치 사례	148
<그림 5-15>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정비 방안	150
<그림 5-16> 주변과 조화된 바람직한 건축시설물	151
<그림 5-17> 바람직한 주차공간 조성 방안	152
<그림 5-18> 관리가 부실한 해안구조물	153
<그림 5-19> 르노 매트리스(Reno Mattress) 공법에 의한 시공지 ...	155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어업인들의 소득은 도시민들의 3분의 2에 불과하여 어업의 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어촌관광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어촌 관광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어촌관광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 어촌관광의 현실과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함.

2) 연구의 목적

- 어촌관광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들, 불만요인을 추출하여 소요시설과 환경·경관을 포함한 향후의 개발 정책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내용

- 먼저 어촌관광의 개념과 발전 추이, 어촌관광의 테마, 어촌공간과 어촌관광 자원 등을 살펴보고 어촌관광의 유형을 분류하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촌관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 또한 유형별로 어촌관광의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함.

2) 연구방법

- 어촌관광 관련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며 어촌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촌관광의 실태를 분석함.

제2장 어촌관광의 현황과 유형

1. 어촌의 여건 변화

- 한·중·일 어업협정에 의한 어장 축소, 연안오염 및 간척·매립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로 어민소득이 도시민의 2/3 수준으로 급감하여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 수립이 절실하나 어촌관광 활성화 외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임. 또한 WTO 등의 직접 보조 규제로 어촌의 관광 인프라, 환경정비 등을 강화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방향 선회가 필요함.

2. 관광의 여건 변화

- 과거의 대량적 국민 관광에서 개인, 소그룹 위주의 특수목적 관광이 부

상중이며 농촌, 어촌, 산촌 등 도시와는 전혀 다른 한계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다양한 관광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관광활동과 관광목적도 다양화 될 것임.

- 과거의 물질적 풍요에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 도입과 아울러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인구의 비중이 대폭 높아지고 있음. 아울러 여가 기능이 휴양, 기분전환, 자기개발 등 개인적인 것에서 농촌, 어촌, 산촌들과의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고조될 것임.

3. 어촌관광의 개념 및 특성

- 어촌관광은 어촌의 바다와 도서,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레저·스포츠 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어촌관광 자원 중 자연자원으로 해수욕장, 갯벌, 철새, 경관지, 낚시터 등이 있고 인문자원으로는 지역축제, 특산물, 음식, 어구어법, 사적, 어항, 어장, 유어선 등이 있어 전반적으로 어촌의 부존 관광자원은 농·산촌보다 풍부한 편임.
- 어촌관광은 특성상 어민이 수행주체인 아마추어 관광으로서 소규모, 소자본 운영으로 다소 영세하긴 하나 지역여건 및 자원의 활용으로 좋은 성과 거양이 가능함. 그 발전단계를 보면 순수어촌계에서 시작하여 관광시설을 갖춘 관광어촌, 더 나아가 거의 관광지화된 순수관광지로 발전됨.
- 어촌관광의 공간구조를 보면 배후 촌락, 해변지역, 해상지역 등의 부존 자원이 연계되어 활용가능하고 시간구조로 보면 어업력 등 시기별로 특별한 어업이나 자연현상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어촌관광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휴양단지, 어촌체험마을 등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어촌관광의 유형

- 어촌관광의 유형을 먼저 자원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① 자연 자원 우세형 ② 인문 자원 우세형 등이며, 체재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① 경유형

- ② 목적형 등이며, 공간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① 근교형 ② 연안형 ③ 도서형 등임. 지형 형상별로 분류해 보면 ① 암석 해안형 ② 비치형 ③ 갯벌형 ④ 혼합형 등이며, 관광활동별로 분류해 보면 ① 수산물 구매/시식형 ② 바다낚시형 ③ 해수욕형 ④ 어업/생태체험형 ⑤ 해양스포츠형 ⑥ 어촌경관/휴양형 ⑦ 어촌역사문화형 등으로 나뉠 수 있음.
- 이 중 개별 어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관광활동별 분류가 어촌관광의 유형화를 통한 정책적인 분석에 적합성이 가장 높아 이 연구에서는 이 분류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함.

제 3 장 어촌관광활동 실태분석

1. 어촌관광활동에 대한 현황분석

1) 조사개요

-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 남녀이며 조사 규모는 유효 표본 1,500명으로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추출에 의한 전화면접법임.

2) 주요 조사내용

- 경험자 중 어촌 여행경험은 48.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1.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여행은 42.3%, 숙박여행은 57.7%로 나타남. 당일 여행 평균 여행횟수는 1회(56.5%), 2회(19.5%), 3회(9.7%), 4-5회 이상(14.3%)순이며, 숙박여행 평균 여행횟수는 1회(77.4%), 2회(17.3%), 3회(3.0%), 4-5회 이상(2.3%) 순으로 나타남. 숙박여행시 이용 숙박시설은 민박(34%), 콘도(24%), 야영(15%), 모텔/여관(13%), 친지(7%), 호텔(4%), 기타 순이고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61%), 기차/버스(34%), 항공 (3%) 순으로 나타남.
-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친구·친지 소개(61%), 인터넷 등(15%), 관광책자/신문/잡지(14%), TV/방송(4%), 여행사(4%) 순이고 지

난 1년간 참여했던 어촌관광 활동은 경관감상/해변휴식(43%), 해수욕(30%), 수산물 맛보기/쇼핑(9%) 등이며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동반형태는 가족동반(57.1%), 친구/친지(47%), 지역/친목단체(5.5%) 순으로 나타남.

- 어촌관광 활동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교통불편 및 목적지까지의 긴 여행시간(26%), 어촌관광시설의 낙후 및 부족(22%), 어촌여행에 소요되는 높은 여행비용(19%)으로 나타났고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 시설로는 화장실, 탈의실 확충(73%), 상하수도,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68%), 어촌숙박/야영시설의 정비 및 확충(33%)으로 나타남.

2. 어촌관광활동별 특성

- 이용교통수단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에서 자가용 선호가 높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낮게 나타났음. 반면 이용숙박시설에서는 바다낚시형, 해수욕형, 어업/생태체험형 및 해양스포츠형은 민박, 야영을 선호한 반면 수산물구매/시식형, 어촌경관/휴양형, 어촌역사문화형은 콘도, 모텔, 여관 등 상용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정보 수집방법으로는 수산물 구매/시식형, 바다낚시형, 해수욕형 등은 인터넷, PC 통신 등의 활용도가 높으나 친구, 친지의 소개를 받는 경우는 낮은 편이고 어업/생태체험형 등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촌관광 활동시 불편사항으로는 모든 유형에서 교통불편/긴 여행목적지, 여행비용 과다 소요, 관광시설 낙후, 관광정보 부족 등을 높게 지적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로는 바다낚시형, 어업/생태체험형 등에서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확충, 상하수도,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등에 대한 높은 개선 요구가 있었고 어촌역사문화형에서는 이들 외에 관광안내정보 및 진입로·주차장의 개선 요구가 다소 높게 나타남.

제 4 장 유형별 관리 및 개발정책

1. 해수욕장형

- 전국에 있는 354개소의 해수욕장 중 38개소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범 해수욕장이고, 나머지는 어촌계 등이 관리하는 간이해수욕장이며 해수욕장 이용객은 1998년의 4,000만명에서 1999년 4,600만명, 2000년 5,700만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해수욕장의 시설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전문휴양업의 세부시설로서 기본적 요건만 제정하고 있음.
-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백사장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남포면 용두해변,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앞 해변 등에서는 인근지역의 공사로 백사장 유실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니스는 해수욕장의 배치를 유기적으로 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해수욕장에 관한 기본법(일명 Beach Act)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에서는 청결하고 안전한 해변을 조성하기 위한 'Global Blue Flag Program'을 운영중임.
- 정책 방향으로는 해수욕장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모래유실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수욕장 인근에서의 공사시에는 반드시 인근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해수욕장 임대료에 따른 분규를 막기 위해 기준 및 임대 요금 등의 고시가 필요하며 해수욕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터보트 등 해양스포츠객과 해수욕객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활동간 구역 구분·관리가 필요함.

2. 바다낚시형

- 낚시어선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3,670척에 달하고 있고 바다낚시의 형태는 갯바위낚시, 유어선 낚시, 방파제·잔교 낚시 등으로 구분되며, 낚시어선법 제도로 안전성의 확보, 보험가입 등을 규정한 유어선 낚시 이외에는 대부분 관광객의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정책 방향으로는 바다낚시선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법을 개정해 달라는 잠수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망되며 낚시 잔교, 낚시공원 등과 같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도입도 절실함.

- 낚시객들을 위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련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 시설의 정비 및 민박시설의 고급화 유도도 필요하고 자원세에 해당하는 입어료 부가, 면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 유어자원에 대한 분쟁을 조정을 위해 일본처럼 어촌계마다 내부적인 유어 규칙 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임.

3. 해양스포츠형

- 요트공간으로는 남해안이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항로구역에 과도한 수산 양식 시설로 요트나 일반 유선의 운영에 제약이 있음. 우리 나라의 요트인구는 등록 선수만 1,500여명 정도로 매우 한정되며 수입되는 요트에 고율의 관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활성화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윈드서핑의 최적지는 제주도 섭지코지 부근의 신양해수욕장 등 다수이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호인 3만명이 활동중임.
- 해양다이빙 공간의 확보는 어촌계와의 계약에 의해 특정 해양생물의 채취를 금하는 조건하에 어촌계에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제주도에서는 잠수유어장을 설정하여 입어료를 받고 어장을 공개하는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함. 현재 우리 나라의 해양다이빙 인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C카드’ 소지자 약 10만명, 상시적인 활동인구 약 5만명으로 추정됨.
- 향후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용공간의 지정 운영이 필요하며 아울러 평수구역확대 등 항행구역 제한 완화, 해양스포츠 전용 훈련장 설치·운영, 일본과 같이 해양공원 및 훈련해역 지정 등으로 해양스포츠 활성화가 요망됨.

4. 어업/생태체험형(갯벌, 철새도래지, 어업체험 등)

- 체험가능한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2.8%에 해당하는 2,815.4km²(세계 5대 갯벌지역)이고 철새 도래지역은 천수만, 강화도 일대 등임. 어업체험으로는 지인망 어업, 남해에서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죽방염 체험어업, 야간의 오징어 연승 체험 등이 가능하며 양식어장 등을 낚시객들에게 개방하는 유료낚시터(혹은 ‘유어장’이라고도 함)는 전국 26개소에서 운영중임. 해외에서는 체험어업으로 고래관광(whale watching)이 성업중으로 우리나라 울산지역 등에서 도입 가능함.

- 향후 갯벌 관찰이나 철새 탐조 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생태교육장, 탈의실, 강의실, 세족/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탐조대, 생태관찰로)가 요망되고 어업체험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안전 규정 제정과 보험 등의 제도화)이 요구되며 유어장을 보다 활성화된 수익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테마 보강 등이 필요함.

5. 어촌경관/휴양형

- 어촌경관지로는 기암괴석 및 해안절벽, 어부림, 신비의 바닷길, 도서, 해상국립공원 등 다양한 자원이 전국에 있고 일출 및 일몰 경관지도 전 해안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 어부림은 전국적으로 8개소와 해안가에 조성된 방풍림 2개소가 있음. 신비의 바닷길로는 전남 진도, 경기도 제부도, 충남 무창포-석모도, 여수의 사도-낭도 등이 있음.
- 경관개발지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하고 연안에서의 미관, 경관 가이드 라인의 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공원 지구 내 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어촌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

6. 어촌역사문화형

- 바다음식, 어업, 역사, 풍습 및 전승문화 등 해양관련 지역축제가 전국에 72개소가 있으며 전남 진도의 영등축제의 경우, 한 해 30만명 정도를 유치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그외 대부분의 경우 홍보가 안된 편임. 즉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축제는 주로 시·군이나 소규모 마을 단위로 개최되며, 테마성이나 홍보 등이 약하여 이의 강화가 요망됨. 또한 해양지역의 문화역사 유적을 상품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양문화인덱스 및 지역별 해양문화지도 등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수산물 구매/시식형

- 수산물 구매/시식형은 전국 어항어촌에 다양하게 분포하며 국내 성공사례로는 제주 성산읍 오조어촌계의 식당시설이 유명하고 해외사례로는 일본 시바현 호타(Hotta, 富津)어촌의 식사시설 운영이 있음.
- 수산시장이나 해산물 식당 지구는 대부분 기초환경시설이 열악하여 이들 시설의 현대화와 아울러 위생적인 측면의 보강이 요망되고 이런 유형은 당일형이 대부분인 관계로 관광패턴을 체류형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테마의 보강을 유도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런 지역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 급증이나 공급 부족으로 불법어업이 조장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책 수립이 필요함.

제 5 장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 지침

1. 해수욕형

- 해변과 배후도로 및 주차장 사이에는 완충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주차장과 완충공간 사이에는 연결부를 두어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 아울러 건축물 후퇴라인(setback line)은 배후 50~100m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바다낚시형

- 바다낚시의 안전성,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낚시용 잔교 도입이 필요한 바 이러한 시설은 파일공법 등으로 시공하여 해수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하며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되 본래의 기능성을 충족시켜야 함. 잔교는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형태, 색상, 재료를 활용토록 하되 설치시에는 해양 수리 및 해저지형을 잘 고려해야 함.

3. 어업/생태체험형

- 태양열 화장실, 재활용품 시설,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해안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맞게 조성하여 지속가능성 보장이 필요함. 급격한 해안 환경변화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구조물의 설계나 공사는 자제토록 해야 할 것임.

4. 어촌경관/휴양형

- 중요한 조망점에서는 일정폭의 조망축을 확보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의한 시각적 방해를 최소화시킴. 또한 육지의 배후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지 않는 높이, 형태, 색채는 최대한 제한토록 함. 그리고 기존 개발의 고도선이 유지되도록 하여 바다조망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함.

5. 어촌역사문화형

- 해양문화와 관련한 축제의 개최를 위해서는 축제 규모에 맞게 해안 주변 주차공간을 계획하되, 바닥재는 다양한 재질과 패턴, 색채 그리고 식재를 활용하여 조성하도록 유도함. 식재 또는 단주(Bollard)를 이용하여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되 행사장 내의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유도함.

6. 수산물 구매/시식형

- 횃집 타운 주위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주차공간을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횃집 타운은 해안선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키고 그 사이에는 염해와 수분에 강한 품종의 식재를 고려함. 횃집 타운 앞의 벤치, 파고라 등 휴식공간은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해안선상의 시설물 난립을 막아야 함.

7. 기타 일반적 지침

- 접근로를 통해 효율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하되 전방시야가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옥외광고물 및 서비스 시설은 경관,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지쪽의 일정 장소에 집중 설치토록 함. 해안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색채나 재질은 지역성을 반영하고 주변 경관, 식생, 토양 등에 맞게 조성함.
- 해안 경사면 보호를 위해 경사면 토양붕괴가 나타나는 곳은 생물학적 복원(Bioengineering Technical Restoration)이나 리노 매트리스법(Reno Mattresses)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호하도록 함.

제 6 장 결론

- 앞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향후 어촌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자원 잠재력은 상당히 크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시켜야 할 것임. 둘째, 여러 가지 어촌관광 유형 중 해수욕형, 수산물 구매/시식형에 관광활동이 치우치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활성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셋째,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접근성의 개선이 크게 요구되며 아울러 주차장, 화장실, 샤워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넷째 어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 미관 지침을 지역 조례 등에 반영하여 이를 적극 실행토록 유도해야 할 것임. 다섯째, 정부에서는 어촌관광사업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들의 여가 생활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관광은 지구촌 최대의 산업으로 많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광의 추세가 다양한 테마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전통적 관광보다는 생태형, 체험형, 모험형 등으로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관광 대상 공간도 확대되어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린 투어리즘,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블루 투어리즘의 활성화도 예견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어촌관광을 포함한 농어촌 관광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되는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 어촌의 관광 개발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어촌은 횃집이 난립하는 등 먹거리 위주로 획일적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어 어촌이 갖는 다양한 유형별 개발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어촌의 분위기에 맞는 개발보다는 현대화 지향의 어촌 개발과 역사·문화적으로 단절되고 전통성이 무시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어촌마다 관광 부존자원이 다르고 개발잠재력이 다르나 이에 따르는 적절한 유형별 관광개발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촌의 관광유형에 따른 개발 모델 제시로 자원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어업인들은 도시민들 소득의 3분의 2에 불과한 소득을 얻고 있어 새로운 어업외 소득원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 방안에 대하여 많이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중심이 되는 어업외 소득원으로서 어촌관광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어촌관광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참고자료와 연구보고서 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나 관계자들이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어촌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는 어촌관광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유형별로 현황과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어촌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어촌관광의 발전 추이와 테마, 어촌공간과 관광자원 등을 살펴본 다음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국내외 사례수집을 통해 이들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 현황은 주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수록하여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는 이미 문제가 많이 되어 왔던 점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의 해법 제시에 노력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어촌관광은 워낙 광범위하고 문제가 복잡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다루기에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연구목적에 따라 먼저 현황 파악과 관광객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어촌관광의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어촌관광객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요인들이 많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여 개선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기존 연구의 조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촌관광의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유형별 개발 및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존에 조사된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소화시켜 보다 심층화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어촌관광의 상위 계획인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 계획(2001)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전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표본 설계를 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 어촌관광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사사례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여 유형별 사업화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아직 어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농업관광 등 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집하여 응용하려고 노력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촌관광휴양단지, 어촌체험마을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 사업에 대한 매뉴얼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하고 있으므로 당장에 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형별로 조성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특화 개발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국내외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수록함으로써 향후 유사 개발시 어촌관광 활동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아직까지 어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약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어촌관광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의 정책 방향을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촌관광 시설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안의 친수공간 정비나 연안 경관, 미관의 개선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안관리, 해수욕장의 정비 등 다각적인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어촌관광의 현황과 유형 분류

1. 어촌의 여건 변화와 어촌관광

어촌은 30만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현장이다. 어촌은 농촌과 더불어 1차 산업의 기반으로서 “어촌계를 구성하는 어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 또한 최소한 10가구 이상의 어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별도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으로¹⁾ 수협에서는 정의하여 우리나라 1788개의 전국 어촌계의²⁾ 관리를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어항이라는 시설을 염두에 두고 “정주체계상 최소단위의 하나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공간으로서 생산현장인 동시에, 그곳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로서 어항을 핵으로 포함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영역적 개체”라는³⁾ 어려운 말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 동안 어촌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 타결된 한·중,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은 대폭 축소되었고 연안오염과 간척매립 등으로 자원도 고갈되어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와 노령화·부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던 어촌 사회가 더욱 타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어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여러 가지 어업 구조 개편 대책과 아울러 소득 향상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어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에는 어촌지역을 한계 지역으로 인식하여 개발이나 이용에서 제외되어 소득이 줄고 인구도 감소하였으나 최근 U자형 연안 국토축의 형성을 모토로 하는 제4차 국토개발계획의 시행과 통합연안관리 등 연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어촌이 연안 개발과 관리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

1) 황기형·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12, p.11.

2) 수협중앙회, 『어촌계 현황』, 1999 12, p.2.

3)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1999, p.335.

다. 따라서 어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현재 WTO 등에서 어업에 대한 직접 보조를 규제하므로 기존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촌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지원 방향은 아무래도 어촌의 수산업 환경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촌관광 기반정비에 대한 보조 전환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저가의 수산물 수입이 중국 등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대한 방향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급 수산물의 생산과 저급수산물의 수입이라는 이원적 패턴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어촌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수산업이 요구된다. 고부가가치화 방안으로는 수산물의 생산 후의 처리 과정에서 가공이나 유통, 저장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고 이외에 지역어업 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등에 의해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⁴⁾. 이 경우 어촌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 행정 기관과 어업인들의 식견이 낮으므로 더불어 이 분야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광객 접객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어촌관광 사업에 대한 자영능력을 고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 200해리 경제 수역의 선포 이후 우리나라 어업의 중심이 근해 어업에서 연안어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까지는 근해어업을 많이 하던 주요 수산도시나 연안항 지역이 수산경제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선 앞바다를 기점으로 하는 연안의 소규모 어촌들이 수산업 활동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의 중심도 연안 어촌을 여하히 이끌어 나갈 것인가로 모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규모 어촌들이 갖는 전통적 분위기, 경관, 문화역사 등의 새로운 상품에 눈 돌릴 때가 되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환경의 관리 차원에서 우리의 어촌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어촌은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한 편이며 일본⁵⁾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이

4) 그 대안으로서 어업(1차) + 어업가공(2차) + 관광서비스(3차) 등의 결합이 요구된다.

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미약한 편이다. 특히 최근 어촌의 난개발로 어촌의 전통적 모습이 사라지고 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⁶⁾. 따라서 사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로 어촌의 모습과 전통 그리고 환경을 지킬 필요가 더욱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여건 변화와 더불어 어촌관광에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먼저 어민소득 측면에서 어촌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어업자원의 지속적 감소 현상과 해양오염의 심화에 따른 어장생산성 및 어획물의 상품성 저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비의 급격한 증가,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어가의 하락 등으로 <표 2-1>과 같이 어업소득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5) 일본에서는 연안어촌의 환경정비를 위해 70년대 말부터 어항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항환경정비 사업, 어항집락환경정비 사업, 어항어촌종합정비 사업, 어항관련 도로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 : 해양수산부, *Op. cit.*, 1999 12., pp.85~87.

6)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동진, 제부도 등을 들 수 있다.

〈표 2-1〉

어가소득의 상대적 비교

(단위 : 천원, %)

연 도	소득금액(천원)			비율(%)	
	어가 (가)	농가 (나)	도시근로자 (다)	가/나	가/다
1988	6,821	8,130	7,886	83.9	86.5
1992	12,371	14,505	16,273	85.3	76.0
1995	18,780	21,803	22,933	86.1	81.9
1996	19,039	23,298	25,832	81.7	73.7
1997	20,331	23,510	27,448	86.5	74.1
1998	16,794	20,494	25,357	81.9	65.6
1999	18,428	22,323	26,696	82.6	69.9
2000	18,875	23,072	28,643	81.8	66.1
평균증가율(%)	8.9	9.1	11.3	-	-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2000.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2001.

주 : 도시근로자 소득은 자가 평가액 제외

특히 어가와 도시근로자 및 농가와 소득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데, 이러한 어가의 낮은 소득수준은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88년 농가의 83.9%, 도시근로자 가구의 86.5% 정도였던 어가의 소득이 2000년에는 농가의 81.8%, 도시근로자의 66.1%에 불과할 정도로 어가소득의 상대적 저위는 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도 어가 8.9%, 농가 9.1%, 도시근로자 가구 11.3%로 어가가 가장 낮은 편이다. 따라서 어촌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어업외소득은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겸업소득이란 상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말하며, 사업외 소득이란 노임, 급료, 임대료, 배당 및 이자 등 사업외 활동으로 얻은 일체의 수입이다. 어업외 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아 어업외소득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업외 소득, 겸업

소득 순이다. 겸업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업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는 1차산업인 어업이나 농업외에 다른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어촌의 지역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2-2〉

어업외 소득과 이전소득

(단위 : 천원)

연 도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어업외소득 구성비(%)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계		
1980	313.4	79.0	451.4	843.8	-	32.5
1985	866.0	179.0	508.1	1,553.1	501.0	31.9
1990	1,898.0	302.0	992.2	3,192.2	1,614.5	31.8
1992	1,779.0	662.0	1,775.6	4,216.6	2,118.1	34.1
1994	3,404.0	603.0	1,712.2	5,719.2	2,725.6	33.4
1995	3,184.0	791.0	2,099.8	6,074.8	3,267.5	32.3
1996	2,394.0	1,000.0	2,016.0	5,410.0	3,103.0	28.4
1997	2,761.0	1,061.0	1,998.0	5,820.0	2,743.0	28.6
1998	2,577.0	918.0	1,706.0	5,201.0	2,339.0	31.0
1999	-	-	-	4,882	3,223	26.5
2000	-	-	-	5,313	3,464	28.1

자료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2001.

주 : 1) '80년까지는 이전수입이 사업외소득에 포함, 조사되었음

2) '76년에는 어업외소득이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았음

이러한 어업외 소득에 의한 소득 증대 방안으로서 어업인 리더들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최근 들어 관광 사업 확충을 가장 선호하고(<표 2-3> 참조), 이렇게 시책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이상 도움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3〉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

구분	현어업의 확대	신어장 개발 및 타어업 전환	농업 확대	관광 사업 확충	임금 수입 확보	농공단지 조성	무응답
'89(A)	29.5	*	9.8	42.9	15.6		2.2
'92	7.5	44.2	1.7	40.0	4.6		2.1
'94	7.8	47.2	2.8	35.0		6.7	0.6
'98(B)	10.6	31.8	3.3	52.6		1.5	0.4
B-A	-18.9	-12.4	-6.5	9.7			

* 자료 : 수협중앙회, 어민의식조사결과 보고(어촌계장 모집단 조사).

〈표 2-4〉 어촌관광사업의 어촌소득 증대에 도움 정도

구분	큰도움	어느 정도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오히려 방해	잘 모르겠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무응답
'89(A)	43.8	33.5	11.2	5.8	4.9		0.9
'92	39.2	42.5	7.9	1.3	1.3		1.3
'94	47.8	40.0	11.1				1.1
'98(B)	43.4	42.6	9.9			4.0	0.0
B-A	-0.4	9.1	-1.3				

* 자료 : 수협중앙회, 어민의식조사결과 보고(어촌계장 모집단 조사).

현재 어촌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데로 소득의 감소와 생활 환경의 악화로 어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가 진전되어 지역의 활력이 크게 감퇴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2-5> 참조). 따라서 어촌관광 등을 통해 어촌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표 2-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천명)

구분		'75	'85	'90	'95	'97	'99
종사자		322.9	260.3	211.8	176.1	173.7	170.6
성 별	남	200.5 (62.1)	156.9 (60.3)	118.6 (56.0)	94.1 (53.4)	89.6 (51.6)	89.0 (52.2)
	여	122.4 (37.9)	103.4 (39.7)	93.1 (44.0)	82.0 (46.6)	84.1 (48.4)	81.6 (47.8)
연 령 별	15~19세	36.2 (11.2)	4.6 (1.8)	1.5 (0.7)	0.4 (0.2)	0.2 (0.1)	0.2 (0.1)
	20~29세	61.8 (19.1)	42.7 (16.4)	21.1 (10.0)	7.9 (4.5)	5.9 (3.4)	6.4 (3.7)
	30~39세	72.5 (22.5)	57.9 (22.2)	47.0 (22.2)	30.1 (17.1)	25.3 (14.6)	22.8 (13.4)
	40~49세	75.2 (23.3)	74.9 (28.8)	59.9 (27.3)	47.1 (26.7)	45.4 (26.1)	43.8 (25.7)
	50~59세	51.4 (15.9)	55.2 (21.1)	57.0 (26.9)	52.5 (29.8)	53.3 (30.7)	51.3 (30.1)
	60세이상	25.8 (8.0)	25.0 (9.6)	27.3 (12.9)	38.1 (21.6)	43.6 (25.1)	46.1 (27.0)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1.

어촌관광은 또한 연안, 도서 등 미활용 자원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주말이나 휴가철 등 피크시즌에 관광객을 어촌으로 분산시켜 교통과 각종 시설이용상의 체증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1) 관광의 여건 변화와 어촌관광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근로시간의 점진적 감소, 휴가제도의 정착, 격주근무 제도의 시행, 자가용 시대의 도래 등으로 다양한 관광과 여가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⁷⁾ 남성위주에서 여성 위주 여행 증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전환, 청·장년층 중심에서 노년층 수요 증대(호화 유람선 등), 보는 관광에서 활동 및 체험성 관광(체육, 오락,

7)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1 11, p. 62.

휴양 등)으로 관광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향후 관광의 주된 상품은⁸⁾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새롭고 다양한 장거리 목적지
- 주문에 의한 기획 상품
- 모험이 있는 여행(환경, 자연, 체력단련, 오락중 2개 이상 요소 결합)
- 일과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휴양을 즐기는 여행

이러한 다양한 관광 패턴의 변화와 요구 상품의 질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일반 관광산업에서나 어촌에서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와 아울러 관광 지역도 기존의 내륙 지향에서 해양 지향으로 나가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인 관광이 주로 내륙 지향적이었다면 해양에 대한 지향은 새로운 요구로서 받아 들여져야 한다. 1990-1999년의 10년간 해양형 국립공원의 내방객 증가율은 3.5%를 기록한 반면 내륙형 국립공원은 0.7% 정도에 그치고 있다⁹⁾. 이러한 해상국립공원 내방객 수의 변화나 최근의 잠수관광객, 윈드서핑 등의 수요 변화에서도 해양에 대한 상당한 수요 증가가 감지되고 있다¹⁰⁾.

자가용의 증대로 이루어진 관광 활성화는 이제는 연안교통망의 발달로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2001년 말에 모두 개통되면 그동안 접근성 불량으로 가장 낙후하였던 서해안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주 휴가지역인 관동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강릉간 4차선 확장공사가 2001년 11월말 완공되면 이 지역에 대한 접근시간의 단축과 향후 예정되는 양양 국제공항의 개설로 동해안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북 울진공항, 무안공항 등의 연안지역 공항들도 계획이 되

8) Ibid.

9) 황기형 · 이승우, *Op. cit.*, 2000 12., pp.18 - 19.

10) 최근 윈드서핑, 레저잠수 등에서 상당한 참여자들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고 있어 이들이 완공될 경우 상당한 지역 어촌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수요 측면에서 보면 내년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현재 당면한 경제불황의 해결을 위한 내수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주5일 근무제(주당 근무시간으로 하면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주당 40시간의 법정 노동제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1936년도에 도입한 후 선진 각국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목적으로 1987년에 노동기준법으로 주당 48시간 근무에서 40시간(주 5일 근무)으로 줄여 여가 생활의 증진에 크게 노력해 오고 있다¹¹⁾. 이에 따라 일본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 시간이 1988년에 2111시간이던 것이 1998년에 1879시간으로 줄어들어 10년간 약 200 시간(8시간 근무시 25일)이 줄어들었다¹²⁾. 따라서 이전의 물질적 풍요로부터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인구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고 한다.

11) 중앙일보 2000. 10. 26일자 p. 37.

12) 堀田健裕, 원내 세미나 자료, 2001 8.

〈표 2-6〉 국가별 주당 실질 노동 시간 및 연간 총 휴가 일수

국 별	주당 실질노동시간	국가별 연간 휴가일 수	비 고
벨 기 에	32.7		
네덜란드	37.0		
일 본	37.5	117	
독 일	37.7	147	
호 주	38.6		
프 랑 스	38.6	143	
스 위 스	41.4		
미 국	41.7	128	
영 국	41.8	139	
필 리 핀	43.7		
태 국	45.4		
멕 시 코	46.0		
인 도	46.7		
싱가포르	48.4	70	
한 국	50.0	91	통계청:45.9('98)
터 키	51.2		
수 단	56.1		
요 르 단	58.3		

*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1999년 및 중앙일보 2000. 10. 26일자 p. 37.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도 크게 바뀌어 그 기능이 휴양, 기분전환, 자기개발 등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여가를 통하여 사회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사회 참가의 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개인의 관심 및 즐거움, 취미에서 비롯된 여가활동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 사회적인 역할 관련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신의 즐거움, 삶의 보람으로 연계되었다고 한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 어촌, 산촌, 도서 등 특수한 환경 여건을 갖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이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아울러 특히 새로운 여가 시간을 통하여 실현하고 싶은 가치로서 자연지향, 건강지향, 학습지향, 교류지향 등의 증대가

이루어지며 이는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계된다. 이를 해양·어촌 지역 측면에서 보면 해양탐구 의식이 증대되고, 해양에서의 보양활동 강화, 해양에 대한 학습요구 증대, 해안지역과의 교류 활동 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안 어촌지역은 배후의 농촌지역 풍경에 어항, 해수욕장, 바다 어장, 해상국립공원과 아름다운 도서들, 철새도래지, 기암괴석 등이 있어 관광자원의 다양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주5일 근무제가 어촌에 미치는 주요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자연과의 교류를 통한 자기 개발 욕구가 높아져 교육, 스포츠, 레저, 관광 활동이 증대되고 이는 어촌에서의 해양레포츠 증대로 연계된다. 따라서 지금의 해수욕이나 경관위주의 관광에서 본격적인 해양레포츠의 도입으로 연안관광의 선진국형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 서비스의 수요 증대로 TV,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진흥이 예견되면서 어촌민속문화, 어촌축제, 해양박물관 등 해양·어촌관련 문화진흥도 예상된다.

가족단위 중심의 활동 강화로 가족단위 행사가 증가하여 가족단위 해양활동 증가도 예상된다. 가정 이외에서의 활동 증대로 국민보급형 중저가 숙박시설, 고급 별장, 휴가촌,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 수요 증대와 더불어 대중형 어촌 숙박단지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당일형 위주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되고 여름 위주의 계절성 탈피로 어촌에 대한 관광 수요가 다계절화 됨에 따라 관광 수요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광 사업의 수익성 향상 등 경영개선 효과가 증대되어 어촌관광 시설투자의 활성화 및 다양화가 예견된다. 또한 이동성의 증대로 연안 어촌지역 배후 교통 발달, 도서해운 교통발달이 예상되어 어촌연계 도로망, 일반 어항 정비 및 관광어항 개발 등의 준비도 요망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관광지 위주에서 탈피하여 농어촌 등으로 관광객이 확산되어 지역균형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해양·어촌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도출이 요망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앞장 선 프랑스가 1960년 말부터 지중해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개발, 세계적인 연안관광지로 만든 것을 본받아 앞으로 우리도 어촌지역을 잘 개발하여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할 것이다.

2. 어촌관광의 개념

먼저 어촌관광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관광동향 파악이 중요하다¹³⁾.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환경은 관광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관광에서도 생태관광(ecotourism)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녹색 관광(green tourism) 등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녹색관광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광 매력물로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다. 녹색관광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관광이 일어나는 특성에 따라 푸른 해안에서의 관광을 'blue tourism', 눈덮인 산악지역에서의 관광을 'white tourism', 녹색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green tourism'이라 부르면서 연유하였다¹⁴⁾. 원래 '그린=환경'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있으나 실제로는 농촌관광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농가에서 겸업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농촌민박이다. 농촌의 생활, 문화,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관광자원을 도시와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블루 투어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어촌관광의 경우도 이와 똑같이 어가에서 겸업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어촌의 생활, 문화,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관광자원을 도시와 어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어촌관광은 다음과 같이 녹색 관광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첫째, 관광목적지로서 모든 농어촌의 잠재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체험관광으로서 농어

13) 본 연구의 논의를 연구목적 위주로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어촌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생략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기형·이승우, *Op. cit.*, 2000 12. p. 11 및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 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1999 12, p. 335 등

14) 미야자키 미쓰히로 등(원저), 강신겸 등(번역), 『녹색관광』, 일신사, 97 11. p. 12.

15) 미야자키 등, *Op. cit.*, pp. 6 ~ 7.

가에 체류하면서 무공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거나 농어촌 지역의 문화와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관광으로서 관광지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라는 점이다. 어촌관광이나 녹색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으로서 대규모 외부자본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득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역사문화적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고유한 문화와 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보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환경과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관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녹색관광이나 어촌관광이나 모두 연성관광(soft tourism)의 성격을 띠게 된다¹⁶⁾. 연성관광의 성격은 기존의 관광개발에 대한 대안적 철학(alternative philosophy)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한다. 연성 개발은 소규모 그룹, 가정기반기업(home-based companies), 소량(low volume), 다양성, 현실적 이익(real benefits), 실제적인 경험을 주는 고객중심 내용(client-driven content)을 의미한다¹⁷⁾. 이러한 연성관광에서는 접근방법이 전체적(holistic)이고 시간을 들여 환경을 배려하면서 인간적인 규모로 천천히 개발한다¹⁸⁾. 기존의 건물도 되도록 활용하고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가한다. 방문객도 명소의 관광이나 선물쇼핑보다 지역에서의 새로운 체험이나 새로운 가치의 발견 등을 즐긴다. 방문하기 전에 방문지역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방문지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휴식을 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긴다.

셋째, 농어촌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농어촌은 도시화, 공업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유출과 노령화를 초래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 농수산물 시장의 국제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16) 황기형·이승우, *Op. cit.*, 2000 12, p 18. 연성관광(soft tourism)에 대하여 경성관광(hard tourism)은 대규모의 관광시설 개발에 의한 관광이다.

17) Philip L. Pearce, et al., *Tourism : Bridges Across Continents*, McGraw-Hill, 1998, p. 168.

18) 미야자키, *Op. cit.*, pp. 36 ~ 37.

농어가 민박과 향토요리, 특산물의 개발, 각종 이벤트 개발 등으로 그 지역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관광은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개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투자로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어촌 개발을 촉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촌관광과 녹색관광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¹⁹⁾.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서 전형적인 농촌, 어촌, 산림이 중심이 된다. 손을 대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보고 체류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된다.

둘째, 서비스의 주체가 농어가 등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경성관광처럼 대규모의 외부자본으로 설치된 레저시설이 중심이 아니라 방문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다.

셋째, 도시주민과 농어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하여 농어촌의 생활·문화자원 등 각종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농어가에서 경영하는 민박, 레스토랑, 캠프장, 농수산물 판매소 등이 있으며 저렴한 요금으로 신선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연안지역은 일반적으로 어촌과 비어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어촌은 일반 순수어촌과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어촌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어촌 관광지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비어촌은 도심지 및 비어촌 관광지(어촌지역에 있긴 하나 어촌과 무관한 관광지) 등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어촌지역의 골프장 등을 들 수 있으며 개발주체도 외부자본이고 운영이나 관리도 어촌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광지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촌관광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에서 녹색관광과 함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그 대상범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에 가서 할 수 있는 관광활동들이다. 같은 해수욕이라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해수욕은 어촌관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나 어촌의 해수욕장에서 활동이 일어나면 어촌관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19) 미야자키 등. *Op. cit.*, pp. 12 ~ 13.

있게 된다.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의 경우 이렇게 장소에 따라 어촌관광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촌관광은 해양관광의 하위 개념으로서 해양스포츠 활동의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해양스포츠 외에 갯벌탐사나 철새 탐조 등의 활동도 어촌지역이 아니면 거의 일어 날 수 없는 활동들이다.

둘째, 상당 부분 어민소득과 연계 가능한 관광들이다. 따라서 어업외 소득 증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촌관광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어촌·어민의 어업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관광이라 하겠다. 어업과정의 일부를 관광화하거나(체험관광의 경우), 어민이 이용하는 어선, 어항이나 수면이 활용된다든지, 어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식당 등의 시설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관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즉 어촌관광은 어촌의 바다와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레저·스포츠 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어촌관광은 해양관광의 하위 관광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해양관광과 유사하게 요약될 수 있으나 해양관광과 다른 점은 <표 2-7>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 ① 활동의 목적 : 일상생활을 벗어나 스포츠, 휴양과 오락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변화를 추구(레크리에이션적 요소)
- ② 대상 공간·대상 자원 : 어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어촌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임(어촌공간에서 어촌자원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활동)
- ③ 활동상의 특성 : 연안어촌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생태적 漸移地帶로서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파괴되기 쉬운 생태환경을 가지므로 환경친화적이고 보전적인 개발과 활동이 필요

〈표 2-7〉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

구분	해양관광	어촌관광	비고
활동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 활동적 특성이 강함. 해양레저·스포츠, 휴식·휴양 등(관광, 레저 중심)	휴식적, 체험적 활동이 강함. 생태, 경관, 사회문화, 산업 등의 체험 위주(휴양, 교육 중심)	
공간	모든 연안 공간(해양 및 해안선 주변, 주로 지정 관광지가 많이 활용됨, 따라서 명승·경관지가 많음)	어촌공간에 국한(어촌어항의 주변지역, 대부분이 미지정 관광지, 도시 및 관광 수요가 높은 어촌지역)	
형태	해양리조트, 마리나 등 인공적 형태	어촌에서의 자원, 산업, 문화 자원을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용하고 즐기는 활동	
특성	환경친화적	좌동	
주체 혹은 관광 주관자	관광사 혹은 해양레저 주관사, 어민은 보조자 혹은 방관자	어민이 주체	
투자규모 등	대규모 투자가 많음	기존의 수산물 관련 투자의 연장 혹은 약간의 소규모 시설 보완 차원의 투자	
시설	대규모 시설이 많음	기존의 소규모 여유시설 이용	
관광객과의 관계	어민-매개자(관광여행사 등)-관광객의 관계가 많음	어민과 관광객의 직접적 접촉이 높음.	
대상층	일반관광객	교육, 체험목적의 가족, 동호인, 학생	

1) 어촌 관광자원

어촌의 관광자원도 일반적인 관광자원의 분류방법에 따라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문자원은 사회문화자원과 산업자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자연자원으로 해수욕장, 갯벌, 철새도래지 및 천연기념물,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바다길 갈라짐 등이 있으며 인문 자원 중 사회문화자

원으로는 자료전시관, 지역축제(풍어제, 영등제 등), 음식문화, 전래 어구어법, 어촌의 문화사적 및 유적지와 어촌촌락 등이 있으며 산업자원으로서는 수산업에 많이 쓰이는 어항, 양식장, 유어선(낚시배), 遊船(놀이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현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어촌관련 관광자원의 분류 및 현황

분류	자 원 명		자 원 내 용	비고
자연 자원	해 수 욕 장		서해 110, 남해 97, 동해 147, 총 356개소	
	철새도래지		국제적 중요철새 3종 이상 연안 도래지 20개소	
	갯 별		2,815km ² (세계 5대 갯벌의 하나)	
	해양스포츠 장소		요트장 해안 7개소 등 종목별 다수 보유	
	해안경관지		해상(안) 국립공원 2648.54km ² 일출/일몰지, 도서(3,200여개), 기암괴석	
	바다낚시터		전국 연안	
	기 타		바다 갈라짐 등	
인문 자원	사회 문화 자원	전시관	어촌민속관(준비중) 등	
		지역축제	각 연안지역 별 72개	
		바다음식	각 연안지역별 소재 다양	
		어구어법	"	
		어촌사적지	해양문화지표 조사중	
		어 촌	4,000여개의 자연부락 어촌	
	산업 자원	어 항	지정 어항 415개소, 소규모어항 2,000여개소	
		어 장	각 연안지선(수산자원보호구역, 양식산란장, 회유로 등)	
		유어선	3,670여척	

* 자료: 필자 작성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은 낚시어선 3,6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낚시가 가능한 갯바위, 넓은 갯벌, 기암괴석·해안절벽, 해수욕장, 다도해적인 경관, 해저다이빙 공간 등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표 2-9〉

어촌의 자원 잠재력

(단위 : 척, %)

종 목	보유현황	비고
낙시어선	3,672척	2001 10월 현재
바다낙시 가능한 갯바위	73.9%	전체어촌 대비
넓은 갯벌	47.7%(45.0%)	"
기암괴석·해안절벽	46.6%(33.7%)	"
해수욕장	42.0%(49.1%)	"
다도해적인 경관	33.0%	"
해저다이빙 공간	27.3%	"
철새 서식지	(25.4%)	"
방풍림	(26.0%)	"
바다 갈라짐	(11.8%)	"
하천·하구언	(14.8%)	"
동굴	(13.0%)	"
수목 및 화초	(18.3%)	"

*자료 : 황기형·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12. 및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0. ()안은 농림부의 연구 결과임.

3. 어촌관광의 특성과 발전

1) 어촌관광의 고유한 특성

어촌관광의 특성으로서는 먼저 어민이 수행주체로서 본업인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련지식 등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전문 관광사업가들이 갖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계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민들이 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소규모, 소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 여건을 잘 이용하여 적절히 운영이 될 경우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표 2-10〉

어촌관광의 SWOT 분석

<강점> · 자원의 다양성 · 소득, 여가시간 증대 · 다양한 수산업 활동연계 가능	<약점> · 기반시설 취약 · 어민들의 의식, 자세 취약 · 접근성 취약
<기회> · 주5일 근무제 채택 · 연안교통망 발달 · 대체 소득원 개발 장려 및 지원	<위협> · 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 · 대체 관광자원 증대

* 자료 : 필자 작성

2) 어촌관광개발 발전단계

현재 연안 어촌의 실태를 고려하여 어촌에서의 관광 발전 단계를 나누어 보면 먼저 수산업과 농업 등을 겸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순수수산업 어촌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때에는 어촌의 각종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한다(<그림 2-1> 참조).

소득의 증가와 도로의 개설, 자가용의 보급 등으로 도시민들의 왕래가 차츰 잦아지게 되는 어촌계들은 점진적으로 어업과 관광을 병행하게 된다. 이처럼 관광겸업어촌으로 변하면서 <그림 2-1>과 같이 어촌 산업이나 어촌의 자원과 관련되는 관광시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관광겸업 어촌들은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관광 수요가 높은 경인 연안과 강원 연안 등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 인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제주도나 변산국립공원 등 일부 유명관광지 인근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예정인 서해안 등의 순수어촌들이 향후 관광어촌으로 많이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관광지 지정·개발 등을 통하여 완전히 관광지로 변하여 원래의 어촌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지역 산업이 관광업이나 유통업으로 전업하는 지역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순수어촌에서 취락공간과 경제사회 구조가 관광업에 맞게 바뀐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동진, 제부도 등 관광객이 급증하여 이미 관광어촌에서 순수 관광지로 변모하는 지역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때에는 해양관광 등 보다

고급화된 관광이 전체 지역산업을 주도하게 되고 어민들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외부의 개발가들이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어민들은 이에 종속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어 상호 갈등 관계도 발생한다.

어촌과 수산업의 유지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단계까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가치관의 문제이나 어촌이 가지는 고유성을 간직한 채 관광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간단계인 관광어촌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이나 환경오염, 난개발, 기존 산업의 보호, 어민들의 주도권 행사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단계를 염두에 두고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표 2-11〉 어촌의 관광지 발전 단계

모 델	어촌계	방 향
순수 수산어촌	대부분 어촌계	수산시설 보강 및 어촌관광화 대비 지원
관광어촌	일부 어촌계	어촌관광사업 집중지원
순수 관광지	제한된 지역	관광사업 인프라 보강 방안, 민자유치 등

* 자료 : 필자 작성

어촌에서의 관광 사업의 진화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촌은 초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어업기반 및 어업지원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민을 위한 기본적인 문화·복지·행정시설이 함께 한다.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어촌의 시설은 순수한 어업의 유지에 국한되게 된다. 지역축제 등 지역의 각종 행사들도 순수하게 지역민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도로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대로 점차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갈망이 증대되게 된다. 점차 도시민들의 관광활동이 증대함에 따라서 어촌의 관광객 유치 활동도 개시되게 된다. 초기에는 어촌의 기본 산업인 수산업과 연계되는 바다낚시, 체험어업,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어촌주변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어촌 인근의 송림, 해수욕장, 어항시설, 생태자원, 사적지, 경관지 등의 자연자원 등이 초기에는 많이 활용되면서 속

박시설, 식당가가 점차 출현한다.

관광객이 보다 많이 몰리면서 차츰 바닷가에서 가능한 전문적인 관광 활동이 출현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어민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광운영자가 나오게 된다. 관광유람선, 관광잠수정, 전문 숙박업자, 전문 식당가 등이 출현하며 그 규모도 예전과는 달리 보다 대형화되고 고급화되게 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공원 조성 등 지원 사업에 의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본래 의미의 어촌관광 사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아 외부에서 유입된 전문 개발운영자들과 갈등과 상충이 일어나기도 한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된 관광어촌을 다시 상세히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의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단계(기초 관광어촌마을)로서 기존의 순수어촌에서 관광 발전가능성은 높으나 아직은 관광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마을로서 기초 관광인프라가 약하므로 이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어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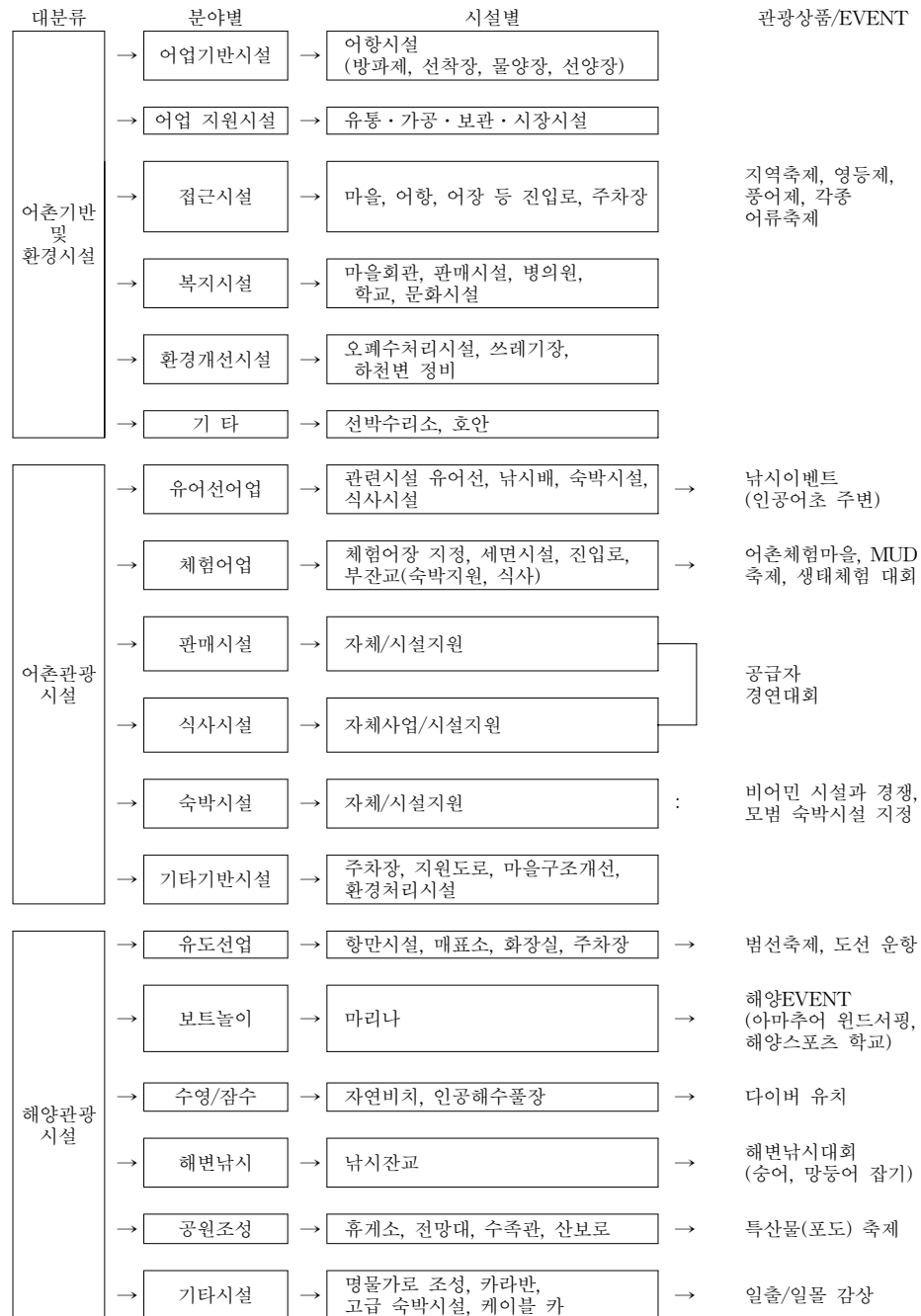
2단계(성장 관광어촌마을)로는 기초 인프라를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어 상당한 관광객을 집객하고 있으며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경우로서 인프라의 보완과 홍보, 관광프로그램 등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고산 등, 지역별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지역들이 이에 해당되나 아직 그 숫자는 많지 않다.

3단계(성숙 관광어촌마을)는 관광어촌으로서 완벽한 체험, 휴식, 숙박 등의 시설을 갖춘 마을로서 각종 관광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관광사업이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고도화된 지역이다. 이러한 마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선진적인 관광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

20)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토지를 관광자들에게 판매한 어업인들은 개발 후의 이익 분배 과정에 전혀 참여치 못하므로 전적으로 개발로 인한 불이익(환경오염, 난개발 등)만 감수하게 되고 상당한 심리적인 소외감만 느끼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어촌계의 관광 분야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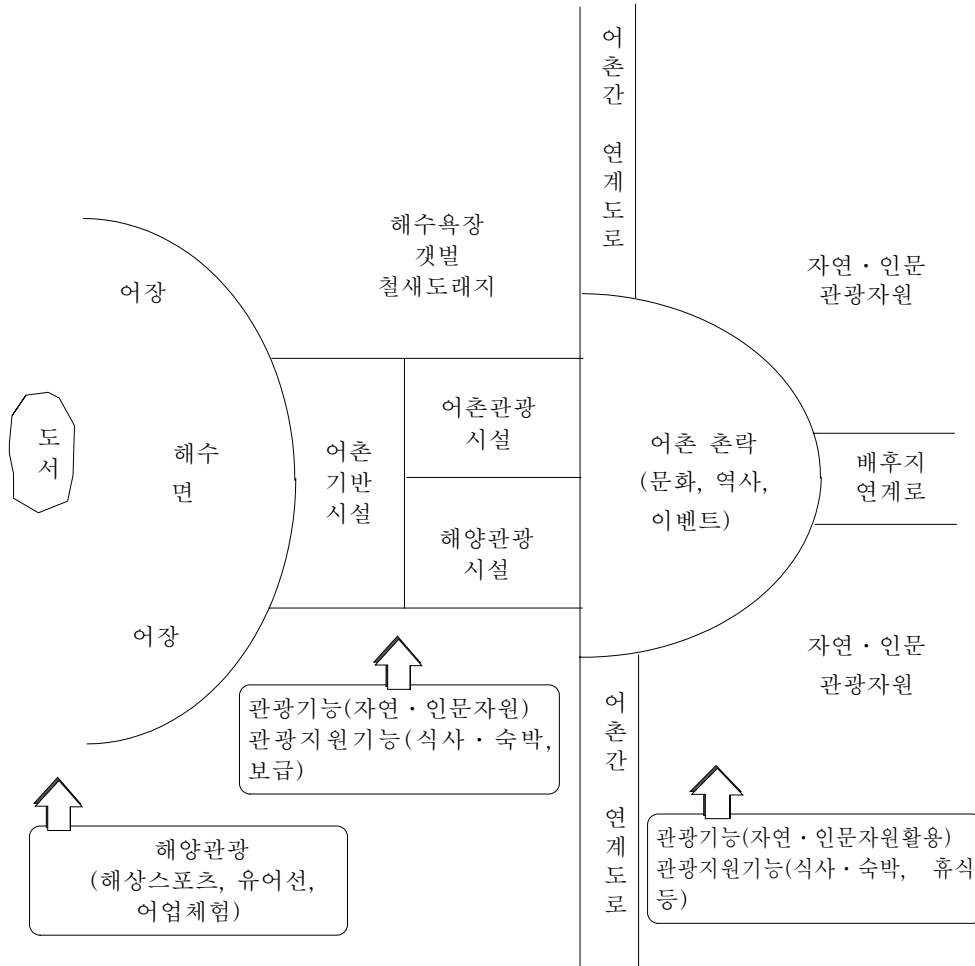
*자료 : 필자 작성

3) 현재의 어촌 관광 구조

어촌은 기본적으로 바다 전면의 어장 등의 해수면, 어장과 배후어촌을 연계하는 어항시설 등 중간 연계시설, 배후의 어촌공간으로 구성되게 된다. 관광 활동은 각종 해양스포츠, 낚시, 유람활동 등이 가능한 해수면, 각종 자연 및 사회인문 관광자원을 갖는 배후어촌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며, 어항은 해수면과 어촌공간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관광 시설로서 낚시, 바다 산책 등 역시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어촌은 전면에 어항과 해역을 갖게 됨으로서 유사한 성격의 농촌보다 훨씬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연안 지역은 생태적인 漸移地域으로서 육상생태, 해변생태, 해양생태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촌지역에서는 관광 활동이 이를 소재로 하여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다. 이 세 공간을 어떻게 잘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용케 하느냐가 어촌관광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는 어장-어항-어촌 공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따른 관광 상품화를 이루어 어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어촌관광자원의 공간적 구조



* 자료 : 필자 작성

이러한 어촌지역에서의 어촌관광은 공간적이 측면 이외에도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철마다 어업의 형태나 잡히는 어류, 찾아오는 조류의 종류 등 변화가 크므로 이것이 어촌관광의 형태를 크게 다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를 어촌관광 계획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로 경기도 어촌에서의 어업력을 보면 <그림 2-3>과 같이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2-3〉 어촌관광 개발시 고려해야 할 지역 어업력(경기도)

어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낙지				—————					—————			
맛			—————	—————	—————	—————	—————					
바지락			—————	—————	—————	—————	—————	—————	—————	—————		
새우					—————	—————	—————	—————	—————	—————	—————	
일으기그물			—————	—————	—————	—————	—————	—————	—————	—————	—————	
꽃배				—————	—————	—————	—————					
통발			—————	—————	—————	—————	—————	—————	—————	—————	—————	
유자망							—————					
건간망		—————	—————	—————	—————	—————	—————	—————	—————	—————	—————	
양식	—————	—————	—————									

* 자료 : 경기문화재단, 「경기만의 갯벌」, 기전문화예술총서6, 2000 5, p. 223.

어촌관광 사업을 사업주체별로 보면 주로 어민 개인이나 어촌계 직영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내용은 주로 해산물 식당운영, 바다낚시 영업, 민박 운영 등이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군 등 공공기관의 직영에 의한 사업도 일부의 경우(강화 갯벌체험, 보성 울포해수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경우는 모두 지자체 수입원이 되므로 주변 어민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어민의 공동 참여유도로 이익의 일부가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어촌관광 사업의 다양도를 평가하여 볼 때 어민들은 아직 관광에 대한 경험과 노우하우가 일천하여 경영성과도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또한 사업의 복합화·패키지화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민박시설, 혹은 식당시설 등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또한 하계에 경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계절성이 커서 사업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비치형의 경우 한 철 영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관광 비수기가 어업시즌으로 연결되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상의 타격이 크게 되어 다계절화가 가능한 사업을 도입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유형화 및 패키지화를 하게 되면 상품 다양화로 인한 관광객의 체재시간 연장이나 고급화, 다양화에 의한 객단가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되어 수입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도 전제로서 신상품 개발, 숙박·식당·주차·편의시설 등의 개선 및 신설, 어민 교육, 어민 단합, 어업과의 조화, 어민 지도자 능력제고 등 상당한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어촌관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촌관광을 위한 지원을 보면 부족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휴양단지 조성, 어촌민숙관, 해양수산과학관 등을 지원하여 어촌관광 테마 조성에 힘쓰고 있고, 1999년부터는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식당, 숙박시설, 접근도로 개설 등을 지원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도·시·군 등의 지자체에서도 어촌관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²¹⁾

21) 정부지원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 도출과 평가는 다음 서적을 참고하기 바람.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 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1999. 12.

〈표 2-12〉 우리나라 어촌친수공간 관련사업별 현황

구 분	주 내 용	사 업 년 도
어촌관광개발사업	67개소에 61억여원 지원	1990~19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한 권역에 35억원씩 투자	1994년 이후 계속/70여개 권역 지원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한 지역에 30억원씩 투자	1997년 이후 계속/2-3개소 지원중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사업	계획 중	2001년 9개소/90여억원 지원중임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1 11., pp. 27-31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함.

향후 정부나 지자체가 마을 단위로 어촌관광사업을 지원할 경우 앞에서 언급된 3가지 단계 중 해당 어촌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검토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잠재력이 있는 기초 관광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성장 관광어촌마을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촌계를 수협 중앙회에서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복지형, 자립형, 성장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특히 소득이 열악하나 관광잠재력이 높은 자립형, 성장형 어촌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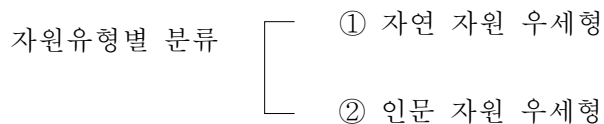
성장 관광어촌마을의 경우는 어느 정도 관광 자립기반이 갖추어진 경우이므로 약간의 사업 지원으로도 모범적인 성숙 관광어촌마을로 조성 가능하다. 따라서 때로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시범 관광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여타 어촌으로의 파급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조성된 관광어촌마을 육성으로 여타 어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어촌관광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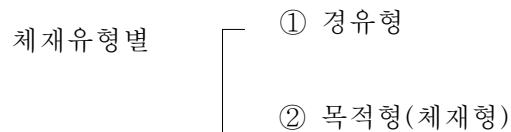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유형은 관광자원유형, 관광패턴, 공간유형, 지형적인 형상, 활동유형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자원유형별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연안 미관, 경관 등 자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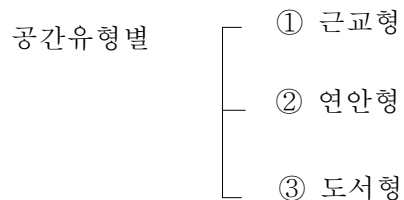
원이 우수한 지역, 인문자원 중 사회자원이나 산업자원이 우세한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어촌에서는 아무래도 자연자원 우세형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패턴을 체재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잠시 들리는 경유형과 목적형(체재형) 관광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관광은 여름의 해수욕철에는 휴가를 통한 여행이 많아 대개 3박 이상의 체재형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철에는 경유형으로서 대개 당일 관광이 주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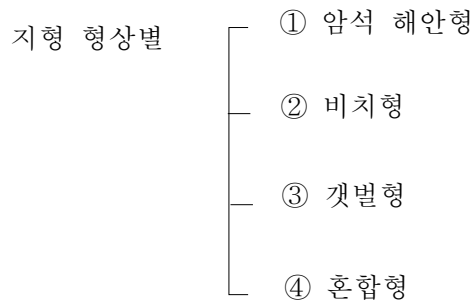


공간유형별로 보면 근교형, 연안형, 도서형 등으로 입지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도시 인근의 경우는 근교형으로서 수도권인 경기, 인천, 강원 연안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대개 연안형으로 볼 수 있다. 도서형의 경우는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홍도, 거문도 등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기암, 괴석 보유지역 등 특수한 지역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어촌의 지형적인 형상에 따른 유형으로서는 암석 해안형, 해수욕장형, 갯벌 해안형, 혼합형(상기 2-3 가지 혼합된 형) 등으로 나뉜다²²⁾. 암석해

안형에서는 주로 갯바위 낚시를 위주로 한 관광 유형이, 해수욕장형에서는 여름의 해수욕객을 맞이하기 위한 민박, 식사시설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유형이, 그리고 갯벌해안형에서는 생태체험 등을 위주로 하는 유형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활동의 유형에 따라 어촌관광을 분류해 보면 <표 2-14>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²³⁾. 이를 보다 그룹화 시켜 큰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대부분 수산물과 관련하여 수산물의 시식과 관련되거나 수산물을 구입하는 활동(인천 월곶 등)이 많이 나는 유형이 하나 도출된다. 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공, 판매, 유통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수산물을 시식하는 것은 전국 어느 어촌에서나 일어나는 활동이지만 특히 이러한 활동이 거대한 집객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로는 어업자원이 연안에 풍부하여 이를 통해 바다낚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갯바위가 발달한 지역이거나 도서 주변에 어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많다.

22) 이재천, 『관광어촌』, 서울:백산출판사, 1994, pp. 153 - 154. 여기에서는 사빈해안과 암석해안으로 나누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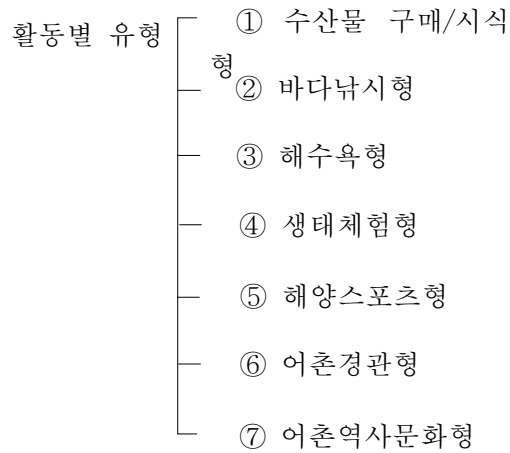
23) 이 재천, *op. cit.*, p 163. 여기에서는 관광어촌의 유형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민박형, 유어어선형, 활선어요식형, 혼합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

다음 서적에서는 관광활동에 따라 7가지 유형(스포츠·레저, 수산물 구독, 종교 문화, 자연경관 감상, 생선회 등 맛보기, 휴양·휴식, 기타 등)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0, p.150.

〈표 2-13〉 우리나라의 주요 어촌관광 유형별 현황

대상지	현 관광형태	부존자원	향후 관광변화패턴	비고
경기 화성 궁평	경관감상형, 송림경관	낙조감상, 송림, 바다낚시, 화옹방조제	장기 체류 휴양형	
경기 안산대부 선감마을	갯벌체험형, 바지락,맛 채취	갯벌, 양식어장, 민박, 시화 방조제 연계	경기도 종합해양체험 관광지	
충남 서천 송석마을	어업체험형, 바지락 가무락, 맛채취	갯벌 양식어장, 민박낙수, 삼각망 체험, 해수욕장, 한산모시 박물관, 송림	어업 종합 생태관광지	
충남 서천 마량포구 (비인항)	수산물 시식형, 해돋이 관광 유명	춘장대 해수욕장, 성지관광농원, 부사지구 간척지	어업 종합 생태관광지	해돋이 관광 유명
충남 홍성 남당항	수산물 시식형,대하구이· 새조개특산지	인근에 서산 A, B 지구, 간월호가 있음	천수만 어촌관광 거점	
전북 부안 격포 채석강	수산물 시식형, 위도 낚시객 중계지	횃집, 어항시설, 위도선착장, 변산국립공원	새만금 지구와 연계한 어촌관광중심지	
전남 신안 흑산도	경관감상형, 흑산도·홍도관광	흑산도·홍도 갯바위 낚시	서라도해 거점 관광지	서라도해 국립공원
전남 완도 보길도	해양문화탐방형, 윤선도유적지	윤선도 유적지, 갯바위 낚시	남도 역사 문화 탐방의 거점	
전남 여수 오동도	경관감상형, 광양제철,돌산 등 주변관광	국립공원 지정, 천연기념물 군락 등	여수 한려해상권의 거점	2010 Expo연계 가능
강원 속초 대포항	수산물시식형, 설악산지구 연계관광	어항시설, 외옹치 지구 어업체험, 설악산 등	관광어항으로 재개발 추진	
강원 강릉 정동진	경관감상형, 철도관광 상품	일출경관, 철도역, 해변비치 등	젊은 남녀들의 순례 메카로 부상	
강원 삼척 장호마을	어업체험형, 정치망·가리비양 식장, 갯바위낚시	경관, 기암괴석, 동산환선굴 연계가능, 인근 해수욕장, 황영조마을	어업체험 및 경관감상형 종합관광	
경북 영덕 강구항	경관감상형, “그대 그리고 나”촬영지	영덕대게, 강구항 주위관광지	경북 어촌관광 중심지	
경북 영덕 대진마을	해양레포츠형, 스쿠버·윈드서핑, 수상스키	강하구 생태발달, 고한옥지구, 캠프 가능지 등 구비	해양스포츠와 배후 생태자원 연계형 개발	
경북 경주 감포항	수산물시식형, 경주외곽 거점 어항	어항시설, 문무왕수중릉 연계, 감은사, 감포해양관광단지	경주 외곽의 해양관광거점	

* 자료 : 필자 작성



셋째로는 해수욕장지역으로서 대개 비치가 발달하여 하계에 해수욕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다. 서해안의 대천, 몽금포 지역과 남해안의 상주, 가마미 지역, 그리고 전연안이 비치로 발달된 동해안 지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을 띠고 있다.

넷째로는 갯벌이 발달한 강화도 등 서해안 어촌들, 철새들이 많이 찾아드는 지역들, 그리고 어장을 이용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어촌 등으로 생태 관련 체험이 가능한 어촌들이다.

다섯째로는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어촌 지역들이다. 윈드서핑, 레저잠수, 모터보트 등 유선놀이 등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여섯째로는 바다 경관을 활용한 어촌관광 유형으로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일출/일몰은 최근 새로운 어촌관광자원으로 크게 부상하였고, 진도, 무창포 등의 바다 갈라짐, 해상국립공원의 다도해 도서, 기암괴석지역 등의 어촌지역이 이러한 유형이다.

일곱째로는 역사 문화체험형으로서 어촌의 사적, 각종 축제, 문화재 등이 소재가 되어 어촌관광이 활성화되는 지역들이다.

〈표 2-14〉 어촌관광 유형별 내용

어촌 유형	관광 유형	체류시간	활성화 시기	숙박시설 관련	비 고
수산물구매/시식형	먹거리형	당일형	년 중		어항 관련
바다낚시형	놀거리형	당일~1박형	년 중	원거리인 경우 숙박발달	어항 이용
해수욕형	놀거리형 (شط거리)	2박이상	하 계	숙박발달	비치발달지역
생태체험형	볼거리형	반일형~1박형	년 중		갯벌, 철새, 어장
해양스포츠형	즐길거리· 놀거리형	1-2박형	봄, 여름, 가을	숙박 필요	해양스포츠 적지
어촌경관/휴양형	볼거리형 휴양형	다양 특정시기, 년중		숙박 필요	일출/일몰, 바다갈라짐, 해수탕 등
어촌역사문화형	볼거리형	당일-1박형	년중 및 특정시기	숙박 필요	역사유적, 축제 등

유 형	관련 시설 및 활동	비 고
먹거리	다양한 특산수산물 및 농산물, 요리법, 서어비스 등 개발	
볼거리	전망시설, 어장진입로, 양식장, 어구어법, 문화유적, 이벤트	
놀거리	해수풀장, 윈드서핑, 잠수, 뱃놀이, 체육공원	
즐길거리	산책로, 수확체험	
شط거리	수박, 방갈로, 정자, 소공원	

* 자료 : 필자 작성

이러한 관광활동별 유형 분류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표 2-15>와 같은데 이 중에서 관광활동유형별 분류가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류방법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활동유형별 분류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표 2-15〉 유형별 분석상의 장단점 비교

유형	유형 내용	장점	단점	비고
관광 자원 유형	자연자원 우수유형, 인문자원중 사회자원이나 산업자원이 우세한 유형	어촌이 소유하는 자원 특성 파악 용이	유형의 범위가 크고 전체 유형간 설명의 명확성 결여	정책적인 분석에 활용은 다소 어려움
공간 유형	근교형, 연안형, 도서형	장소와 수요와의 연계 용이	각 장소가 갖는 특성의 부각이 안 됨	”
관광 패턴	체제형, 경유형	체제 기간 파악 용이	분석에 필요한 어촌계간 차별화 어려움	정책적인 분석에 활용에 큰 한계가 있음
지형 적인 형상	암석 해안형, 해수욕장형, 갯벌 해안형, 혼합형	자연적인 여건의 부각에 유리	자연적인 여건이외의 설명력이 크게 부족	정책적인 분석에 활용은 다소 어려움
활동 유형별	바다낚시형 해수욕형 수산물구매/시식형 어촌경관휴양형 어촌역사문화형 어업생태체험형 해양스포츠형	어촌계가 갖는 관광활동의 특성과 자원특성의 결합으로 상 호 유형화 유리하고 설명력 높음	혼합하여 나타나는 경우 등의 차별화에 다소 어려움.	정책적인 분석에 활용하는데 적합성이 가장 높음

* 자료 : 필자 작성

제 3 장 어촌관광활동 실태분석

1. 어촌관광활동에 대한 현황분석

관광객의 욕구와 관광활동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개별관광에 따른 여행의 경험, 만족도, 불편사항 등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의 관광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시설의 마련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어촌관광 국민의견 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어촌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여행경험과 여행형태, 여행의 불만사항,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어촌관광의 활동유형을 구분한 다음 활동내용에 따른 특성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전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²⁴⁾ 지난 1년간(2000. 7 - 2001. 6) 어항어촌관광 경험과 세부적인 여행 형태, 어촌여행의 불만/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개요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 남녀
- 조사 규모 : 유효표본 1,500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법, 표본추출

24)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해양수산부의 2001년도 수행과제인 특정연구과제 『어촌 관광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재가공하여 활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설문 내용은 상기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조사 항목 : 지난 1년간 어촌여행 경험, 여행횟수/지역/시기/여행형태별 사용비용, 어촌여행시 동행자/방문한 어촌의 유형, 어촌 관광시 주요활동/향후 어촌 방문목적, 시급한 개선사항 등

3) 표본의 특성

계통표집과 할당표집을 통하여 선정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남녀 1,500명에 대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3-1〉

표본의 특성

구 분		사례수	구성비(%)
전 체		1500	100.0
성 별	남	746	49.7
	여	754	50.3
연 령 별	10 대	261	17.4
	20 대	347	23.1
	30 대	341	22.7
	40 대	218	14.5
	50 대 이상	333	22.2
지 역 별	서 울	350	23.3
	경 기 / 인 천	328	21.9
	대 전 / 충 청	146	9.7
	광 주 / 진 라	178	11.9
	대 구 / 경 북	166	11.1
	부 산 / 울 산 / 경 남	263	17.5
	강 원 / 제 주	69	4.6
지역 규모별	광 역 시	748	49.9
	중 소 도 시	571	38.1
	군 지 역	181	12.1
학 력 별	고 재 이 하	171	11.4
	대 학 (원) 재 학	212	14.1
	중 졸 이 하	275	18.3
	고 졸	447	29.8
	대 졸 이 상	372	24.8
	모 름 / 무 응 답	24	1.6
직 업 별	화 이 트 칼 라	249	16.6
	블 루 칼 라	84	5.6
	자 영 업	214	14.3
	농 / 임 / 수 산 업	51	3.4
	주 부	391	26.1
	학 생	381	25.4
	무 직 / 기 타	125	8.3
	모 름 / 무 응 답	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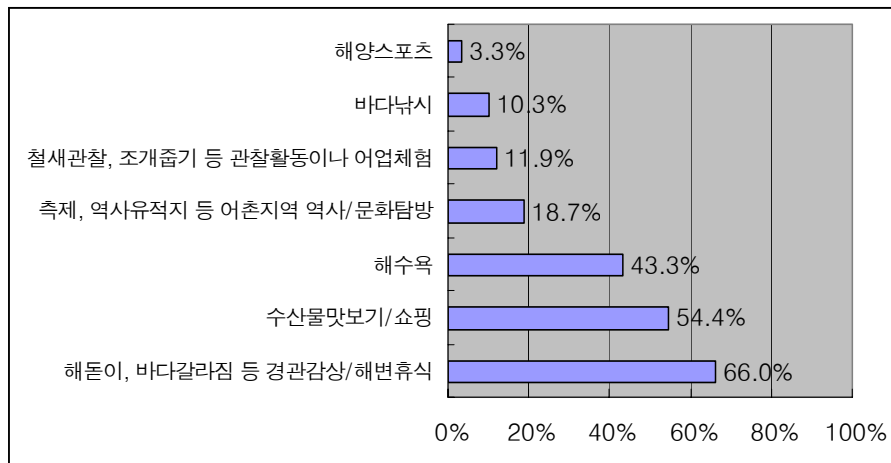
4) 설문조사 결과분석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어촌관광활동을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스포츠’, ‘수산물 맛보기/쇼핑’, ‘철새관찰, 조개줍기 등 관찰활동이나 어업체험’, ‘축제, 역사유적지 등 어촌지역 역사/문화 탐방’, ‘해돋이, 바다갈라짐 등 경

관감상/해변휴식'의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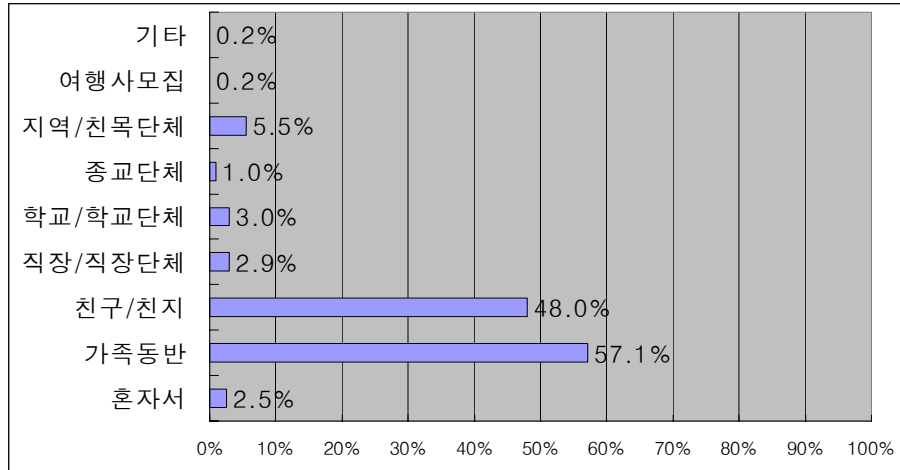
조사결과, '해돋이, 바다갈라짐 등 경관감상/해변휴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수욕'이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다른 활동들의 참여도는 각각 1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어촌관광 활동(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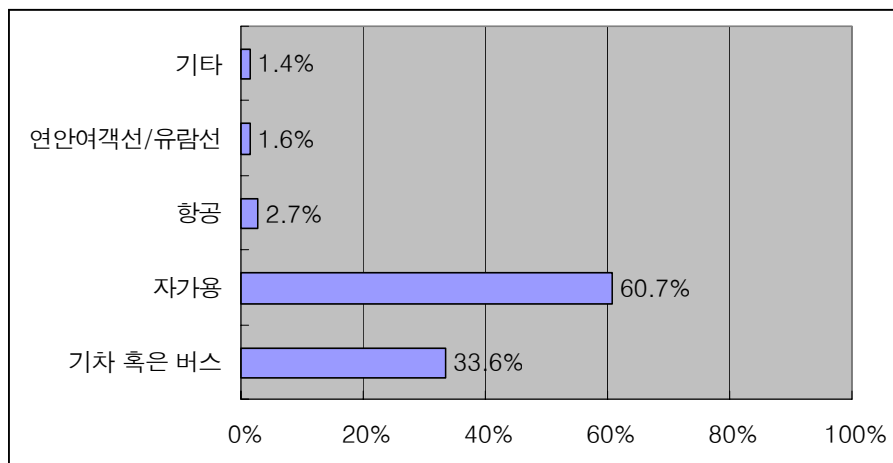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동반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동반의 경우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나 친지와 함께 어촌관광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단체나 여행사 모집에 의한 관광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동반형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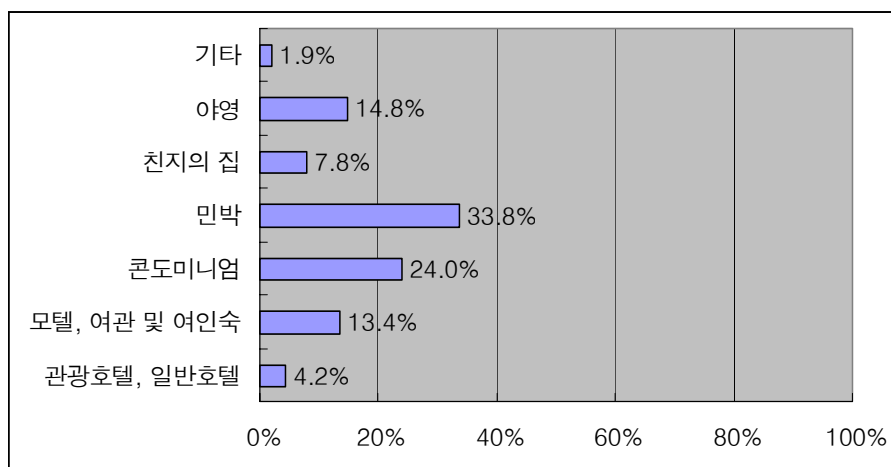
어촌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기차의 이용율이 3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유람선의 이용빈도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어촌관광 목적지 중에서 섬으로의 여행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이용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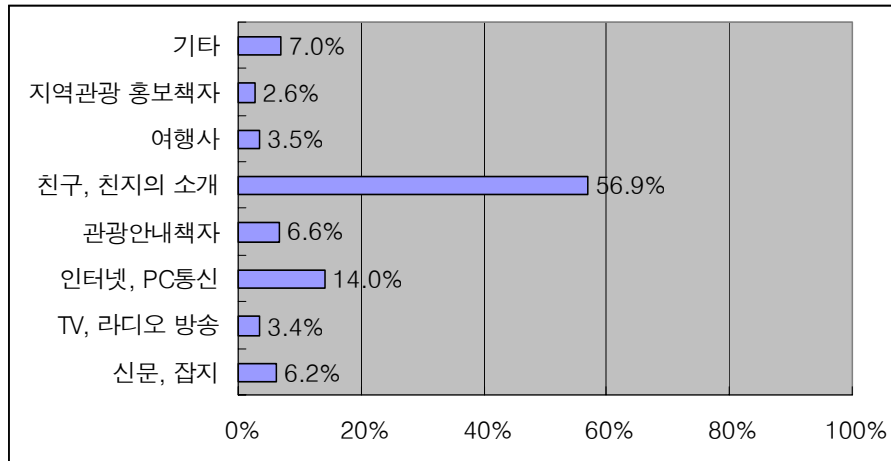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과 함께 1박 이상의 숙박여행시 이용했던 숙박시설을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이나 여인숙, 민박, 야영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의 이용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이용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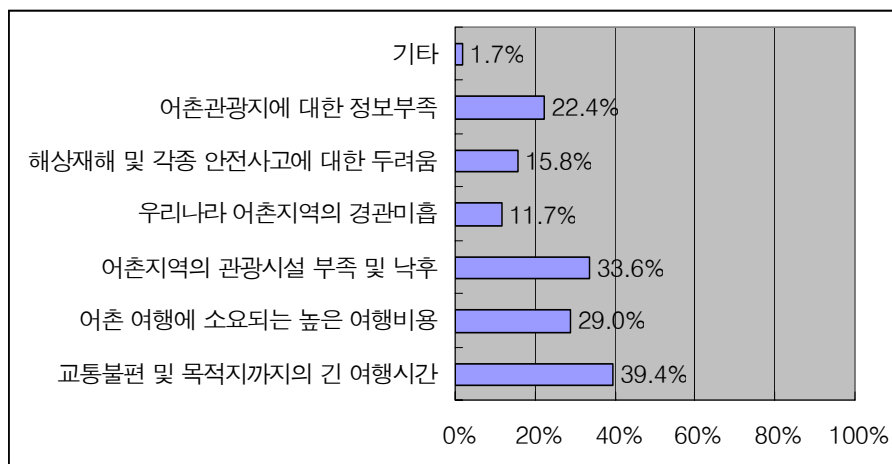
어촌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9%가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해서 관광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으며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는 빈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정보의 수집방법에서 친구나 친지의 소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촌관광지에 대한 소개나 어촌관광활동에 대한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어촌관광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방법



어촌관광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교통불편 및 목적지까지의 긴 여행시간, 어촌지역의 관광시설 부족 및 낙후, 어촌여행에 소요되는 높은 여행비용이 어촌관광활동의 주된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3-6〉 어촌관광 활동시 느끼는 문제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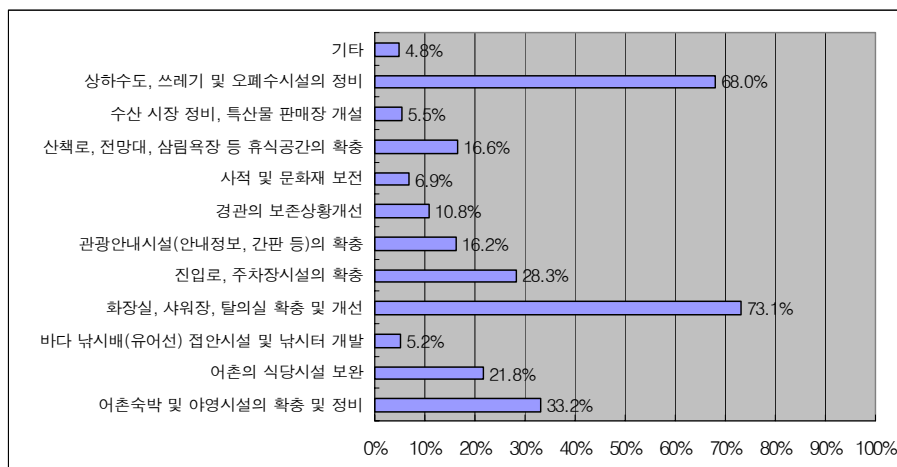


여행시간이 길고 여행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불만은 우리나라의 연안 및 해안지역이 아직까지 교통이나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촌관광 활동을 위해서 정비되어야 할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의 확충 및 개선과 상하수도,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의 정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어촌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관광시설보다는 기초편의 시설과 어촌관광지의 환경정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편의시설 및 환경시설의 정비와 함께 숙박시설, 주차시설, 삼림욕장, 전망대, 공원 등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 시설(복수응답)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은 해안경관 감상 및 해수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활동들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촌관광이 하절기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가족단위로 관광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 교통수단보다는 자가용의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나 여름휴가철의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민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수집도 대중매체보다는 친구나 주변사람의 소개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관광정보의 수집이 대중매체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관광객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며 관광지의 혼잡과 바가지 상흔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문제점으로 기반시설의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장실, 샤워장 등의 기초편의시설의 마련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관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어촌관광 유형별 특성분류

앞에서의 어촌관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류된 어촌관광유형에 따라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스포츠’, ‘수산물 구매/시식’, ‘어촌/생태체험’, ‘어촌역사/문화’, ‘어촌경관휴양’의 7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들 유형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즉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 이용교통수단, 이용숙박시설, 동반형태, 어촌관광활동시 느끼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광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례로 앞의 <그림 3-2>에는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에 대하여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서는 해수욕 참여자의 동반형태, 바다낚시 참여자의 동반형태, 수산물 구매/시식참여자의 동반형태 등 7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1)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에 따른 구분

다음의 <표 3-2>는 어촌관광활동의 7가지 유형에 따라서 동반형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류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동반의 형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친구 및 친지의 동반형태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에 분류

(단위 : %)

구분	해수욕	바다 낚시	해양 스포츠	수산물 구매 /시식	철새관찰, 조개 줍기 등 관찰활동이나 어업체험	축제, 역사유적지 등 어촌 역사/문화 탐방	해돋이, 바다 갈라짐 등 경관감상/ 해변휴식
혼자서	2	7.2	0	3.6	3.2	3.7	3.4
가족동반	59.8	71.4	41.5	67	77.7	50.6	55.9
친구/친지	51.2	44.6	58.7	45.3	42	49.2	50.1
직장/ 직장단체	2.4	4.5	0	3.6	2	2.2	2.8
학교/ 학교단체	3.5	0	12.1	1.5	3.3	6.2	2.5
종교단체	0.9	1.2	0	0.4	0.9	3.9	1
지역/ 친목단체	1.7	3.1	4.7	6.8	3.8	11.6	5
여행사 모집	0	0	0	0	0.1	0	0.2

그리고 <그림 3-8>과 <그림 3-9>는 어촌관광활동의 동반형태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의 중점을 기준으로 양(+)의 퍼센트 값과 음(-)의 퍼센트 값은 앞의 <그림 3-2>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활동형태와 (전체평균 수준) 위의 <표 3-2>의 개별 활동에서 나타난 값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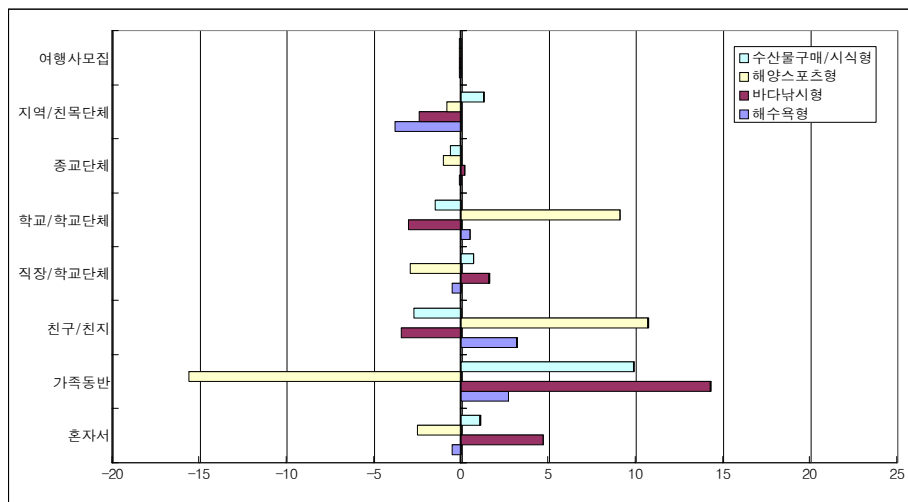
즉 <그림 3-2>의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동반 형태에서는 가족동반이 5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3-2>의 어촌관광활동별 분류에서는

바다낚시형에서 가족동반이 7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14.3%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그래프 상에서 보면 바다낚시 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가족 동반의 형태가 전체 평균보다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친구/친지, 학교/학교단체, 지역/친목단체 등의 동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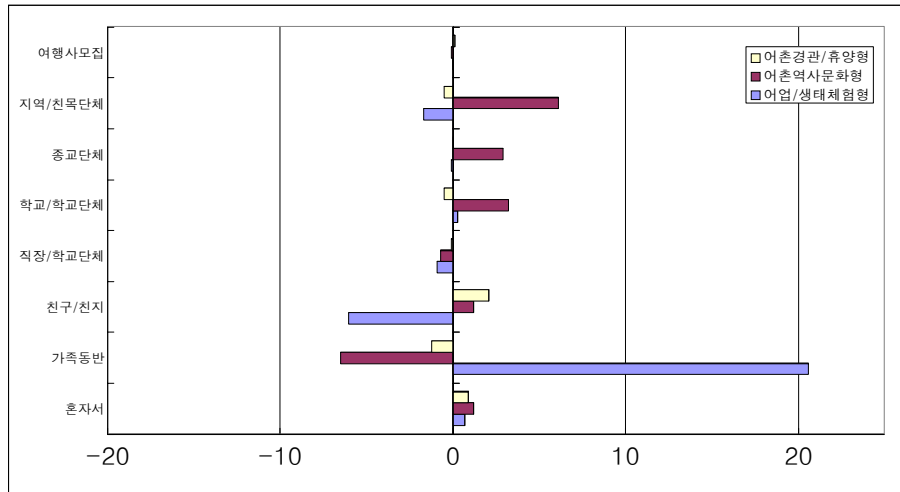
〈그림 3-8〉

동반형태에 따른 분류 I



〈그림 3-9〉

동반형태에 따른 분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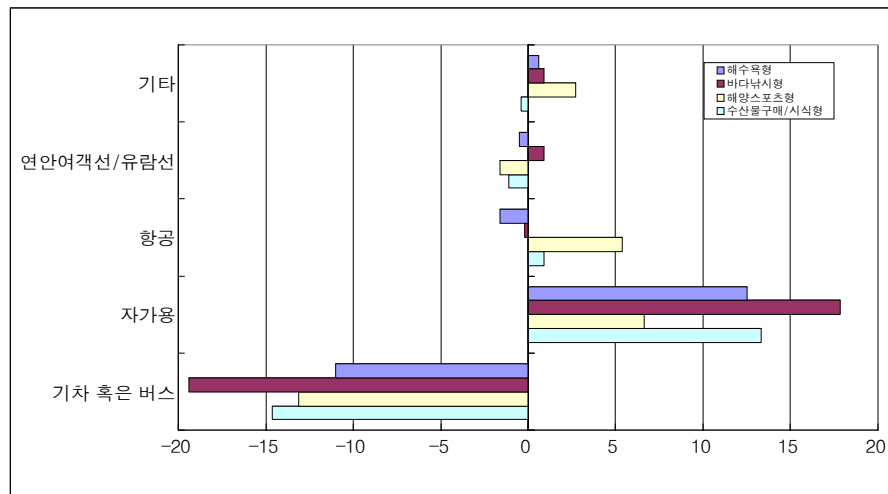
해양스포츠형의 경우에는 친구/친지, 학교단체의 동반형태가 높으나 가족동반은 낮은 편이며 어업/생태체험형의 경우에는 가족동반의 형태가 중심을 이루며 친구나 친지의 동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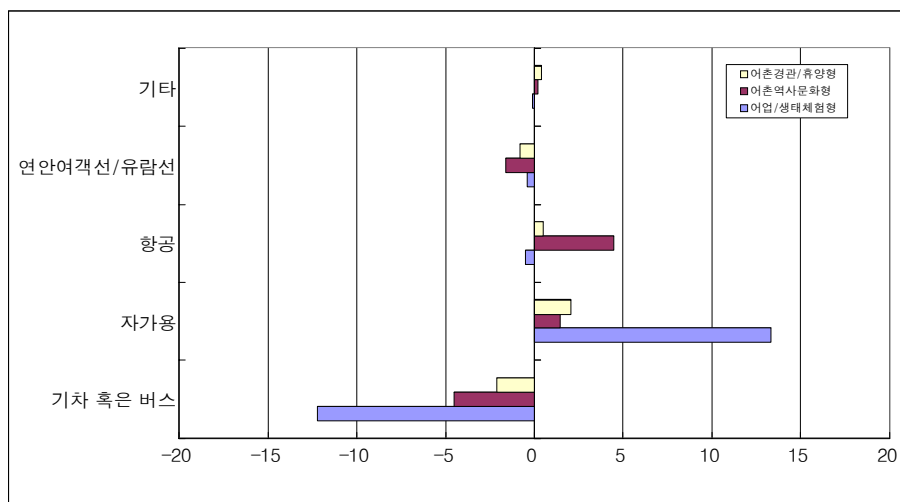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3-10>과 <그림 3-11>은 7가지 어촌관광 유형에 따라서 이용교통수단의 차이를 전체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든 유형의 어촌관광 활동에서 기차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이 낮은 반면 자가용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0〉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I



〈그림 3-11〉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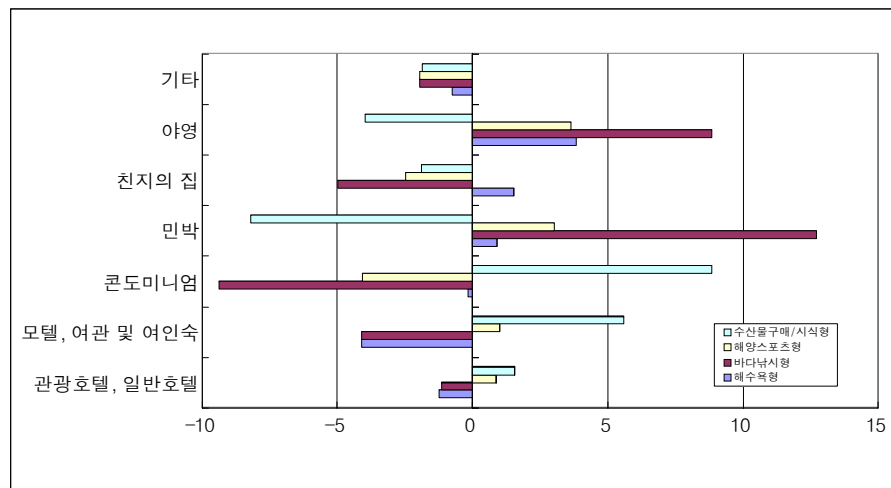


3) 이용숙박시설에 따른 구분

어촌관광활동에 따른 이용숙박시설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산물 구매/식형의 경우에는 콘도미니엄과 모텔, 여관 및 여인숙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민박이나 야영의 이용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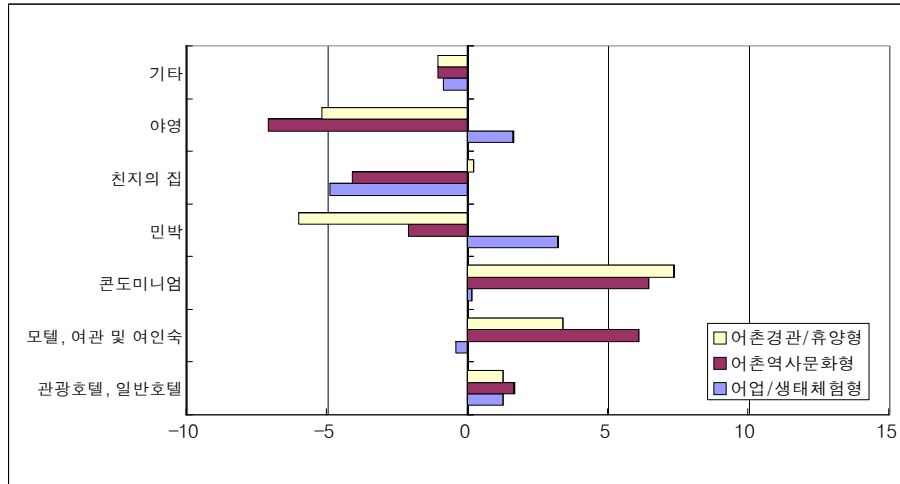
〈그림 3-12〉

이용숙박시설에 따른 분류 I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해양스포츠형의 경우에는 민박이나 야영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콘도미니엄의 이용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바다낚시형과 해수욕형의 경우에도 민박의 이용율이 높은 반면 콘도미니엄의 이용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3〉 이용숙박시설에 따른 분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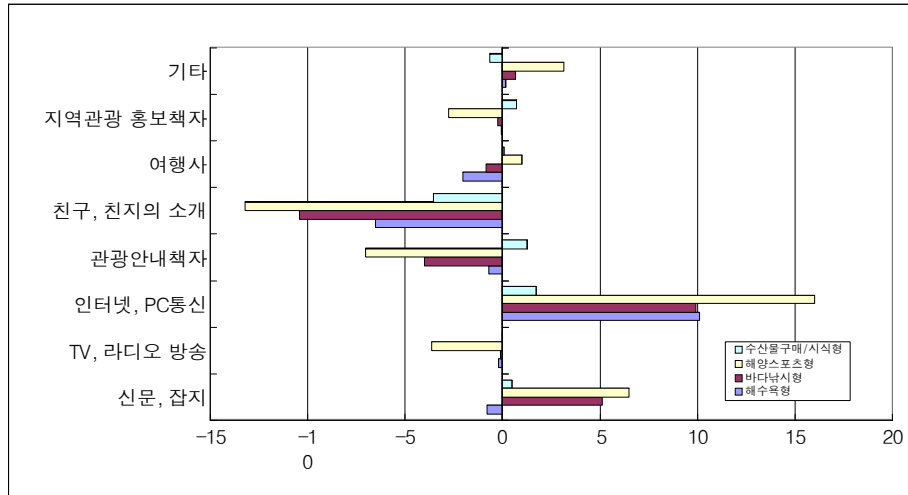
어촌경관휴양형과 어촌역사문화형의 경우에는 콘도미니엄이나 모텔의 이용빈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민박과 야영의 이용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어업/생태체험형의 경우에는 민박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7가지 어촌관광 활동유형에 따른 이용숙박시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체험이나 야외 활동 등의 동적인 관광형태에서는 민박이나 야영 등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경관휴양, 역사문화탐방 등의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급의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관광정보 수집방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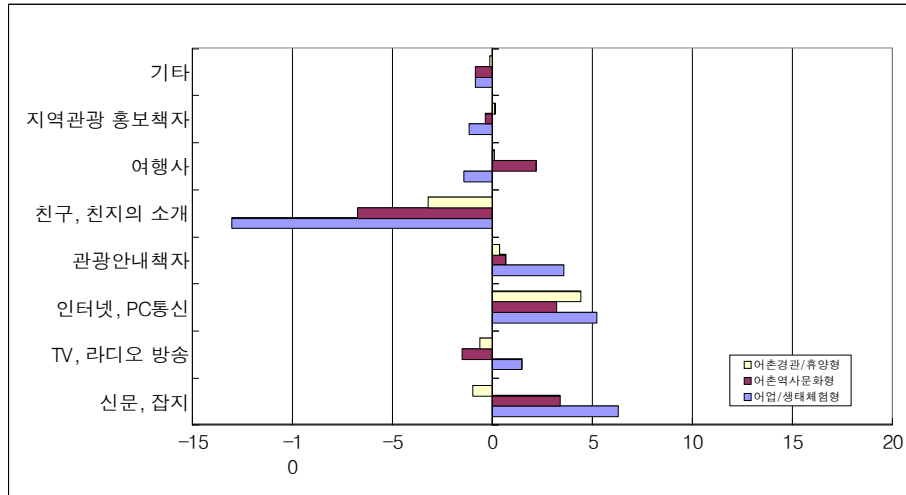
어촌관광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정보수집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3>, <그림 3-1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친구/친지의 소개가 낮게 나타나며 해양스포츠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PC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신문이나 잡지의 이용빈도도 높으나, 친지/친구의 소개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4〉 관광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 I



그리고 어촌경관휴양형과 어촌역사문화형, 어업/생태체험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친구/친지의 소개가 상대적으로 낮고 어업생태체험형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의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어촌역사문화형의 경우에는 이 두 항목과 더불어 여행사를 통한 관광 정보수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경관/휴양형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5〉 관광정보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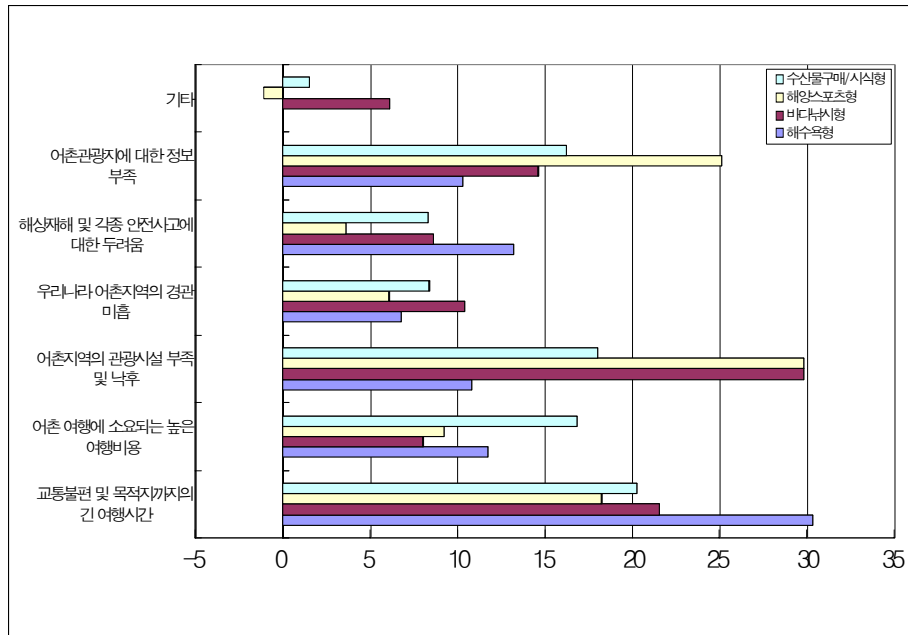
5) 어촌관광 활동시 불편사항의 분류

어촌관광 활동시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7가지 유형 모두에서 조사항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수욕형의 경우에는 교통불편 및 목적지까지의 긴 여행시간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바다낚시형의 경우에는 어촌지역의 관광시설 부족 및 낙후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형의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낙후와 함께 관광정보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수산물 구매/시식형의 경우에도 관광정보의 부족과 긴 여행시간, 시설 부족, 긴 여행비용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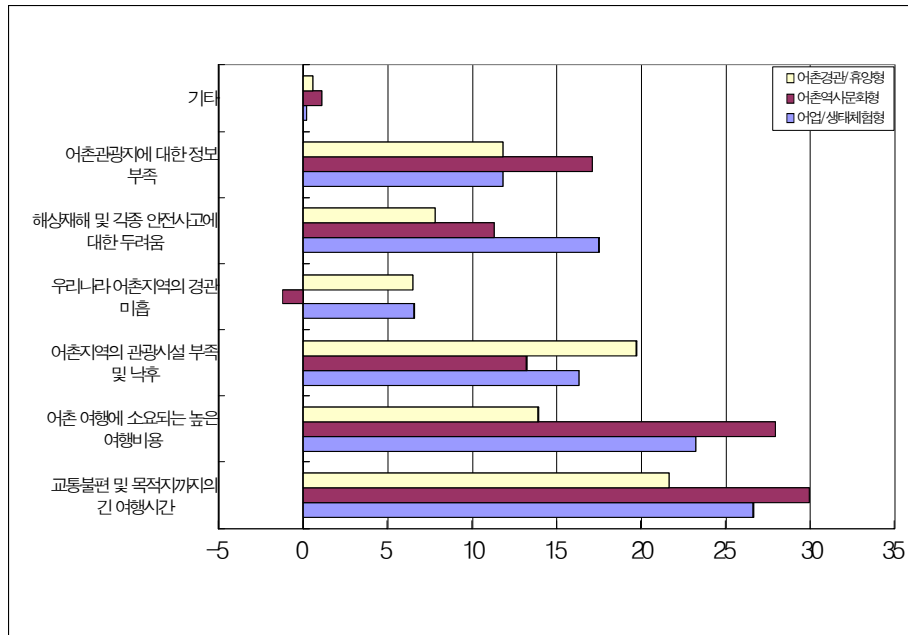
어촌관광활동시 불편사항의 구분 I



어촌경관/휴양형에서는 교통불편 및 목적지까지의 긴 여행시간과 관광시설의 낙후 및 정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어업/생태체험형은 이와 함께 해상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촌역사문화형에서는 어촌지역의 경관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역사탐방활동이 어촌의 과거모습 그대로를 체험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 어촌관광활동시 불편사항의 구분 II



6)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의 분류

어촌관광활동을 위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바다낚시형의 경우에는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의 확충 및 개선과 상하수도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의 정비 등 기반시설의 개선을 타 활동에 비해서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활동들의 개선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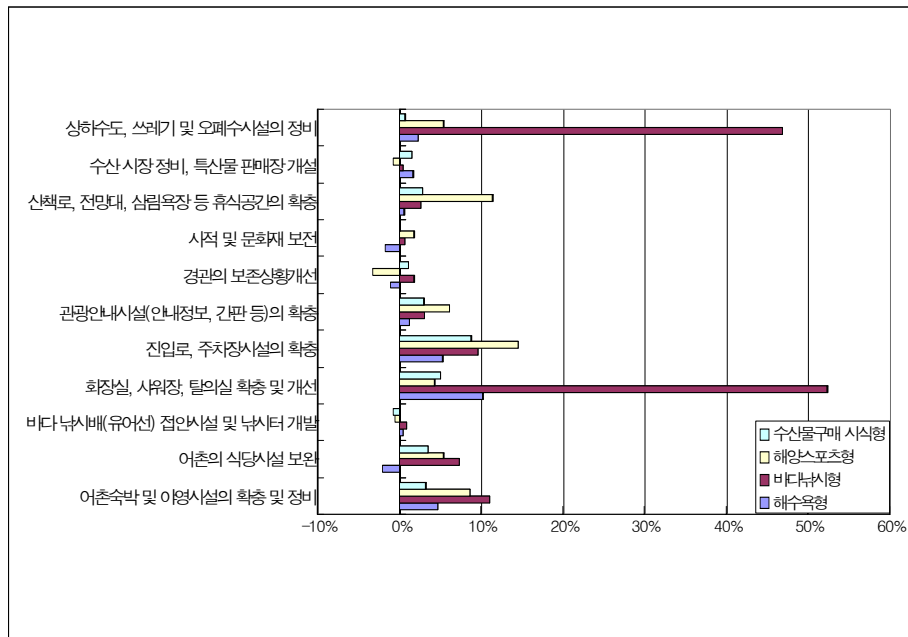
그리고 해양스포츠형의 경우에는 진입로, 주차장의 확충과 휴식공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어촌경관보전이나 수산물시장 정비 등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수욕형에서는 기반시설의 마련과 함께 숙박 및 야영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촌의 식당시설 보완이나 문화재 보전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 구매/시식형에서는 대상지까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진입로와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식당시설의 보완을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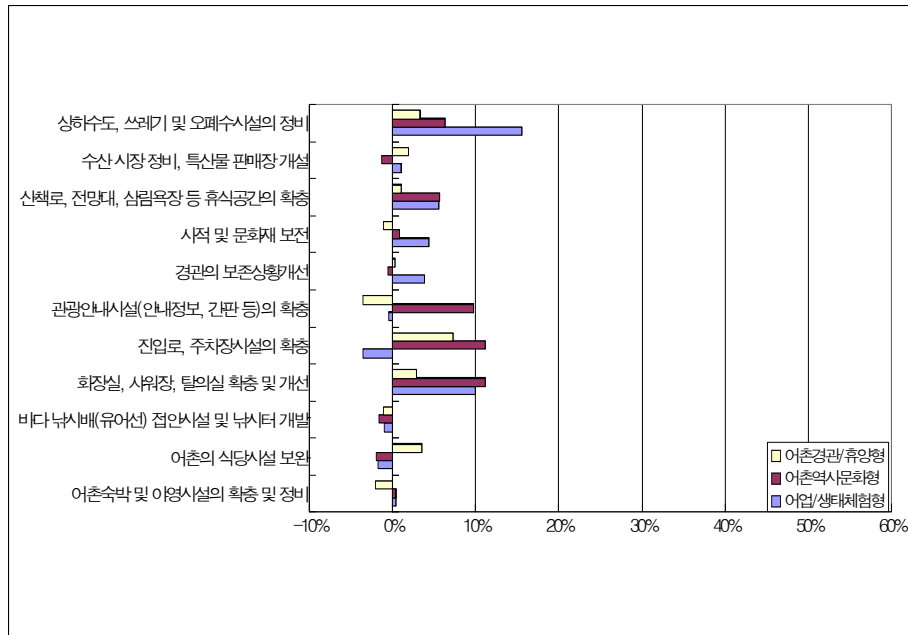
구하고 있다.

〈그림 3-18〉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의 구분 I



다음으로 어업/생태체험형은 환경정비와 함께 화장실, 샤워장 등의 기초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진입로나 주차장 시설의 필요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9〉 개선이 필요한 어촌관광시설의 구분 II



이는 어업/생태체험활동이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인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을 집적시키는 시설의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어촌경관/휴양형의 경우에는 어촌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숙박이나 야영시설, 관광안내시설의 요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촌역사문화형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촌관광활동 유형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어촌의 환경정비가 관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촌관광활동의 유형에 따른 특성으로는 7가지 활동 중 동적인 요소가 많은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어촌 숙박시설과 기반시설의 개선을 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촌관광활동이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요구되는 시설의 비중이 어촌경관/휴양이나 어촌역사/문화탐방, 어업/생태 체험에서 요구되는 시설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유형별 분석과 함께 다음 장에서는 어촌관광의 활동 현황과 각 유형별 문제점 및 시설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유형별 관리방안 및 개발방향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 4 장 유형별 관리 및 개발정책

이 장에서는 앞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평가를 하고 문제를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1. 해수욕장

1) 현황

해수욕장은 수영을 안전하게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을 의미하나, 실제로는 수영뿐만 아니라 윈드서핑, 비치스포츠, 경관감상 등 다양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국내 어촌관광 활동 중 절반 이상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수욕장은 어촌관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수욕장이 해양레저를 위한 최대의 기반자원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해안선을 따라 354개소의 해수욕장이²⁵⁾ 이어져 있어서 국민 휴양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시범해수욕장(지자체 관리) 38개소,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마을공동 또는 어촌계 관리) 316개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촌 중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42~50% 정도로²⁶⁾ 나타나고 있어 상당수의 어촌계가 해수욕과 관련된 관광 활동이 실제로 일어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 자료원에 따라 해수욕장의 총 숫자가 356개로 나오기도 하나 해양수산부의 통계가 354개로서 이를 일단 기준 자료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

26) 황기형·이승우 등(2000 11.)의 연구에서는 전체 어촌의 42.0%가, 농림부(1996 10.)의 연구에서는 49.1%가 해수욕장(백사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해역별 해수욕장 수 및 특징

구 분	해수욕장 수	특 징
서해안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이 완만하고 파도 등 기상여건이 양호하나 해수가 탁류인 것이 단점임 - 갯벌, 탐조지 등 주변에 연계가능한 생태관광 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낙조의 경관이 일품임
남해안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가 온화하고 주변의 경관이 뛰어남 -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은 소형 해수욕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
동해안	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가 맑고 양질의 모래가 장점이나,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아 해수욕 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임
제주도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가 맑고 기후가 따뜻하며 남국풍의 이국적 경관을 느낄 수 있음 - 특히 화산 해안으로 흑색해안이 많고 패사로 이루어진 해수욕장도 있음
합계	356	-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0 4., p. 12.

** 상기 표의 해수욕장 총 수는 본문의 내용과 다소 상이함.

해수욕장 이용객은 '98년의 40백만에서 '99년에 46백만, 2000년에 57백만으로 급증 추세에 있으며 그 중 강원, 부산, 충남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 해수욕장의 중요성에 비해 해수욕장 관련 법제 및 관리체제는 매우 부실한 편이다. 해수욕장의 시설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전문휴양업의 세부시설로서 기본적 요건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외의 해수욕장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도는 전무한 편이다.

해수욕장의 관리는 시·군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는 소수의 대형 시범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읍·면·동 등 기초행정단위와 지역사회, 민간기관에 의해 위탁 관리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부터 해수욕장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질오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모래 유실 등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편이다. 이러한 관리의 부실에 따라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오염에 의한 수질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림 4-1〉 백사장의 바닥이 드러난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호텔, 도로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안 근접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토사순환이 차단되어 모래 유실이 지속되고 있다²⁷⁾.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의 경우 민락동 매립지 조성 및 광안대교 건설로 인하여 주변환경 변화가 심각하다²⁸⁾.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의 경우²⁹⁾ 지난 '95년 충청남도가 해안 침식방지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1.5Km 길이의 옹벽을 쌓고 인근 방포 포구에 방파제를 축조한 뒤 백사장 모래가 유실되기 시작해 해가 갈수록 유실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해 수년전 해변 옹벽공사를 한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해수욕장은 현재 고운 모래밭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바위가 드러나 있다. 반면 백사장 인근의 포구에는 불필요한 모래가 쌓여 배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옹벽설

27) 해양수산부, 전국연안 침식방지 종합대책(정책자료), 2001 4., p. 3.

28) *Ibid.*

29) *Ibid.*

치 이후 조류변화로 해수욕장의 모래는 떠내려가는 대신 포구 앞바다에 모래가 쌓여 매년 포구모래를 퍼내 다시 해수욕장에 수백 트럭씩 쏟아 붓고 있다 한다.

안면도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도 모래 유실이 심하여 역시 10년 전부터 인근 포구로 떠내려간 모래를 해수욕 시즌에 맞추어 트럭으로 되퍼오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용두해변의 경우 2000년 석축공사 이후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했고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앞 해변도 수년전 3Km 길이의 옹벽이 설치된 뒤 모래 유실로 옛 모습을 잃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따라서 해수욕장의 인근에서 모래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해수욕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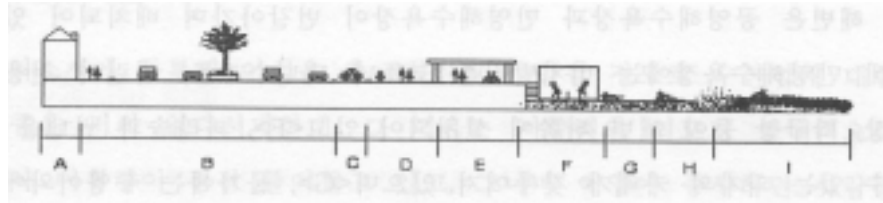
프랑스 니스 해변은³⁰⁾ 공영해수욕장과 민영해수욕장이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는데 민영해수욕장에는 비치발리볼 코트나 테니스코트, 어린이 전용풀장, 탁구장 등이 해변 뒤편에 설치되어 있고<F>, 파라솔과 썬텐을 할 수 있는 의자와 카페가 갖추어져 있으며<G>, 물가에는 수영이외에도 패러슈트나 제트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한 구역은 노란 부표(Buoy)로 표시되어 있다.

공영해수욕장은 <F>에서 <H>구간에 무료 샤워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30) 프랑스 니스에 관한 자료는 다음 문헌에서 참고함.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해양위터프런트의 개발 및 보전』, 1998 3., pp. 16 - 18.

〈그림 4-2〉

니스해변의 공간배치



〈그림 4-3〉

니스해변의 기능배치도

가로수가 잘 가꾸어진 중앙분리대가 있는 5Km길이 8차선의 해안도로(영국인의 산책로)				
주차장과 자전거 전용도로				
	그늘이 있는 벤치	유보도로	그늘이 있는 벤치	
무료샤워장	비치발리볼 코트 어린이 전용풀장 해변카페	무료샤워장	비치발리볼 코트 어린이 전용풀장 해변카페	무료샤워장
공영해변(무료)	파라솔과 의자가 있는 민영해변(유료)	공영해변(무료)	파라솔과 의자가 있는 민영해변(유료)	공영해변(무료)
수영하는 구역	제트스키, 패러글라이딩 전용이용구역	수영하는 구역	제트스키, 패러글라이딩 전용이용구역	수영하는 구역

니스해변에서는 카페, 파라솔과 선텐의자 등을 갖추고 요금을 받는 민영해변과 무료 샤워장 등이 갖추어진 공영해변이 번갈아 가며 펼쳐져 있어 같은 해변을 관광객의 요구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해변 무료 샤워장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해변 가로수와 주요 건물마다 조명을 설치하여 해변의 야경을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나무에 비추는 조명은 초록색, 도로에는 주황색, 해변에는 파란색 등으로 조명의 색깔을 달리함으로써 화려한 해안야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관(federal agency)인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ssociation; NOAA)에서 1997년도에 해수욕장과 관련하여 '해안환경 유지를 위한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에서는 청결하고 안전한 해변을 조성하기 위한 'Global Blue Flag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³¹⁾.

특히 미국은 2000년 10월에 Beaches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oastal Health Act(일명 Beach Act)를 제정하여 해수욕장 수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통보토록 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³²⁾. 또한 이를 위해 연간 3천만달러가 沿岸洲에게 교부되도록 하고 아울러 미환경청(EPA)의 예산을 해수욕장 사업을 위한 교부금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체 해수욕장 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일리노이주 : Swimming Pool and Bathing Beach Act
- 매사추세츠주 : An Act Creating Minimum Standard for Public Bathing Waters
- 캘리포니아주 : Beach Erosion Control(Program)
- 플로리다 주 : Beach and Shoreline Act
- 노스캐롤라이나 주 : Beach Preservation & Restoration Act

기타 호주,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도 해수욕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운영하고 있다.

3)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결과 평가³³⁾

이 연구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99년에 실시한 해수욕장 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수욕장 환경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해수욕장 수질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3개 권역(동해안, 서해안, 남해안)별로 평가하였으며 5년간의 비교를 위해 상위 10%를 A등급, 상위 20%를 B등급, 30%를 C등급, 35%를 D등급, 나머지 5%를 F등급으로 평가하였

31) 해양수산부, *Op. cit.*, 2000 4., p.13.

32) 해양수산개발원, 해수욕장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 연구(연구과제 제안서), pp. 2-3.

33) 환경운동연합, '99 전국 주요해수욕장 수질 및 주변환경성 조사 자료(44곳) 및 최근 5년간(95~99)의 수질 및 주변환경성 변화추이에 관한 분석 자료(29곳), 1999년 7월 6일

다.

(1) 서해안 해수욕장(조사지역 11곳)

A등급은 3년간 없으며, B등급이 4곳(36.3%), C등급이 2곳(18.1%), D등급이 3곳(27.2%), F등급이 2곳(27.2%)으로 나타나 '98년(A-0, B-1곳/8%, C-4곳/33%, D-6곳/50%, F-1곳/8%)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해안 지역별로 수질을 좌우하는 대규모 공단개발과 매립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변산 해수욕장의 경우 올해까지 3년간 D등급을 받아 국립공원 관리 공단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99년 조사에서 F등급은 인천 송도해수욕장과 영광의 가마미 해수욕장이다. 특히 인천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2년 연속 수질부문에서 F등급을 받아 인공해수욕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고 전년도 수질부분 30위였던 가마미는 더욱 악화돼 전체 44곳 중 43위로 추락하였다.

(2) 동해안 해수욕장(조사지역 13곳)

A등급이 2곳(15.3%), B등급이 3곳(23.0%), C등급이 5곳(38.5%), D등급이 3곳(23.0%)으로 '98년(A-4곳/31%, B-4곳/31%, C-3곳/23%, D-1곳/7%, F-1곳/7%)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8년 동해안 소재 해수욕장 중 유일한 F등급을 받은 일산해수욕장('97년 37위, '98년 42위, '99년 35위)의 경우 크게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9년 7월부터 간이정화시설을 가동하여 앞으로 수질에서 조금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98년 A등급인 대진과 낙산해수욕장이 C등급으로 수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는 기초환경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지자체의 지속적 환경개선의지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남해안 해수욕장(조사지역 20곳)

A등급이 2곳(10%), B등급이 2곳(10%), C등급이 6곳(30%), D등급이 10곳(50%)으로 '98년(A-없음, B-4곳/22%, C-8곳/45%, D-6곳/33%)에 비

해 수질이 좋아진 곳과 나빠진 곳이 공존해 '98년과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울포와 상주가 A등급으로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98년 B등급이었던 부산 송정 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지역의 해수욕장 수질이 D등급으로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해수욕장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 같이 각종 해수욕장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망된다.

4) 정책 방향

현재 해수욕장의 관리를 위하여 2000년 초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수면 업무의 일환으로서만 취급되고 있고 해양관광 기반자원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관리와 비치환경의 보존, 백사장의 유실 대책 수립 및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동은 대부분이 비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법제도의 관리체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법제도 및 관리체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당수의 해수욕장은 심각한 모래 유실과 인근의 수질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방파제 건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토목 공사로 인한 모래유실과 해저 모래 채취 등은 백사장의 유실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 인근에서의 해안시설 공사시에는 반드시 인근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는 해수욕장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은 대부분 시즌이 되면 관리청이 어촌계 등에 일시 임대를 하게 된다. 어촌계 등에서는 직영을 하거나 재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지인에게 비싸게 임대되어 이들은 다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관광객들

에게 바가지를 씌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 관행에 대하여도 임대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운영이 정해진 요금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임대자들에게는 재임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가능하면 해수욕장을 관리를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여 관리운영 사업이 지역 어민들의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애항심과 함께 상당한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해수욕장 관련 시설 수입의 예

지역	주관광활동	수익원	비고
강릉시 사천진리	해수욕장, 수산물식사형	횃집, 일반식당, 노래방, 당구장, 잡화점, 민박, 유어선, 텐트차양, 샤워장, 주차장, 야영장	해수욕장시설운영:매점] (3),주차장(2),야영장(5), 샤워장(4),차양시설(5)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해수욕, 경관감상, 휴양형	횃집(150), 매점(260), 여관(50), 민박(10), 놀이시설(15), 입장료(120), 샤워장(20), 유어선(5)	

* 자료 : 민상기 등,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5 12.

** ()안은 연간소득(백만원)

현재 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법적 시설 기준은 있으나 이들 시설도 낙후된 경우가 많아 고급화할 필요가 있으며 간이 미지정 해수욕장의 경우도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 등 해양스포츠객과 해수욕객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활동간 수역을 철저히 구분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에서 어민들이 민박, 세면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박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바가지 요금 사례 이외에도 주로 해수욕 철에만 사용되므로 시설관리가 불충분하고 노후화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수기 한 철 영업이 아니라 다계절 영업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들을 적절히 관리·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기의 이벤트 개최 등 관광테마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아울러 바다낚시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의 도입으로 시설의 회전율과 이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 관리는 앞에서 언급된 대로 기본법제도가 미비하므로 해수욕장에 관한 법을 만들어 정비계획의 수립, 환경영향평가, 수질관리, 시설운영·관리 등을 규정하여 해수욕장이 어촌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동시에 중요한 해양관광 인프라로서 잘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바다낚시형

1) 현황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는 사계절을 통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바다낚시는 해수욕에 이어 가장 활발한 해양레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1997년도 해양수산부의 발표자료³⁴⁾에 의하면 전국에는 2,825 척의 낚시어선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118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477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01년 10월에는 그 척수가 3,672 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어촌에서 바다낚시가 급속히 증가하여 어업외 소득을 올리는 주요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다낚시는 어자원이 있으면 어느 해역에서나 즐길 수 있으나, 바다낚시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춘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 바다낚시터의 자연조건은 첫째, 바다낚시의 대상이 되는 어족자원이 특별히 풍부한 지역일 것, 둘째, 바다낚시객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파도나 풍속이 세지 않은 지역일 것, 셋째, 해면의 어자원 서식지까지 접근하기 손쉬운 지형이거나 해면으로의 돌출부가 있을 것 등이다.

바다낚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갯바위낚시, 유어선낚시, 방파제·잔교 낚시 등이 있으나 항상 안전사고나 파도·파랑의 위험에 직면에 있어 활동시 주의가 요망된다. 다만 유어선 낚시의 경우는 안전성의 확보, 보험에 의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등 다소의 제도적 장치가

34) 해양수산부보도자료, '97 낚시어선법 운영현황 보고(자료), 1998.

낙시어선법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다른 경우는 그러한 규제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업인 소득증가 및 레저욕구 증대로 주말 또는 피서철에 어선을 이용한 바다낙시를 즐기려는 낙시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낙시객의 안전과 어민의 부업소득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제정

-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8호

□ 목적

- 낙시어선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도모
 - 낙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 배제
- 낙시어선업의 신고
- 보고사항에 대한 지도
- 설비기준
 -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승선정원
 -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 안전운행의무
- 사고발생의 신고
- 보험가입 등

이와 같이 낙시어선법을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유어선 운영은 어한기를 이용한 어업외 부업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거 한 때 정부에서는 어업인 소득원 개발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바다낙시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다는 물론 민물낙시에도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시행할만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다낚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상업적 어업과 자원에 대한 갈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망되기도 한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구미 선진국에서는 바다낚시(recreational sea fishing)가 상업어업(commercial fishing)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성행하여 자원에 대한 상호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는 후술하는 외국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칙을 정하여 유어자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2) 국내외 사례

(1) 호주 빅토리아 주의 사례³⁵⁾

관광낚시업이 1996년에 빅토리아주 경제에 12억 65백만 호주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하였으며 관련산업 및 용역제공으로 27,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빅토리아주의 낚시활동에 소요된 직접경비 10억 37백만불이 포함된 것으로 어획 kg당 200불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일본 사례³⁶⁾

일본 시바현의 대원정 지구에서는 일찌기 1955년대부터 어협에서 어장의 분산이나 겸업수입을 도모하는 면에서 유어안내업을 장려했다. 유어의 어장조건이나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특히 스포츠 신문에 소개되고 나서 낚치·참돔·벤자리 등의 고급어 유어의 메카로서 많은 유어자가 이용하여 1985년경에는 유어안내업과 맞추어 민박을 운영하는 어업자가 증가했다. 낚시·연승, 자망 등을 운영하는 어업자는 소형선조합에 가입해 있는데 서서히 유어안내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 전업 유어안내업자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어장의 보전이나 전업적 어업자와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형선조합에 유어부회를 만들고, 1983년에는 소형선조합규약 중에서 유어규정과 내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약 90척의 소형선 대부분이 유어안내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12 경영체가 전업적으로 유어안내를 하고 약 30 경영체가 겸업적으로 유어안내를 운영하고 있다. 유어안내의 추정수입은 전체가 4~5억엔, 평균

35) <http://www.dce.vic.gov.au/fishing/rec/econvalu.htm>

36) 제주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1 9., p. 80.

1,200만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어가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 (단, 전업적 유어선어업자의 수입은 이것을 넘는 사람도 많다).

대원정 소형선조합의 유어규정과 그 내규에 ① 경영체당의 복수 유어 안내이용의 제한 ② 외부자본의 도입 금지 ③ 유어 제한구역의 설정 (금지구역 2군데, 어업전업어선 조업장소로부터의 거리 제한) ④ 유어시간의 제한과 휴어일의 설정 ⑤ 유어요금의 통일 ⑥ 판매수수료에 대신한 유어 요금의 4%의 어협에의 납입 등을 규정하여 어장이용의 조정, 전업어업자와 유어안내업자의 마찰을 해소시키고 있다. 결국 어업자원의 보전, 어장이용이나 다른 어업자와의 마찰의 해소가 유어안내업을 계속적으로 진흥케하는 전제 조건이며, 가능하면 이와 같은 규약의 제정에 의해 어협이 주도하는 겸업적인 유어안내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원정의 유어안내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도 응용가능한 부분이 많다.

상기의 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유어 제한구역의 설정 (금지구역 2군데, 어업전업어선 조업장소로부터의 거리의 제한), 유어시간의 제한과 휴어일의 설정 등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바다낚시를 위한 전용지역, 시기,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

어업의 소득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바다낚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선을 그대로 바다낚시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즉 안락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좌대, 화장실, 휴게실 등을 갖춘 전용선의 활용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요트처럼 안락성을 갖춘 낚시 전용선을 건조하여 상당한 수입의 거양으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기도의 유어선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경기도 바다낚시선 건조사업 사례³⁷⁾

① 현 황

경기도 내 바다낚시 이용객은 '99년 5,661명에서 2000년에는 13,019명 ('99년대비 130% 증가)로 급격히 늘어나서 이들을 어촌으로 유치함으로

37) 경기도, 해양수산보고 자료, 2000.

서 어업인들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② 바다낚시선 건조실적

지난 2년간 지원규모는 3~10톤(FRP) 규모로 건조실적은 30척, 233톤(안산16척, 시흥1척, 화성13척)으로서 1999년에 9척, 43톤(안산6척, 화성3척), 2000년에 21척, 190톤(안산10척, 시흥1척, 화성10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사업에는 총 4,622백만원(도비874, 시군비874, 자담2,874)이 투입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낚시어선 1척당 월 300만원의 수입으로 연간 2,700만원의 어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며 최고소득 6,280만원까지 올린 어업인이 있다고 한다.

③ 2001 사업계획

이러한 사업 실적에 힘입어 2001년에도 사업량 15척, 154톤(20톤급 1척, 10톤급 14척)에 사업비 3,280백만원(도비656, 시군비656, 자담1,968)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다. 특히 앞으로 추진방향은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 할 수 있는 수준의 「내부시설 고급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신형 항해장비, 조리시설, 휴식공간, 화장실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

(4) 고급민박시설을 도입한 바다낚시형 제주 고산어촌³⁸⁾

고산어촌계는 제주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다금바리, 참돔, 갈치, 전복, 소라 등 고급어패류가 풍부하며 주변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어촌계 앞 300m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차귀도는 섬 주변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경을 즐기면서 배낚시, 스쿠버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수월봉, 당산봉 등이 바다와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다우며, 특히 수월봉에서 바라 본 “낙조”는 장관을 이룬다.

38) 해양수산부, 『어촌종합 개발사업 우수사례집』, 1999 12., pp. 12 ~14.

〈그림 4-4〉

고산어촌계와 민박 전경



고산어촌계는 바다낚시로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숙박 시설이 없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저녁이면 서귀포시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실정이던 고산어촌계는 '96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총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34곳에 해안가로등을 설치하고 콘도형 민박시설 2층 건물 6동과 관광낚시선 1척을 지원받았으며 낚시선의 원활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 170m를 시설하였다. 과거 2 - 3척에 불과하던 유어선은 현재 40여척에 달하며 현재는 유어선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선주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원된 고산어촌계의 민박시설은 전국 최초로 규모화되고 고급화된 콘도형 숙박시설이다. 이 시설은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림 4-5〉

고산어촌계 민박 전경과 내부 구조



민박시설은 바다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뛰어나며 6개동 가운데에 정원을 꾸며 민박시설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이와 같은 민박시설을 중심으로 고산어촌계를 체류형 어촌관광지로 변모시킴으로써 낚시어선을 운영하거나 지역특산물(반건조 오징어 및 한치)을 판매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산물 판매시설과 여관 및 민박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의해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고산어촌계는 민박시설과 같은 소득원 시설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어 유어선, 어업체험, 해양 레저 스포츠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관광비수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중 촬영, 다이빙 대회, 전국 낚시대회 등과 같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어촌민박 알선 기간을 정해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행정기관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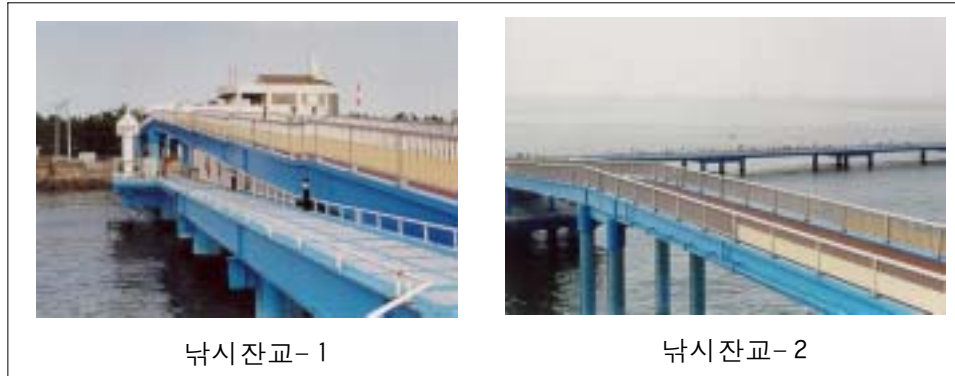
3) 정책 방향

유어선은 한번 낚시객을 싣고 나가면 일정 해역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바다낚시어선을 타고 나가 바다에 돌출한 갯바위나 도서 주변 갯바위에 낚시객을 내려 줄 경우에는 안전상 낚시배가 대기하여야 하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내려 주고 다시 돌아왔다가 약속된 시간에 다시 태우러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경우 중간에 폭풍이나 해일 등으로 낚시객이 사고가 생기면 도와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어촌을 찾는 레저 잠수객들이 대부분 전용선박이 없으므로 잠수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잠수객들이 잠수사이트에서 작살어업이나 패류·해조류 채취 등 유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녀 등 어업인들이 불법 행위라고 신고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잠수인들은 자기들도 유어선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당수 잠수인들이 잠수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어 행위를 하므로 어업인들이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잠수객들이 원하는 법개정이 되려면 잠수 모럴의 준수로 잠수 활동 이외에는 유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어촌에서의 갯바위 낚시 등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매년 수백 명이 바다낚시를 하다가 실종 내지는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객들도 주로 성인 남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한 바다낚시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림4-6>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낚시 잔교를 건립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낚시 잔교는 바다 위에서 산보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고정 시설물이다. 따라서 어촌의 관광기반시설로서 낚시 잔교 등의 새롭고 안전한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림 4-6〉

일본 이찌하라시의 낚시잔교³⁹⁾

또한 바다낚시형에서는 앞의 설문조사(<그림 3-18> 참조)에서와 같이 상하수도, 쓰레기 등 환경정비와 아울러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 시설의 정비가 요망된다. 아울러 바다 낚시는 민박 등 숙박시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류형 활동이므로 앞에서 소개된 제주 고산 지구와 같이 고급형 숙박 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바다낚시는 자원을 놓고 상업적 어업과 경합을 벌일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어선이 전체 자원의 약 50%를 포획하므로 상호 간 경합이 심하여 갈등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요소가 심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유어자의 입어가 많아짐에 따라 순수어업인들과 자원을 둘러싼 경합이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특히 일부 인공어초 등 자원을 조성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경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조성세에 해당하는 입어료를 받아 이를 자원방류, 인공어초 투하 등과 같은 어업자원 조성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된 일본의 대원정의 사례와 같이 지역적인 입어 규칙을 설정하여 상호간에 갈등없이 입어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자원에 대한 경합의 정도나 바다낚시 활동의 강도 증대 여부에 따라 보다 상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9) 경기도,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2001 5, p. 3-64.

3. 해양스포츠형

1) 현황

반도국가로서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자연조건을 갖춘 비교적 많은 해양 스포츠 공간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의 현황을 요트, 윈드서핑, 제레 작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트공간⁴⁰⁾

요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풍속, 수심, 수온 등에 일정한 조건이 요구된다. 요트 중에는 순수하게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세일링 요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트장 개발에는 5~10m/초 정도의 풍속이 요구된다. 단, 우리 나라의 하계에는 무풍기간이 있어서 요트장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형 요트의 해면 정박을 위해서는 7m이상의 수심이 요구되나 소형인 경우는 대개 우리나라의 어항 정도이면 수용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에는 해역별로 요트장 개발 여건에 차이가 있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서 요트장을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해안은 지형이 단조롭고 수온이 낮아 요트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다도해 지형으로 이루어진 남해안은 지형적 조건이나 기후로 보아 요트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항로구역에 근접하여 수산 양식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요트나 일반 유선의 운영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요트인구는 등록 선수만 1,500여명 정도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먼저 아직 소득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으며 청소년기에 선박에 대한 관련활동도 거의 없으므로 어른이 뒤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더욱이 전량 수입되는 요트에 고율의 관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요트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요트 활동을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행위로 보는 사

40)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0 4., p.15 ~ 16.

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요트를 즐기는 행위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하나로서 여가를 즐기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요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요트, 모터보트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소형 덩기요트나 모터보트 등이 많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모터보트와 더불어 늘어나면서 소형 덩기요트가 늘면서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득이 2만불 전후가 되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7개의 해안 요트장과 2개의 내수면 요트장이 개발되어 있다. 이중 해면 정박시설을 갖춘 곳은 부산 수영만 요트장과 충무 마리나 리조트 두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형 세일링 요트(dinghy급)를 위한 육상 보관시설만을 갖추고 있어 향후 수요증가에 따른 보안시설의 중대로 할 때 요망된다.

(2) 윈드서핑⁴¹⁾

윈드서핑은 미풍에서 강풍까지 어떠한 풍속에서도 즐길 수 있으므로 특별한 해상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 초보자가 많은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바람이 약한 만이나 폐쇄형 해역이 윈드서핑에 보다 적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윈드서핑의 최적지는 제주도 섭지코지 부근의 신양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윈드서핑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충남의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태안반도 일대, 광주 인근의 홀통해수욕장, 거제도 지세포 지역, 부산 태종대 지역, 울산의 진해해수욕장, 강원도의 속초해수욕장, 제주도의 이호해수욕장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윈드서핑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하계 휴가철에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 강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윈드서핑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41) 해양수산부, *Op. cit.*, pp. 16 ~17.

(3) 레저다이빙⁴²⁾

레저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공간은 조류가 심하지 않아야 하고, 기온 및 해수의 온도가 높아야 하며, 해저에 암반, 수초, 해양생물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해수가 투명하고 맑아 해저에서의 시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해중생물이 풍부하여 다이빙 활동을 즐기기에는 적합한 연안공간에 거의 대부분 마을어장 등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레저다이빙 활동은 연안의 수산활동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레저다이빙 공간의 확보는 어촌계와의 계약에 의해, 특정 해양생물의 채취를 금하고 어촌계에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잠수유어장을 설정하여 입어료를 받고 어장을 공개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다이빙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충남의 태안반도와 안면도 지역, 전북의 고군산군도, 강원도 낙산, 경북의 포항, 청하, 흥해, 제주도의 범섬, 문섬, 섯섬, 추자도 등 해저 경관이 뛰어나고 투명도가 높은 바다지역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해양다이빙 인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C 카드’ 소지자는 약 10만명이며 상시적인 활동인구는 약 5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수상레저 안전법

정부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 등의 소형레저기구를 즐기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고 질서있고 안전한 수상레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의 제정·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운행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사업자의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레저사업자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한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42) 해양수산부, *Op. cit.*, pp. 17 ~18.

□ 제정

-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0호로 제정

□ 목적

-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기구조정자에 대한 면허제도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 의무
 - 수상레저 사업자의 등록제도 등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주요 내용

- 기구조종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안전의 준수를 위해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
-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2) 국내외 사례⁴³⁾

(1) 스쿠버 다이빙(일본 나가타현 오기쵸)

오기쵸에서는 지역활성화 대책으로 스쿠버 다이빙 시설을 정비하였는데 다이빙이 금지된 곳에서의 어획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잠수개방지구를 설정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PR활동을 전개한 결과 불법어획이 없어지고 어업과 다이빙의 공존이 실현되고 있다. 또한 어업협동조합에서는 다이빙을 하려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어업 체험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어업협동조합 자영 다이빙 투어(일본 오키나와현 이헤야촌)

이헤야촌 어업협동조합에서는 7명의 어협 직원이 다이빙 지도강사의 자격을 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중심으로 한 체재형 체험투어 「바다의

43)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안내서』, 1999 3, p.49

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자재를 빌려주는 다이빙 스킵도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3) 플레저 보트(일본 구마모토현 마츠시마초)

아츠시마초 히아이섬에서는 1996년 히아이 어항에 피셔리나⁴⁴⁾를 정비하여 회원제 마리나를 오픈하였다. 플레저 보트의 정박외에 보트 임대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 관찰과 다이빙 지점으로 가는 출발기지로도 이용되어 보트이용자 이외의 방문자도 증가하여 앞으로 이러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카누나 카약 등의 선박 체험사업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3) 정책 방향

우리 나라의 요트나 윈드서핑, 레저잠수 등 해양스포츠 인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직 소득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으며 선박에 대한 관련활동도 청소년기에 거의 없으므로 어른이 되어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더우기 전량 수입되는 요트 등 해양스포츠 장비에는 고율의 관세 및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요트 등 해양스포츠 활동을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행위로 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특히 고가의 요트를 구입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특별관리가 되므로 이러한 것이 해양스포츠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등의 감면과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완화가 요망된다.

남해안 등 해양스포츠 가능 지역에는 항로구역에 근접하여 수산 양식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해양스포츠를 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상충을 없애기 위해 해역 내에 전용공간을 설정하여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간 상충이 심한 지역은 수산업, 해양스포츠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수역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이러한 전용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44) 일본에서 어항구역을 어항지구와 마리나 지구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어항을 지칭함.

또한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요트 등의 전용 이용 공간은 연안에 인접한 평수 구역⁴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수 구역의 경우는 중간 중간에 불연속 구간이 생겨 원거리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수 구역만을 항해하면 부산-거제간을 요트로 항해할 수 없다고 한다. 선박안전법에 의거 5해리를 넘어 운항할 시에는 관계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⁴⁶⁾. 또한 야간 운항에도 제약이 따른다⁴⁷⁾. 따라서 앞으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항행 구역과 운항시간에 대한 융통성이 폭넓게 주어지고 관련 제약도 풀려야 할 것이다.

윈드서핑, 잠수 등의 경우에는 전용훈련장이 마련되지 못하여 대부분 사설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잠수의 경우 불법 건조 혹은 개조된 육상 잠수장에서 훈련을 한 후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실제 잠수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전용의 해양스포츠 훈련센터의 건립이 요망된다. 일본은 해상국립공원 내의 해저경관이 뛰어난 곳에 해양공원을 지정하고 여기에 잠수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잠수훈련시설 설치 및 훈련 해역 지정, 수중전망탑, 해저투시선 등의 운영을 하고 있다⁴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의 설치와 관련시설의 도입이 요망된다.

아울러 어촌계와 해양스포츠와(특히 레저잠수)는 갈등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에서 직접 잠수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장비 대여, 숙박 시설 제공 등을 통하여 어촌계의 수익사업화 하면서 갈등의 소지도 줄여나가는 방안이 요망된다. 일본의 어촌계에서는 일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현재 관광다이빙 내도객이 연간 60만명에 달한다는 제주도에서도 아래와 같이 어촌계의 수역에 잠수유어장을 지정하는 제도를⁴⁹⁾ 도입하여 이러한 갈등의 극소화와 아울러 어촌계 소득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5) 호수·하천 및 항내의수역(항만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 있어서는 그 구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46) 수상레저안전법 제 15조, 시행령 제 12조.

47) 동법 제 17 조.

48) 해양수산부, *Op. cit.*, pp. 158 ~ 159.

49) 한국개발연구원, “해양관광을 통한 어업외 소득의 증대”, 『Vision 2011 Project』 : 농수산 발전반 1차 토론회의 자료, 2001 7, pp. 8-9.

□ 유어 행위 내용

- 유어장의 지정요건 - 마을어장의 면적 1/2 범위 안에서 지정
- 마을어업권자의 권리를 인정, 어촌계의 신청주의에 의함.
-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 행위 -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지 채포 가능
⇒ 어류 채포 제한종 : 특산당(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 등)
- 입장료 징수 - 1인 1일 50,000원 이내 승인 받은 금액
- 유어장 이용의 행위제한 등
 - 어린고기 포획 금지
 - 포획·채취의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의 준수(수산자원보호령 규정의 준수)
- 유어장 관리선 지정 이용 등

□ 유어장 지정 현황

- 북제주군 애월어촌계 - 지정 : 2001 7. 3. 개장 : 2001 7. 17(예정)
- 남제주군 위미1리어촌계 - 지정 : 2001 7. 13. 개장 : 2001 8. 26(예정)

□ 부대시설 지원

- 부대시설 내용 : 화장실, 휴게실 및 탈의실, 샤워시설, 안내간판 등
- 지원사업비 : 1개 지구당 - 10,000천원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잠수 유어장제도의 전국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업인들의 어장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동시에 잠수 유어자의 만족도 함께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양스포츠 부문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항지구에서의 유선과 어선의 공간적인 상충이다. 즉 어선의 전용공간인 어항에서 유선이 늘어나면서 어항공간을 이용하면서 상호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으나 최근 들어 상당히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항 구역 내에 유선 전용 구역을 만들어 주고 통행도 상호 분리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유

선이 거의 어선 수에 육박하여 유선의 어항이용이 많은 일본에서도 이미 「피셔리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어항 구역 분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⁵⁰⁾. 즉 일본에서는 「어항이용조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1987년부터 어선과 유람선 등의 분리수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상어항은 유람선 등의 이용 척수가 40척 이상에 달하는 어항으로서 사업의 실시에 의해 당 어항 및 주변 어항의 어업생산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치가 잡힐 만큼 유람선이나 유선의 숫자가 많지 않으나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려는 다목적 관광어항 제도의 도입시에는 이러한 구역 분리제도가 확실히 이루어져 쾌적한 어항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산양식장 등 수산업 공간이 연안의 주요 수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요트, 윈드서핑 등의 활동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산양식장의 경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시설하거나 불법시설을 하여 항로를 막는 경우가 많아 해양스포츠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수역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역공간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산, 레저 등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4. 생태체험형(갯벌, 철새도래지, 어업체험 등)

1) 현황⁵¹⁾

과거 ‘보는 관광’ 중심에서 최근에는 오감을 이용한 ‘체험관광’ 중심으로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때문지 않은 천연의 자연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생태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연안지역은 해양생물 체험, 조개채취, 갯벌체험, 진흙 마사지, 낙조감상, 자연생태계에 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

50)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1999 12., p. 84.

51) 해양수산부, *Op. cit.*, pp. 19 - 20.

공하면서 점차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표 4-3〉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 현황

연번	습지지역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종수	습지유형	물새의 총개체수
1	새만금	16종	해안갯벌	126,278
2	금강 하구	16종	해안갯벌	55,603
3	낙동강 하구	13종	해안갯벌	28,162
4	아산만	12종	해안갯벌	75,880
5	남양만	12종	해안갯벌	29,613
6	순천만	10종	해안갯벌	35,261
7	강화도	10종	해안갯벌	24,037
8	영종도 남단	8종	해안갯벌	24,966
9	목포 압해도	8종	해안갯벌	26,660
10	함평만	7종	해안갯벌	10,573
11	서산 간척지 A, B지구	5종	매립지 호수	48,379
12	금강	5종	하구둑 주변	47,786
13	해남만	5종	해안갯벌	13,187
14	무안 매안	5종	해안갯벌	8,102
15	영암 금호호	4종	매립지 호수	123,347
16	남해	4종	갯벌과 바다	16,361
17	천수만	4종	해안갯벌	11,485
18	영광백수	4종	해안갯벌	5,233
19	광양 갈사만	4종	해안갯벌	3,922
20	영종도 북단	3종	해안갯벌	2,031

* 자료 : 해양수산부, *Op. cit.*, 2000 4., p. 20.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2.8%에 해당하는 2,815.4km²에 이르며, 우리 나라 서해안은 북미 동부해안, 북해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갯벌을 이용해 체험관광 상품개

발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의 제부도, 대부도 지역, 강화도 남부해안, 충남 아산만, 천수만, 태안지역, 금강하구, 전북 줄포만 지역, 전남 무안·신안지역, 순천만 지역, 경남 진주만 지역 등 서해안과 남해안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촌의 45%~48% 지역에 갯벌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⁵²⁾ 바 있으며 특히 갯벌자원이 풍부한 서남해안의 어촌의 경우에서 이러한 갯벌을 이용한 어촌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황기형·이승우 등(2000 11.)의 연구에서는 전체 어촌의 47.7%가, 농림부(1996 10.)의 연구에서는 45.0%가 해수욕장(백사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주요갯벌 지구별 철새도래 현황

지역	도요·물떼새 및 희귀조류	최대 개체 수	전세계 개체수	람사습지 해당 1% 개체수	비고
한강 하구	재두루미 (천연203호)	385	*3,000	30	· 12~3월에 2만마리이상 도래함
강화도	왕눈물떼새	900	**27,000	270	
	개펄	580	***25,000	250	
	민물도요	1,830	**130,000	1,300	
	알락꼬리마도요	445	*21,000	210	
	저어새(천연205호)	41	*650	7	
영종도	왕눈물떼새	870	**27,000	270	
	흰물떼새	1,201	**25,000	250	
	민물도요	6,707	**130,000	1,300	
아산만	민물도요	2,821	**130,000	1,300	· 1~4월, 11~12월에 2만 마리이상 도래함
	알락꼬리마도요	1,540	*21,000	210	
	청다리도요	488	***40,000	400	
	뚝부리도요	944	***36,000	360	
남양만	민물도요	8,000	**130,000	1,300	
	붉은어깨도요	5,100	*330,000	3,300	
	노랑부리백로(천연361호)	47	*2,500	25	
대호	가창오리(보호조류)	25,000	*105,000	1,050	
천수만	민물도요	2,097	**130,000	1,300	· 3월, 10~12월에 개체수 5만이상 도래함
	흑꼬리도요	3,935	**162,000	1,620	
	가창오리(보호조류)	110,003	*105,000	1,050	
금강 하구	민물도요	7,128	**130,000	1,300	· 11~3월에 2만마리이상 도래함
	검은머리물떼새(천연326호)	1,169	*3,000	30	
	왕눈물떼새	450	**27,000	270	
만경강	검은머리갈매기	410	*10,000	100	· 1~4월, 10~11월에 2만 마리이상 도래함
	붉은어깨도요	17,767	*330,000	3,300	
	재두루미(천연203호)	130	*3,000	30	
동진강	민물도요	8,784	**130,000	1,300	· 10~11월, 1~2월에 개 체수 2만이상 도래함
	알락꼬리마도요	726	*21,000	210	
	흰물떼새	586	**25,000	250	
낙동강 하구	검은머리갈매기	176	*10,000	100	· 11~2월에 개체수 2만 마리이상 도래함
	민물도요	6,717	**130,000	1,300	

* 자료 : 국민총리실·해양수산부, 「1999년도 해양환경 업무편람」, 1999 4., p. 141.

우리 나라의 갯벌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고 세계적인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경우가 많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생태자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북쪽으로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중국 황동지나해를 통하여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로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많은 철새들의 경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철새의 날씬한 몸매, 아름다운 털 빛깔, 고운 목소리 등은 다른 생물에게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며, 이를 감상하기 위한 탐조(探鳥) 활동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매우 중요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탐조를 위해 철새도래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갯벌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와 세계적 희귀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자원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 등으로 세계적으로 600여마리 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희귀조들이 한반도를 통하여 이동하고 있다. 강화도 일대 갯벌에는 전세계 개체수 1천여 마리의 10%에 해당하는 노랑부리백로가 다수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기도 영흥도에서는 전세계 개체수가 2천여 마리에 불과한 검은머리 물떼새가 다수 발견되었다. 서산 천수만 지역에서는 세계적 희귀조인 황새가 발견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무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바다에서의 어업체험도 생태체험의 하나인데 바다에 그물을 투망하여 이를 육지쪽으로 끌어 올려 고기를 잡는 지인망 어업, 남해, 사천군 등에서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죽방염 체험어업, 야간의 오징어 연승 체험 등과 양식장을 낚시객들에게 개방하는 유료낚시터(혹은 ‘유어장’이라고도 함) 등도 생태체험어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울산 앞바다와 제주도 남원 인근 해역, 이호해수욕장 전면 해역에서는 고래가 회유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고래잡이가 성했던 울산 등의 지역에서는 고래 체험관광도 준비중이다. 해외에서는 고래관광(whale watching)이 중요한 관광 상품의 하나이다.

어촌에서는 어장을 체험하도록 유어객들에게 개방하는 유어장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에 입법 조치되어 <표 4-5>과 같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표 4-5〉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 지정 현황(2000년말 현재)

시 도	개 소	면적(ha)
전 국	26	1,049.95
강원도	1	10.75
전남도	15	647.70
경남도	9	331.04
제주도	1	60.43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Op. cit.*, p. 5.에서 인용

유료낚시터와 체험어장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마을어업, 협동어업 등과 관련되며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히 이 사업들은 바다낚시선을 타고 나가 자연의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어선업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고 연안선에 인접하여 조성된 인위적인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 유료낚시터의 지정 등

○ 근거 및 주요 내용

-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어업권자는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 받아 운영 가능(수산업법 제55조 1항)
- 제1항에 관한 지정 및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유료낚시터의 지정 등(수산업법시행령 제47조)
 - 낚시터의 관리 등(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
 -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낚시 등에 필요한 장비 확보
 - ※ 연 1회 이상 수산종묘의 방류 등 자원조성
 - ※ 기타 낚시터 등의 이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 유어자에 대한 규제

○ 낚시행위 등의 제한 또는 금지(수산업법 제56조 제1항)

- 수산자원 및 수질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인 등 유어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방법·시기 및 포획량 등을 정하여 낚시행위 등을 제한 또는 금지

□ 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금지(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 어린고기의 포획 금지
-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 준수

이러한 유어장은 전북 등 조개류 살포지역(제주 등), 멸치를 잡는 전통 어법인 죽방염 설치지역(남해군 등), 육지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전통어업인 지인망(부산 기장 공수마을 등) 등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유어체험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그 이유로서는 어업인들의 인식이 낮고 제도권에 참여하여 종사하기를 꺼린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아직은 수요도 낮은 편으로 대규모 수익모델로서 성공하기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생태체험관광은 전체 관광의 5% 수준으로서 시장의 크기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이외에도 많은 생태체험관광유형들이 있으며 이하의 국내의 사례를 확고하기 바란다.

2) 국내외 사례

(1) 일본 후쓰(Hutsu, 富津)시의 갯벌 조개잡이 체험⁵³⁾

갯벌조개잡이 어업체험사업은 후쓰 어업협동조합의 자영사업으로 조합 사업의 규칙에 의거 체험어업의 인가를 받아 1965년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도로정비가 이루어진 10년 전부터 관광객이 많이 오기 시작하여 특히 동경만을 가로지르는 다리 즉 아쿠아라인의 완공으로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업의 쇠퇴로 침체해 가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장을 이용한 관광사업에 주력하여 조합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 소풍 및 지역마을의 단체관광객과 가족관광객이 많으며 조개잡이 시즌은 3-9월로 7개월간으로 연휴에는 하루 관광객 20,000명이 집중하여 주차장 확보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대상은 주로 바지락 및 대합이며 해안선에서 800m까지 나가서 조개잡이를 할 수 있고 체험어장의 넓이는 약 60ha로 관광객을 위해 어민이 채취한 조개를 조합이 구입하여 체험어장에 살포하고 있다. 현재 토·일요일에 상근하는 직원이 12명 있으며 성수기일 때는 40명 정도의 임시직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조합의 수입은 조개잡이 요금(어른 : 2kg 그물망 1,200엔, 어린이 : 1kg 그물망 600엔), 휴식시설 이용료(어른 : 300엔, 어린이 : 200엔)의 정수, 그리고 각종 조개잡이 용품의 판매대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합수입은 조합 유지비, 체험어장의 시설유지 및 청소비용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조합원의 조합부과금 72,000엔(약 720,000원)을 체험어장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다.

후쓰어촌의 갯벌체험어업은 어업인의 고용효과와 동시에 조합이 어민들의 수산물을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어민들에게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후쓰갯벌 체험어업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선 이 지역이 동경만 외측에 위치하여 동경만 안쪽보다 바닷물이 깨끗하고 조개를 직접 채취할 수 있어 도시민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또한 주변에 있는 南房總국정공원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광할 수 있기 때문이다.

53) 경기도, *Op. cit.*, 2001 5., pp.3-64 ~ 3-65.

〈그림 4-7〉

후쓰의 조개잡이 체험장소

(2) 일본 야쓰(Yatsu, 谷津)의 갯벌⁵⁴⁾

일본 나라시노시(習志野市) 인근 야쓰갯벌은 과거 광활한 간석지의 일부였던 장소가 1970년대에 주위가 매립되어 동경만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주택지와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 약 40ha의 장방형의 바다이다. 동경만과는 폭 6m 정도의 2개 수로로 연결되고 조수간만으로 해수가 야쓰갯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다. 야쓰갯벌에는 오리, 백로, 도요새, 물떼새, 갈매기류가 다수 날아와 1993년 람사조약 등록습지로 인정받았다.

야쓰갯벌에는 사시사철 다양한 새가 모여드는데 계절에 따라서 세계각지로 이동하는 철새가 많이 찾아온다.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 등 북쪽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쪽을 왕래하는 도요새 및 물떼새에게는 야쓰갯벌이 여행 도중의 중요한 중간휴식지가 되고 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해진 백로 및 물떼새는 야쓰갯벌에서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므로 이곳은 이들 철새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야쓰갯벌은 모래질을 많이 포함하는 이토(泥土)質로 갯지렁이, 게, 조개(재첩종류)와 같은 모래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이 많이 살고 있으며 특히 갯지렁이는 백로 및 물떼새를 비롯하여 물새의 먹이로서 중요하다.

야쓰갯벌은 야쓰갯벌 공원 내에 위치하며 이 공원은 야쓰갯벌의 자연을 활용한 ‘자연생태관찰공원’으로서 갯벌보전(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54) 경기도, *Op. cit.*, 2001 5., pp.3-67 ~ 3-68.

도시조성의 거점), 완충녹지(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거점), 레크리에이션(야생조류와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거점), 환경학습(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점)을 기본테마로 하고 있다. 즉 야쓰갯벌의 주위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밭과 장미정원이 있고, 철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관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갯벌주위를 돌아가면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간단한 관찰 시설을 설치해 두고 있다.

특히 자연관찰센터는 나라시노시(習志野市)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쓰갯벌보전과 홍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관찰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교육(자연의 중요함을 전하는 일), 시민참가사업(야쓰갯벌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대책협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는 일), 야쓰갯벌의 보전(야쓰갯벌의 양호한 환경을 지속시키는 일), 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국제적인 시각에서 습지보전에 대처하는 일) 등이다. 특히 시민참가에 의해 관찰 센터가 운영·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시민의 참가는 활발한 편이다.

〈그림 4-8〉

야쓰 자연생태관찰공원

관측소 겸 운영건물의 전경



운영건물의 내부 모습

(3) 기타 해외 사례⁵⁵⁾

① 오징어낚시(야마가타현 사카타)

도시마 어부 완전체험투어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하는 오징어 낚시 체험이다. 첫날은 바베큐를 한 후 민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항하여 오징어 낚시를 체험하고 귀항 후 어획물을 회를 쳐서 가공하여 아침 식사를 한다.

② 다나베만 게잡이 체험(화카야마현 구시모토쵸)

다나베만 게잡이 체험도 1박2일의 체험이다. 오후 4시에 민박집에 집합하여 약 2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출항하여 게 자망을 체험한다. 귀항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민박에서 숙박을 하고 이튿날 아침 식사 후 해산한다.

③ 어업체험과 크루징(오사카부 다지리쵸)

다지리 어업협동조합에서는 유자망 어업을 위주로 어업 체험을 한 뒤 간사이 공항 연안에서 비행기의 이착륙을 견학하는 크루징과 신선한 해산물 바베큐를 세트로 한 독특한 어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크루징 도중에는 어부의 지도로 어선의 조타도 체험할 수 있다. 요금 설정도 풀 코스, 어업체험과 풀 코스 어업체험 크루징, 신선한 해산물 바베큐 코스 등 기호에 따라 참가할 수 있게 설정하고 있다.

④ 에코트래킹(가곡시마현 야쿠섬)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야쿠섬에서는 야쿠 원숭이와 야쿠 사슴, 바다 거북 등의 관찰 포인트를 기록한 야쿠섬 생태 지도와 야쿠섬 환경 학습을 위한 모델 코스의 팸플렛 등을 작성하여 섬내에서 방문자가 적절히 섬의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생태 투어리즘(오키나와현 다케토이쵸 이리오모테섬)

이리오모테섬에서는 섬의 관광에 생태 투어리즘을 도입하기 위해 생태

55)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안내서』, 1999 3, pp. 44~47.

투어리즘 추진협회를 설립하고 1998년 2월에 이리오모테섬 생태 투어리즘 선언을 채택하였다.

⑥ 고래 관찰(도쿄도 오가사와라촌)

오가사와라촌 관광협회에서는 오가사와라 주변 해역에서의 고래와 돌고래의 관찰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외에도 각종 관찰 투어를 왕성하게 실시하고 있어 섬의 주력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⑦ 생태 트래킹(뉴질랜드 넬슨시)

뉴질랜드 남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넬슨시는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바다를 갖춘 천혜의 휴양지로 뉴질랜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넬슨 근교의 에이벨 타스만 국립공원은 변화무쌍한 해안선과 삼림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유명하며, 트래킹이나 바다 카약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보기 드문 지역이다. 특히 바다 카약은 다양한 코스가 정비되어 넬슨 관광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강사 양성 코스를 설치하는 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4) 강화도 생태학습장⁵⁶⁾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자연기금(WWF)과 아시아 습지 보호협약(AWB)에 등록된 세계 주요 습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철새번식지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화도의 생태학습프로그램은 강화도 남단 장화리에 위치한 ‘해양환경 탐구수련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련원은 1997년 장화초등학교가 폐교되자 인천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으로 개조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56) 경기도, *Op. cit.*, 2001 5., pp.3-69 ~ 3-70.

〈그림 4-9〉

강화도 갯벌 및 갯벌생태학습장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이 기간동안 인천강화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갯벌체험 및 생태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서는 갯벌생태교육 이외에도 ‘장화리 성공회 교회’ 및 ‘강화도 시민연대’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찰 프로그램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화도 시민연대’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생태관광가이드로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의 빈집을 민박집으로 개조하여 생태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다. 생태관광프로그램에는 녹색연합이나 각 지방환경운동연합, 교육청 등에서 조직한 갯벌 생태 체험팀 등이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 전라남도 함평 생태체험학교⁵⁷⁾

전라남도 함평만은 서해안 남부에 위치한 반폐쇄성 내만으로서 입구는 좁고 안이 넓은 전형적인 우리 나라 남서해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함평만의 길이는 약 17km이고 폭은 최대 약 12km이며, 만의 입구는 약 1.8km로 협소하고, 그 면적은 34,410ha이다. 생태체험학교는 함평군의 주도하에 운영되며 돌머리 해수욕장과 함평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무료로 참가한다.

친환경 생태체험학교 운영으로 “나비고장 함평에서 친환경 생태체험을”이라는 주제 하에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외 5개소(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나비생태관, 친환경 농업체험장, 솟대·장승공원, 생활유물전시관)를 방문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내 위치한 갯벌 생태체험장은 갯벌의 생성과정과 생태, 기능, 중요성 등에 대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갯벌의 정의, 우리 나라 갯벌 현황, 갯벌과 관련된 용어, 갯벌 생성요인, 갯벌의 유형, 갯벌의 환경 특성, 갯벌 생태계의 특징 등 갯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함께 갯벌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돌머리 해수욕장의 운영과 갯벌 위에 木道 설치, 각종 이벤트 개최 등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정책 방향

갯벌과 철새도래지는 환경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개 이러한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수용용량이 있어서 자연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갯벌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환경차원의 관광수용능력(tourism carrying capacity)를 먼저 설정하고, 그 한계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관광객 입장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⁵⁸⁾.

57) 경기도, *Op. cit.*, 2001 5., pp.3-71 ~ 3-72.

수도권에서 갯벌 체험은 주요 어촌 관광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갯벌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 어패류 등을 채취하고 있는 등 거의 상업성에 가까운 채취 활동을 하고 있으나 어업보상이 끝난 관계로⁵⁹⁾ 어업권이 소멸되어 어업인들은 전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은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한정된 기간만이라도 어업을 영위하면서 갯벌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⁶⁰⁾. 아울러 갯벌에서 체험 활동을 지속케 하기 위하여 어촌 마을마다 공개된 체험 어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이면 누구나 동 지역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되 어업 전용 어장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양면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갯벌관찰이나 철새 탐조 등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일본의 야쓰 갯벌관찰센터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는 생태교육장, 탈의실, 강의실, 세족/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탐조대, 생태관찰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어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사업으로서 크게 성공한 예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화 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테마를 강하게 하고 아울러 홍보도 강화하여 어촌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도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교육 및 여가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선을 타고 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업체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어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바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제정과 보험 등의 제도화가 요망된다.

58) 해양수산부, *Op. cit.*, p. 20.

59) 경기도 일원은 시화지구, 화옹지구 등의 매립 관계로 '90년대에 면허가 소멸되었음.

60) 경기도 안산시 탄도 어촌 등 몇몇 어촌계는 실제로 어민들이 관광객 체험 조업구역을 설정하여 이곳에서만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장과 철저히 차별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이 구분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음.

5. 어촌경관/휴양형

1) 현황⁶¹⁾

해양은 그 자체가 꿈과 희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 대상이고 일출, 일몰 등 훌륭한 경관을 제공한다. 또한 연안의 여러 가지 자연적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특이한 지형지세는 이러한 해양의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다.

기암괴석 및 해안절벽 등의 해안 경관지역, 일출 및 일몰, 어부림, 신비의 바닷길, 도서 등 다양한 자원들이 해안에 위치하여 경관의 감상 등 관광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

(1) 경관지역

우리나라 연안에는 기암괴석, 해안절벽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그 자체가 관광의 대상물이 되거나 혹은 어촌경관의 매력을 더 해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암괴석 및 해안절벽이 많이 발견되는 어촌지역은 전체 어촌 중 46.6%⁶²⁾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인 곳도 많아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61) 해양수산부, *Op. cit.*, 2000 4., pp. 22 - 25.

62) 황기형·이승우(2000 12) 등의 연구 결과임. <표 2-9> 참조. 농림부(1996 10)의 조사에서는 기암괴석만 있는 지역이 전체의 33.7%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6〉 해상국립공원 현황

국립공원 이름	한려해상 국립공원	태안해안 국립공원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일자	1968.12.13	1978.10.20	1981.12.23	1988.6.11
공원전체면적	510.3km ²	329.0km ²	2344.9km ²	157km ²
국유지면적	397.0km ²	6.5km ²	71.9km ²	91.4km ²
자연보존지구	9.3km ²	0.3km ²	57.4km ²	14.7km ²
보호구역면적	34.7km ²	0.1km ²	없음	없음
공유지면적	0.002km ²	1.5km ²	없음	7.7km ²
자연환경지구	480.7km ²	316.0km ²	2260.2km ²	140.3km ²
해안면적	344.8km ²	290.3km ²	2004.9km ²	9.0km ²
사유지면적	112.2km ²	30.7km ²	268.4km ²	45.6km ²
취락지구	19.0km ²	6.7km ²	25.1km ²	1.0km ²
육지면적	165.6km ²	38.7km ²	340km ²	148.0km ²
사찰지면적	1.1km ²	없음	0.2km ²	3.3km ²
집단시설지구	1.3km ²	6.0km ²	2.3km ²	1.0km ²
소개	유인도 38개 무인도 57개 거제, 통영, 충무, 삼천포, 남해, 하동, 여수 등지	150여개의 섬 리아스식 해안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대	1700여개 섬 여수-흑산도-홍 도	자료 미확인

* 자료: 국무총리실·해양수산부, *Op. cit.*, p. 212.

(2) 일출 및 일몰 경관지

최근에는 일출 및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한 동계에 일출 및 일몰 경관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일출 및 일몰 경관지의 부상은 해양관광의 계절성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리적으로 일출관광지는 동해안과 남해안 동부에 주로 분포하나, 서해안에도 일출 감상이 가능한 곳이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일출관광지는 동해안의 경포대, 정동진, 영일만, 여수 향일암, 제주도 성산포 등이고 서해안의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과 서천군 서면 마량리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경관지로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다.

(3) 기타

① 어부림

전국적으로 어부림 8개소와 해안가에 조성된 방풍림 2개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어업자원 조성에 도움을 주고 해양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어부림 및 해안 방풍림은 전남에 6개소, 경남 2개소 등 주로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어촌지역 조사에서⁶³⁾ 나타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의 26%에 방풍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4-7〉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의 어부림 및 방풍림 현황

문 화 재 명	구 분	소 재 지	수량 (㎡)	문화재 번호
외연도 상록수림	어부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32,727	충남 136
주도 상록수림	어부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7,190	전남 28
예송리 상록수림	어부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3,901	전남 40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방풍림	전남 완도군 소아면 미라리	16,000	전남 339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방풍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8,506	전남 340
까막섬 상록수림	어부림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14,479	전남 172
고흥 봉래면 상록수림	어부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12,900	전남 362
미조리 상록수림	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1,732	경남 29
물건 방조상록수림	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3,438	경남 150
목도 상록수림	어부림	울산 울주군 온주면 방도리	15,054	울산 63

* 자료 : 해양수산부, *Op. cit.*, p. 24.

② 신비의 바닷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간조시 해저의 사구가 드러나는 현상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중 바다물에 덮여 있다가 드러난 바다 길을 걷

63) 농림부, *Op. cit.*, p.73.

는 일은 바다속의 자연물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움과 신비감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어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⁶⁴⁾ 상품화가 가능한 지역은 대략 13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 진도군 회동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을 이용하여 매년 영등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밖에 같은 현상으로 유명한 지역은 경기도 제부도, 충남 무창포-석모도, 여수의 사도-낭도 지역을 들 수 있다. 특히 충남 무창포 지역도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③ 어촌휴양·보양자원

바다에는 휴양적 요소를 갖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 예로 해수, 심층수, 민간건강요법, 조류와 바람, 삼림·해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수요법, 해수온욕요법, 모래욕, 삼림욕 등이 가능하다. 여수의 만성리 해수욕장, 제주 삼양해수욕장 등의 흑사모래 찜질은 여러 가지 질병에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성에서는 해수탕과 녹차탕을 운영하여 매년 흑자를 내고 있기도 하고 함평의 해수 찜질은 민간요법으로서 유명하다. 인천, 포항 등 도심이나 어촌지역에서는 지하 해수를 뽑아 올려 해수탕의 源水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국내외 사례

① 해수온욕시설(일본 에히메현 유게초)

유게초에서는 현재 해수온욕 시설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운동요법 외에 온욕시설로서 풀(Pool)을 위주로 하여 각종 욕탕, 기포 욕탕, 사우나 등이 검토되고 있고, 주민과 방문자에게 각종 요법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건강식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64) 농림부, *Op. cit.*, p.73.

② 조염(藻鹽)목욕(일본 히로시마현 가마가리초)

가마가리초에서는 예전부터 피로회복에 이용해 온 조염목욕(해조류와 해수를 이용한 사우나 비슷한 것)을 재현하여 이것을 섬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③ 아토피 캠프(일본 오키나와현 온나촌)

후생성이 오키나와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토피(알레르기)성 피부염 어린이를 위한 캠프이다. 합숙형식으로 행해지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면서 해수요법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돌고래 요법으로 자폐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3) 정책 방향

(1) 경관개발지에서의 문제점

해돋이 명소로 부상하면서 관광객이 늘자 숙박·유흥업소의 시설이 못 들어가는 준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불법 무허가 숙박영업을 해오는 사례는 정동진 지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동진 지역처럼 갑자기 인파가 몰렸던 지역은 토지용도 변경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변태 시설들이 들어서 환경파괴와 함께 난개발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동진 지역은 최근 뒤늦게 강릉에서 준농림지에서도 음식·숙박업을 허용토록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예외조항(시·군 조례 지정 지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준농림지이지만 음식·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강릉시는 이에 앞서 2000년 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동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 대상지 필지조서를 받는 등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농림지에서도 음식·숙박업을 허용토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한 지역 주민에 대해 난개발을 이유로 한 의견이 맞서 큰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토의 난개발과 불법조장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교부는 전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의 개발 가능여부를 가리는 기준안 마련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립공원 지구내 개발

경관이 좋은 해상국립공원 지구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보존 정책과 지구내에 위치함으로써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마을과의 마찰이 많다. 지정된 지역은 특히 건축물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지정 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지정 이후의 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은 지정 해제로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귀중한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미관, 경관 가이드 라인의 설정

현재 연안의 바닷가에는 여러 가지 간판 난립, 다양한 건축 양식, 건축 고도제한 부재로 건축물에 의한 경관의 훼손이 극심한 편이다. 따라서 연안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통하여 건축 및 미관 등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건축 조례로 연안지역의 건축고도를 제한하여 해안의 조화로운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해상국립공원도 건축물의 고도 규제로 경관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거의 아무런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바닷가의 경우는 내륙에서 본 바다, 바다에서 본 육상 등 경관의 모습이 방향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 특히 연안에서는 해안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거나 해안선과 15도 정도의 경사가 유지되도록 건축물을 동시에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관 가이드라인은 호주의 빅토리아 주 같은 경우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⁶⁵⁾ 현재 강원도에서도 바닷가 지역에서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바다 경관 조성 방안을 수립, 시행하려고 준

65) Victorian Coastal Council, *Siting & Design Guideline for Structure on the Victorian Coast*, 1998

비하고 있다⁶⁶⁾.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연안 개발지침이나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수용하여 체계적인 연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어촌역사문화형

1) 현황⁶⁷⁾

전국에는 72개의 해양관련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⁶⁸⁾. 이 중 봄(3~5월)에 22개, 여름(6~8월) 17개, 가을(9~11월) 15개, 겨울(12~2월)에 18개가 개최되어, 지역축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열리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는 전남(14개)과 강원(13개), 경남(11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 진도의 바닷길 갈라짐 현상이 일어 날 때 같이 개최되는 영등축제의 경우, 국내 관광객만 한 해 30만명 정도 유치하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 6,000명을 포함 1만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에도 전어 축제를 개최하여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이외에 어촌마을에서의 문화 관련 관광자원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66)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 강원도 동해안 경관형성 기본계획』, 2001 9.

67) 해양수산부, *Op. cit.*, p.31-32.

68)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다음식과 관련된 축제 (16개), 어업과 관련된 제전 (12개), 예술공연 혹은 해양스포츠를 위주로 한 해변축제 (13개), 일출제 (9개), 역사를 소재로 한 축제 (6개), 풍습 및 전승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 (6개), 자연현상을 소재로 한 축제 (5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어촌의 문화관광 자원 분포

구 분	어촌마을의 자원 보유율(%)	비 고
전승놀이	7.1	어촌지역 문화재보유 천연기념물 : 5.3% 국보 : 1.2% 보물 : - 지방문화재 : 11.2% 유형문화재 : 6.5% 무형문화재 : 3.6%
풍어제	32.5	
당산제	36.1	
전통음악	3.0	
사 찰	15.4	
주요건축물	5.9	
사 적 지	13.6	
전 통 술	5.3	
전통음식	7.7	
기타음식, 음료	13.0	
도자기(옹기) 제작	3.0	
그림 제작	3.0	
어선 제작	10.1	
조개껍질 가공	4.1	
기타 특산물	11.8	

* 자료 : 농림부, *Op. cit.*, pp. 82~85.

이러한 축제 이외에도 과거 많은 조선조의 선비들이 귀양살이를 했던 진도나 고산 유선도가 귀양살이를 했던 완도군 보길도의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은 당시의 문화적 향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목포의 남농 등 유명 남방예술인들의 遺墟 등은 상당한 예술적 유적으로서 많은 내방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寶庫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의 사례

(1) 특산 어패류를 살린 이벤트에 의한 활성화 - 돛도리현 하로 항구 축제⁶⁹⁾

山陰海岸國立公園, 돛도리大砂丘, 白土海岸, 온천 등 아름다운 자연에 혜택을 받은 관광도시로서 돛도리市의 북측에 소재한 하로정은 일본해로 흘

69) 제주도, *Op. cit.*, pp. 85-86.

러드는 돛도리현 삼대 하천의 하나인 천대천의 하구부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해상교통의 요충이자 근해·연안어업의 기지로서 번영해 온 어촌 마을이다.

하로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 2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송엽게, 가자미, 도루묵을 대상으로 한 근해저인망, 낚치, 도미, 가자미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 흰 오징어, 오징어를 대상으로 한 오징어 낚시를 어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이 되면 「겨울의 미각 송엽게」의 어획으로 번성했었는데, 근년 송엽게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생산 지역에서도 값이 비싼 편이다. 이 「하로 항구 게축제」는 송엽게 시즌에 맞추어 제철의 맛을 현지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제공하면서 아울러 지역 관광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6년도부터 山陰 관광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축제는 하로어협이 주최해 왔는데 현지 수산물 관련 홍보, PR을 어협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송엽게」나 「친게」를 축제 당일에 확보하는 것이나 운영비용 조달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인회를 비롯한 어업관계자의 이해와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연대의식 때문에 축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은 유서 깊은 축제가 되어 어촌의 활성화에 일익을 하고 있다.

매년 11월의 제3 토요일에 하로 어협에서 개최되는 이 축제는 「게와 생선과 인정과」의 캐치프레이즈로 하로에서 잡은 송엽게를 중심으로 하는 신선한 어패류와 현지에서 생산된 가공품 등의 「직판코너」, 게밥, 게의 된장국, 도루묵 초밥, 새우구이, 구운 고등, 오징어요리 만들기 등의 향토요리, 어협에서 생산한 양식 낚치를 맛볼 수 있는 「맛보기 코너」 「게 전골 코너」, 향토예능 공연, 가라오케대회, 음악대에 의한 생연주 등 인정미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연예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부인회, 중매인, 조합원, 어협 직원 등 현지의 관계자가 모여서 조직된 「게 축제 실행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행사이다. 모두 현지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맛있는 코너」, 「게 전골 코너」는 선착제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다. 1989년에만 1만4천명의 인파로 번성하였고 縣外에서의 예약도 쇄도할 정도로 성황이다.

돗토리현의 특산물인 송엽계를 비롯해서 어업자원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업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이 축제가 대성황을 거뒀다는 것이 어촌에 활기를 가져오고 지역주민에게 연대감·자신을 심어주는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충분히 공헌하고 있다. 또 시외관광 후 돌아오는 길에 각 계절의 신선한 어패류를 구하러 이곳에 관광객이 들리도록 하는 등 파급효과도 있다.

회를 거듭할 때마다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이 축제는 어촌에서 손수 운영하여 지역 연대감을 증진하고, 향토요리나 향토예능을 통한 지역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돗도리의 하로라고 하면 「송엽계」로 상징되는 지역 PR과 이미지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로의 경우 지역의 주민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또 「송엽계」라는 고급자원이 있고, 이렇게 소비자가 잘 받아들이는 상품을 이벤트의 중심으로 한 것도 성공의 포인트가 되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응용할 경우에도 이처럼 주제가 되는 중요 상품의 선정이 요망된다.

(2) 수상가옥·수상가옥 마을 공원(일본 교토부 이네초)⁷⁰⁾

일본 이네초의 해안가에는 수상가옥들이 줄지어 서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NHK의 연속극의 무대가 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여 연간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수상가옥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에는 「수상가옥 마을 공원」이 정비되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생선 요리를 하는 음식점과 토산품점도 정비되어 있다. 또한 주민 사이에서도 경관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상 가옥 보존 연구회」가 조직되는 등 관광객 증가를 계기로 자치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한다.

(3) 아라이 지구(일본 시마현 유타카마치)⁷¹⁾

에도 시대에 지역간을 오가는 교역선이 밀물을 기다리기 위해 기항한 오테아라이 지구에는 에도 시대의 요정이나 중간 도매상 등의 역사적인 건조물이 많이 남아 있다. 오테아라이 지구가 중요 전통 건조물 보존 지

70)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안내서, 1999 3, p. 41

71) Ibid.

구로 선정되고 나서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 육성 조직이 결성되어 마을내 미화운동과 관광가이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비치 코밍(Beach Combing)(일본 도쿄도 하치조시마)⁷²⁾

하치조시마은 흑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이 떠내려 온다. 섬에서는 이러한 표박물을 관찰하거나 수집하러 비치코밍을 섬에 체재하는 동안의 여가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방문자 센터의 직원 스스로 비치코마(Beach Comber)로서 표박물 수집에 나서고 있고, 방문자 센터에는 표박물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비치코밍에 적합한 해안을 소개도 하고 있다.

(5) 스톤 페인팅(Stone Painting)(일본 미야기현 다시로지마)⁷³⁾

다시로지마 센터하우스에서는 해변에서 채취한 돌이나 조개껍데기, 나무조각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하는 스톤 페인팅을 체험 메뉴의 하나도 도입하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빌려주고 있다.

(6) 모래 조각 콘테스트(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⁷⁴⁾

가마쿠라 자이모쿠자 해안에서는 모래보존대책으로 모래사장에 반입되는 대량의 모래를 소재로 한 모래조각 만들기를 도입하고 있다. 매년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에 걸쳐 모래조각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많은 참가자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7) 그리스 촌(가고시마 與論島)⁷⁵⁾

與論島에서는 섬의 흙을 사용한 도기나 조개껍데기, 돌, 유목 등을 가공하는 마린 아트 등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그리스 촌이라는 공방을 만들고 있다. 그리스 촌은 새로운 與論島의 관광자원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

72) 해양수산부, *Op. cit.*, 1999 3, pp. 51.

73) 해양수산부, *Op. cit.*, 1999 3, pp. 52.

74) *Ibid.*

75) *Ibid.*

3) 정책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축제는 주로 소규모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테마성이나 홍보 등이 약한 편이다. 그 중에는 지자체에서 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계획하여 성황리에 끝나는 경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전체적인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서 내용이 우수하고 전통성이 강하고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문화 축제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여 보존하되 이들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축제 개최시 예산등 각종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지역의 문화에 대한 조사는 최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자료나 사료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잠재력이 과소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촌에 남아 있는 이러한 해양문화 사료 및 유적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고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기초 자료의 수집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소위 ‘해양문화 인덱스’ 라고 하는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은 가능해 질 것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남해안 등 해안지역에는 상당한 예술인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에 예술적 유적을 남기고 있다. 임진왜란의 유적지, 장보고 유적지, 과거에 왜인들이 들어와 쌓은 왜성,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성곽 등이 연안을 따라 다수 남아 있어 잘 위한다면 훌륭한 연안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지역별 해양문화지도를 만들어 관광시 이러한 유적들에 대한 방문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수산물 구매/시식형

1) 현황

수산물 구매와 시식은 어촌활동에서 가장 왕성한 관광 활동주의 하나이다. 주로 도회지 근교의 어항어촌이나 관광지 인근의 어항어촌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광활동으로서 특히 젓갈류, 지역의 특산물, 활선어의 구입 등이며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어항을 낀 수산물 집산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표 4-9>는 본 연구를 위해 전국 어항어촌중 수산물 시식이 나 구입 활동이 활발한 어항어촌을 조사한 내용이다.

이러한 어촌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시장의 정비, 식당 시설의 위생수준 향상, 오폐수 처리 강화, 주차장, 도로 등의 편의 시설 강화가 요망된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당일형 관광이 많기 때문에 관광 시설의 다양화를 통하여 체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망된다.

〈표 4-9〉 전국 수산물 시식형/구입형 어항어촌

지 역	어항어촌명
인천광역시	후포, 정포, 창후
울산광역시	장자, 당사, 나사, 신암, 주전
강원도	가진, 오호, 봉포, 초곡, 신남, 호산 대포, 남애, 물치
경기도	탄도, 권관
경남	광악, 원진, 육계, 시락, 진동 중항, 남포, 당동, 당항, 곤리, 미조, 선소, 원천, 지족, 서상, 장포, 노량
경북	지경, 삼정, 모포, 병곡, 창포, 부경, 노물, 백석, 저동
충남	삼길포, 간월도, 오천, 무창포, 난지도, 장고항, 성구어, 홍원, 안흥, 모항, 백사장, 몽대포, 만리포, 천리포, 방포, 영목, 남당
전남	국동, 돌산, 안도, 초도, 전장포, 송도, 검산, 재원, 수대, 화도, 소우이, 사리, 영산, 하태, 다수, 원평, 소흑산도, 우이도, 마량, 녹동, 도리포, 서망, 용호, 굴포, 관호, 울도
전북	-
제주	화북, 모슬포, 위미

* 주 : 시군 행정기관별 조사내용이며 누락된 시군이 다소 있음(자료원 : 2001년 어항관련 용역시 조사된 내용임).

2) 국내외 사례

(1) 일본 시바현 호타(Hotta, 富津)어촌의 식사시설⁷⁶⁾

도로변에 위치한 호타어촌은 신선한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식사시설 및 마리나 시설 유치로 어업과 함께 관광사업에 주력하는 관광어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식사시설건립에는 약 9000만엔의 공사비(치바현, 鋸南町, 조합이 공동부담)가 소요되었으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생선소비가 저하 또는 정체되는 현상 속에서 신선한 생선을 이용한 어식보급을 위한 호타조합의 자영사업으로서 흑자를 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호타어촌에서는 정치망, 선망, 자망, 낚시, 양식 등 다양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장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중고급어류가 어획되고 있다. 이들 중고급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음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조합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소득증대 효과를 주고 있으며 평일에는 10명, 토·일요일에는 25명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지역 고용효과 증대로 지역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가족단위의 내방객이 많으며 인근 치바현의 꽃구경을 오면 반드시 들리는 장소로 인식되어 내방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합에서는 현재의 식사시설 옆에 어업인들이 자가건조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신축하여 지역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곳 식사시설 ‘반야’가 인기가 있는 것은 생선의 비린내가 없고 신선하며 값이 싸고 맛이 있고 양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야의 건물은 조합의 소유이며 조합이 경영관리하고 있으나 토지는 정부의 소유이므로 토지사용료로서 연간 약 100만엔을 정부에 지불하고 있다.

최근 동경만에서 보트 또는 요트를 타고 호타항에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여 어선과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마리나용 부잔교를 호타항 남쪽항만에 설치하여 2000년 5월에 개장하였다. 호타어항의 마리나는 일시 기항지로서 보트이용객의 내방 증가와 이들에 의한 식당이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조합의 운영은 어업과 부가가치를 높인 해산물 식당을 포함한 관광사업에 의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76) 경기도, *Op. cit.*, pp. 3-65 ~ 3-66.

〈그림 4-10〉

호타어촌의 식사시설



(2) 전복죽의 메카가 된 제주 성산읍 오조어촌계⁷⁷⁾

성산일출봉 자락에 위치한 오조어촌계는 제주공항에서 12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다. “오조”(吾照)라는 지명은 근처 일출봉에 아침해가 떠오르면 먼저 나에게 비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해안도로 개설로 해안경관 감상 및 교통접근이 좋아졌으며 약 8만평의 내수면 양어장에는 숭어, 민물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어 체험어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다. 주변에는 유명한 관광지인 성산포항, 식산봉, 성산일출봉, 섭지코지(유채꽃 군락지), 신양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등이 밀집해 있어 관광어촌으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오조어촌계 주변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 및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고 지나가는 코스여서 관광객의 왕래가 어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비 9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어촌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 2층은 전복죽을 판매하는 식당, 3층은 민박시설, 지하는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다.

77) 해양수산부, 『어촌종합 개발사업 우수사례집』, 1999 12, pp. 9~10.

〈그림 4-11〉

오조 어촌계 식사·숙박 시설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전복죽이 싸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자 성산 일출봉, 우도 등 인근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들리게 되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민들도 전복죽을 먹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온다. 이처럼 오조어촌계의 전복죽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첫째 해녀가 잡은 수산물을 바로 쓰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이 있으며 가격이 비싸지 않고, 둘째 전복의 내장을 갈아 전복죽을 만드는 오조어촌계의 특이한 요리방식 때문이다.

어촌종합센터는 어촌계원(해녀) 79명이 순번제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익의 일부를 어촌계원에게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모두가 단합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오조어촌계는 어촌종합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관광객을 유치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어촌민박, 향토음식점(전복죽), 식산봉 산책로를 연계 운영할 예정이며, 민박마을조성을 통해 성산 일출봉 관광객의 체재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관광 테마인 어촌체험관광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관광배낚시, 어업체험(조개잡이, 오징어 밤낚시), 경관감상(일출), 해양레포츠, 숙식체험(전복죽 만들기와 관광민박) 등을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먹거리형 관광어촌의 모델 울산 정자어촌계⁷⁸⁾

도시근교의 어촌계인 정자어촌계는 울산시에서 약 22km 북동쪽에 위치하여 승용차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울산시내에서 약 9km 남쪽에 위치한 주전어촌계에서 시작하여 정자어촌계를 거쳐 북쪽의 감포 방향으로 이어지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정자항은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느낄 수 있고 싱싱한 해산물이 있기에 울산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총 450가구중 143가구가 어가이고, 어업인구는 총 인구 1,035명의 약 30%인 315명으로 비교적 상업화가 이루어진 어촌계이다.

직판장을 건립하기 이전에는 좌판 또는 포장마차 형태로 수산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무질서하고 수산물의 위생상태도 나빠 생활환경개선과 지역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어직판장의 개설키 시급하였다. '98년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2억 7천 2백만원이 투입된 활어직판장 개설 당시 좌판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던 비어촌계원 희망자와 어촌계원으로 하여금 점포운영에 참여하게 하였다.

현재 36코너로 구성된 직판장에서 코너당 2명씩 총 72명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호황에 따라 동참을 요청하는 계원들의 증가로 '99년 11월 중순부터는 코너당 운영인원을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회를 어촌계원에게 주고 있다.

정자어촌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은 활어직판장이 개설된 후에 이곳에서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어업인의 소득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활어직판장 근처에 20여 곳의 양념 및 매운탕을 파는 식당도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는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만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인근 어촌계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정도로 활어직판장의 수산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는 울산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대구, 구미, 경산 등 내륙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어촌계에 새로 가입하는 계원이 비교적 의욕적인 젊은 층이고, 어촌계가 어장환경과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78) 해양수산부, *Op. cit.*, pp. 21~23.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조성사업과 어장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정자어촌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게 여겨진다.

3) 정책 방향

수산시장이 있는 곳이나 횃집이 밀집한 곳은 진입로, 주차장 부족, 오폐수처리 등 환경정비의 불량 등 상당히 불결하고 좁은 지역들이 대부분 이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은 시설의 현대화와 아울러 위생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처리 설비의 보강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들은 대개 관광 패턴이 당일형으로 되어 있어 산책로, 전망대 등의 시설도입과 인근의 관광지나 축제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울러 개발하여 숙박형의 체류형 어촌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물의 구입과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대개 수산물의 부족으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수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망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자라는 수산물이 불법어업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유통망의 정비에 의한 물량 조달강화 등 수산물의 조달을 보다 건전화시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유형별 개발방안

1) 요약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0>과 같다.

〈표 4-10〉

유형별 요약표

유형	현황	어민관련 방향	제도개선 방향
해수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 급증 추세 · 체계적 관리이용 제도 미비 · 침식, 환경오염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들의 관리임대 기준 마련 · 다계절 이용으로 어민들의 년중 소득 균형 유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관리이용 제도 정비 · 침식, 환경오염 관리 강화 · 시설공간이용계획 확립, 시행
바다 낚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법 시행 · 전국 3600여척('99년)으로 소득 증대에 상당한 도움 · 민박, 낚시선 등의 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들의 어한기 활용을 적극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구역, 유어시기 등 자율 규제 유도 · 표준적인 전용유어선 제작 보급 · 어민, 유어자, 잠수자들과 갈등 해소 방안 수립
해양 스포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포츠, 잠수 등과 어민소득 연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등 세제 개혁 · 항로구역 등 조정 · 전용훈련장 마련
생태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철새 등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 주로 자자체 등에서 운영 · 유료낚시터 등이 있으나 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들의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등 선진적인 생태체험장 운영 모델 수립 필요 · 자원 자체의 보존의 필요성이 높음
어촌 경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출/일몰, 신비의 바닷길 갈라짐 등 급부상 · 준농림지 등의 난개발이 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외부자금 위주개발로 어업인들의 개발 소외 현상 심함. 따라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 마련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용도지구제 추진 · 미관,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 조례로 시행
어촌역사 문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72개 해양관련 축제 있음. · 테마성이 약해 이 자체로서는 수익증대 등에 큰 영향을 못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지부, 어촌계 등 어민조직이나 어민들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요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등을 해양수산부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체제 마련 · 국가단위의 주요 해양문화자원 발굴 작업 시행
수산물 구매/시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성한 어촌활동 ·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 · 환경오염 등 지저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저장시설, 냉동냉장 시설 등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형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테마강화 · 수산물의 장기 안정적 공급 필요 · 편의시설, 환경 등의 체계적 정비

2) 관광 유형별 개발방향

위에서 제시된 각 유형을 개발관리 주체, 토지이용, 개발과정 등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현재 수산물 구매/시식형, 유어선형, 해수욕형 등은 일부 과밀 개발된 경향이 높으므로 재정비가 크게 요구되며 기타의 유형들은 아직 개발의 밀도가 높지 않으므로 향후 보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4-11〉 관광 유형별 개발방향

유형	개발·관리 주체	토지이용 구분	개발 과정	개발방향
수산물 구매/시식형	어민/어촌계	준농림지, 어항부지	기존의 어항 배후 시장, 식당가 등이 먼저 개발됨	개발의 정비, 환경시설 보완, 미관정비 등
바다 낚시형	"	"	어선의 유어적 이용 행위에 따라 숙박/식당이 보완적으로 발전	숙박/식당 보완, 선박의 고급화 추진
해수욕형	시·도·군, 어민/어촌계	관광지, 준농림지	해수욕장이라는 자원의존도가 높아 이를 중심으로 하계휴양지로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질서있는 개발 유도, 시설 고급화 및 질서 확립, 요급적정화 유도 필요
생태 체험형	"	자연공원, 갯벌, 준농림지	마을의 체험자원을 중심으로 보전적인 이용으로 발전	보존을 기초로 하여 최소한의 개발
해양 스포츠형	시·도·군, 어민/어촌계, 민간사업자	준농림지, 어항	해양스포츠에 적합한 여건 및 자원 보유시 이를 중심으로 발전	숙박, 식당, 훈련장, 시설 보관소 등의 점진적 개발
어촌 경관휴양형	어민/어촌계, 사업자	준농림지, 자연공원 등	바닷가의 볼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급격한 난개발이 있기도 함	계획적인 개발을 조기에 유도하여 경관 유지와 체계적 개발 필요
어촌역사 문화형	시·도·군, 어민/어촌계	준농림지	마을의 우수한 문화자원이나 이벤트를 중심으로 발전	집객성을 고려한 강한 테마를 부여하여 개발

9. 유형별 소득화 방안 검토

어업인들이 어촌관광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방안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 시설 임대 : 해수욕장의 파라솔, 유료화장실, 샤워장 운영
- 어선 임대 : 낚시어선, 관광객 이동시
- 개인 시설 운영 : 상점, 식당, 민박 시설
- 가이드 수입 : 체험관광객들에게 가이드 역할
- 장비 대여점 운영 : 레저잠수 장비점, 유선 수리·수선 등 위탁 수입
- 특산품 제조·판매 :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보관·유통하여 수입화
- 유어장 입장료 : 갯벌어장, 정치망 등 어장 개방
- 레저 장소 임대 : 사유지를 레저 장소로 단시간 임대
- 기타 : 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입원이 있을 수 있음.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표 4-12>와 같이 개인과 어촌계가 다양한 수입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4-12〉

유형별 소득화 방안

유형별	어업인 개인 소득화 방안	어촌계/마을 공동 소득화 방안	비 고
해수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 개인별 해수욕장 시설 임대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공동시설 운영 수입 	
바다 낚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낚시어선 임대 수입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번제 운영 유도 · 공동 소유 어선 수입 	
해양 스포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 개인별 장비 대여점 운영 수입 · 장비 수리·수선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 장소 지정, 관리 · 장비 대여점 공동 운영 수입 	
생태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 갯벌어장, 유어장 등 입장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장 공동 지정, 시설 건립, 운영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직영하는 경우 많음.
어촌 경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품 판매센터 운영 수입 	
어촌역사 문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 가이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프로그램 수립 등 지원 · 축제, 이벤트 시행 후 수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벤트는 지자체 지원
수산물 구매/시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민박/식당/상점 운영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마을 수산시장 공동 운영 수입 · 특산품 판매센터 개설, 운영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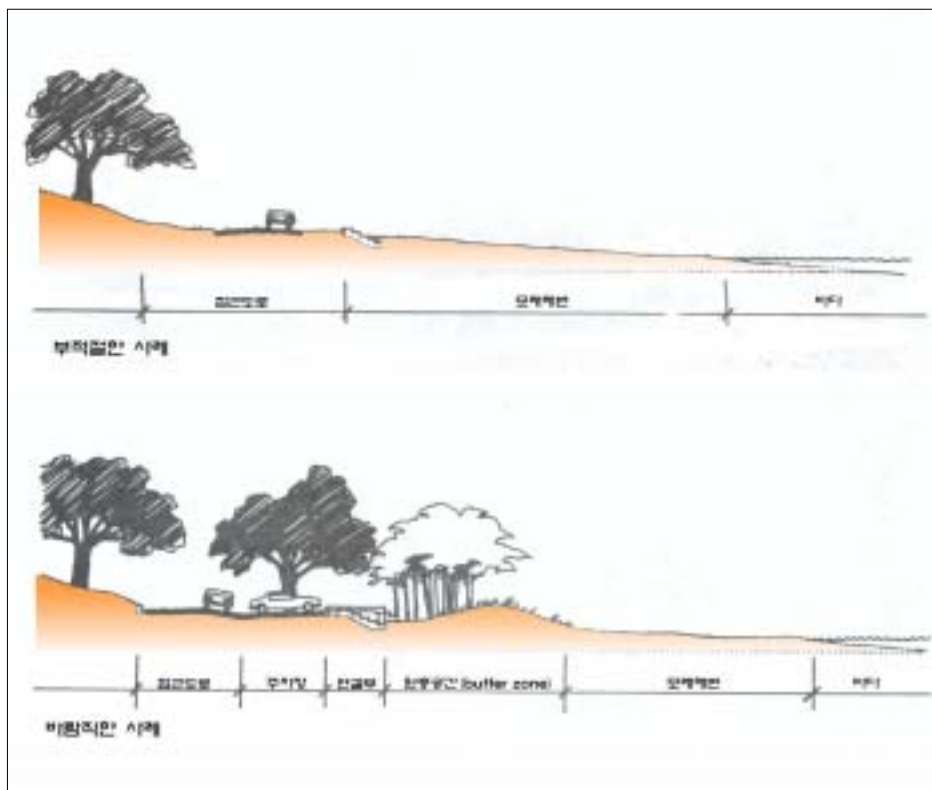
제 5 장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 지침

1. 해수욕장

최근 국내 해수욕장은 주변의 해양 여건과 해안 지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파제 등 해안구조물 건설에 따른 모래 유실이 심해지면서 해안의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관광 활동의 중심이 해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1〉

해빈의 관리 방안



* 주 : Tore, L. Azeo, *Waterfront Development*, 1989, pp.83 (Beach Section)

해수욕형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 모래 해변과 접근도로 사이에 완충공간(Buffer Zone)을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폭과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여기에 해안에 서식 가능한 수목을 식재하여 모래의 유실을 최소화한다.
- 완충공간의 폭과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D=Setback)는 먼저 30년간 해안선의 변화(a), 태풍시 해안선의 변화(b), 향후 30년 해수 높이의 변화(c), 그리고 배후지의 시설용지 계수(d)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⁷⁹⁾.

$$D = (a + b + c) \times d$$

- 완충공간의 식재는 교목과 관목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계획하되 주차장 등 필요한 경우 차폐를 통하여 미관상의 스크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하부 식재를 위해 地被植生(Groundcover)을 활용하여 피복함으로써 모래의 유실을 막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차장과 완충공간 사이에는 연결부를 두어 해안과 배후지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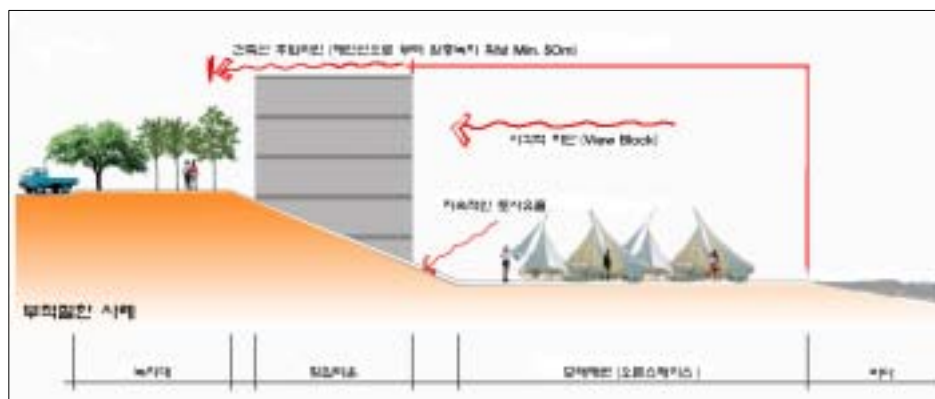
경관이 미려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을 가능한 해안선에서 멀리 후퇴시켜야 한다. 건축물 후퇴라인의 설정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9) Gillian Cambers, *Planning for coastline change*, 1998, pp.27

〈그림 5-2〉 해빈의 부적절한 개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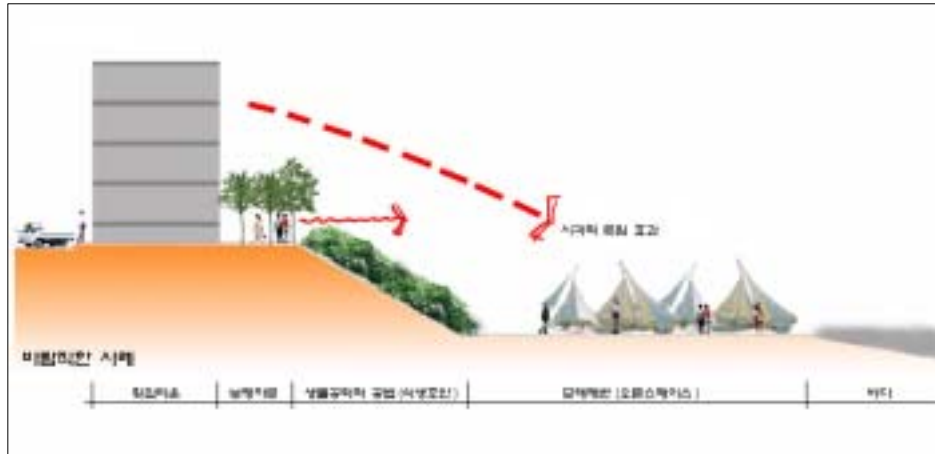


〈그림 5-3〉 해빈의 부적절한 개발 사례



〈그림 5-4〉

해빈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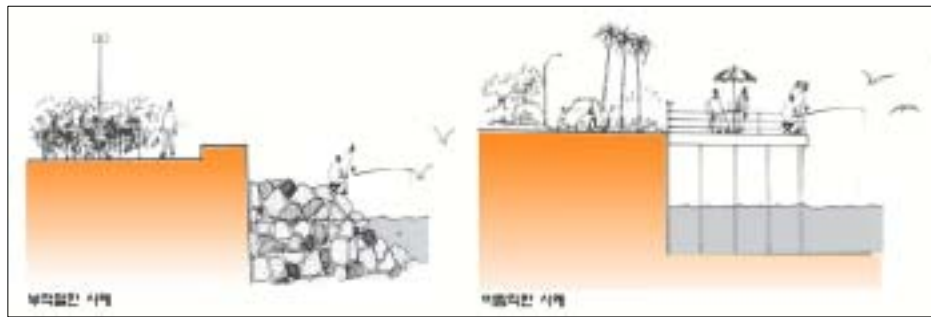
-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에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보행자 길을 조성하고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안선에서 최소 50~100m이상 건축물 후퇴라인 설정을 권장한다. 물론, 이는 절대값의 설정이 아니라 국내여건에 맞는 해안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이다.
- 명확한 건축물 후퇴라인이 설정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해안 경사면이 지속적으로 붕괴되어 구조물의 안정성 및 미관상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건축심의 또는 경관심의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 해안선으로부터 건축물의 후퇴라인 설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바람, 염분, 모래로부터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 불안정한 토양의 영향
 - 쓰레기 퇴적의 문제점
 - 보행자 공간 확보
 - 그늘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 시각적 장애를 줄여 시야의 확보

2. 바다낚시형

국내의 바다낚시 관광유형을 감안하여 볼 때, 대부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갯바위 낚시가 주종을 이루어 도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바다낚시가 가족중심의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낚시용 잔교의 도입으로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5〉

바람직한 바다낚시 시설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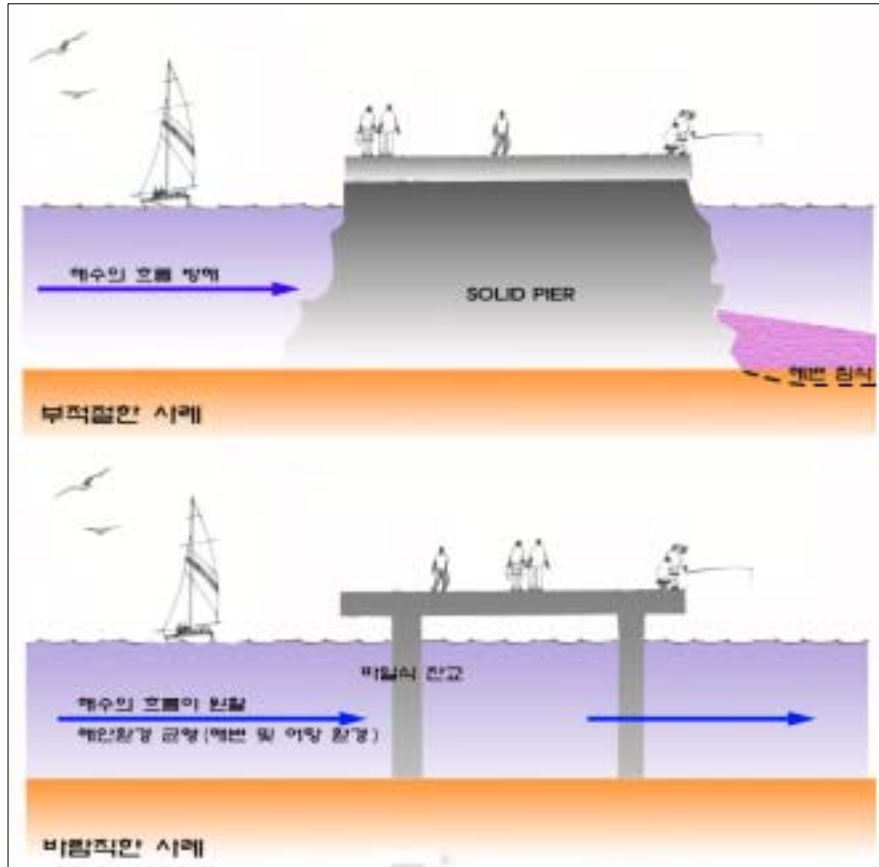
* 주 : 新建築社, 「ウォーターフロートの計画とデザイン」, 1991, pp.87

바다낚시 활성화를 위한 낚시용 잔교 등 해안 구조물(Coastal Structure)을 해안지역에 도입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잔교는 가능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본래의 기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배치될 해안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되는 구조물은 반드시 재료의 선택과 형태를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자문하도록 한다.
- 특히 해안 구조물의 설치와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양수리 분야와 해안지형 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6〉

바다낚시 시설의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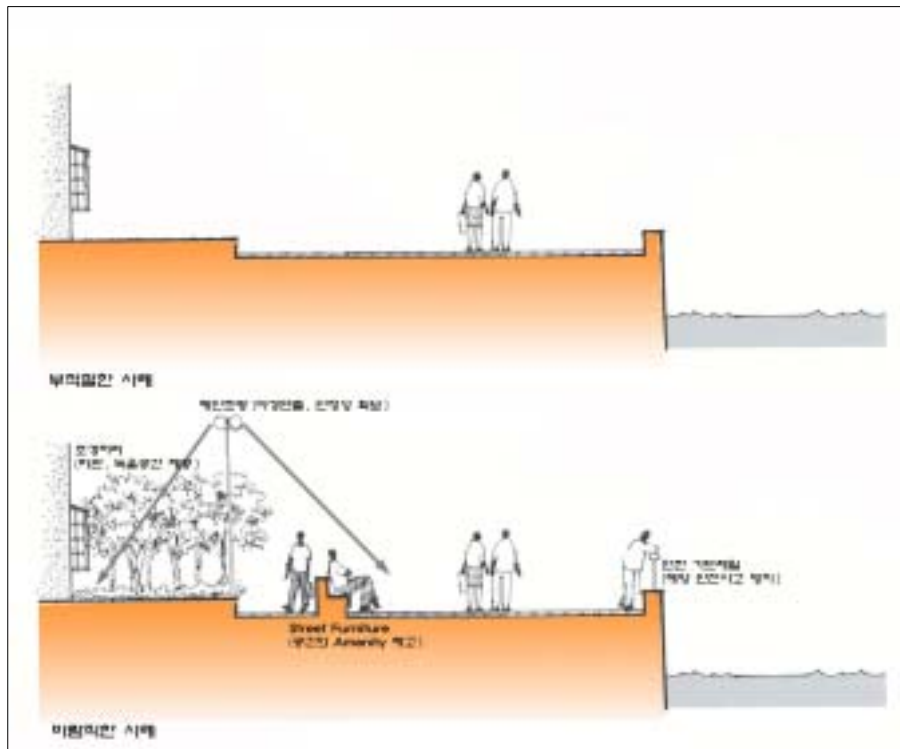


* 주 : Victorian Coastal Council, *Siting & Design guideline for structure on the Victorian Coast*, 1998. pp.19

- 자연지역에서의 해안 구조물은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 시각적 장애물(Visual Barrier)로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조경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상을 도입하여 시각적 영향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지역에서의 해안 구조물도 가능한 낮게 설치 가능한 곳에 배치하여 시각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지역 건축물과 문화 등 도시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되 밝은 색상과 정형화된 형태 또는 예술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특히 지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해안 구조물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연안지역의 어메니티(amenity)를 확보한다.
- 해안 구조물의 구성요소들은 시각적으로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바다 조망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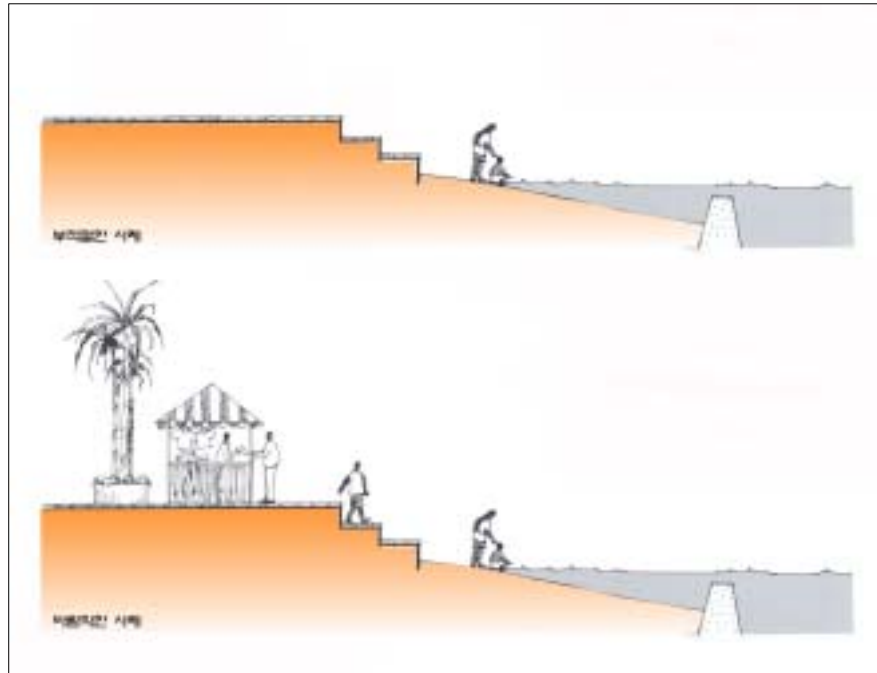
〈그림 5-7〉 해변시설물 설치 사례(해안도로)



* 주 : 新建築社, *Op. cit.*, pp. 66

〈그림 5-8〉

해변시설물 설치 사례(해안접근로)



* 주 : 新建築社, *Op. cit.*, pp.101

- 해안 구조물은 본래 계획된 의도와는 달리 다양한 해안동물의 휴식처가 되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 방파제는 해안을 따라 단순히 파랑으로부터 어항과 어선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인식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망 공간 등 중요한 해안레저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어업/생태체험형

- 해안생태관광지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연안지역의 특수한 환경, 즉 바람과 토양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 생태관광지의 특성상 태양열을 활용한 시설물 도입과 환경친화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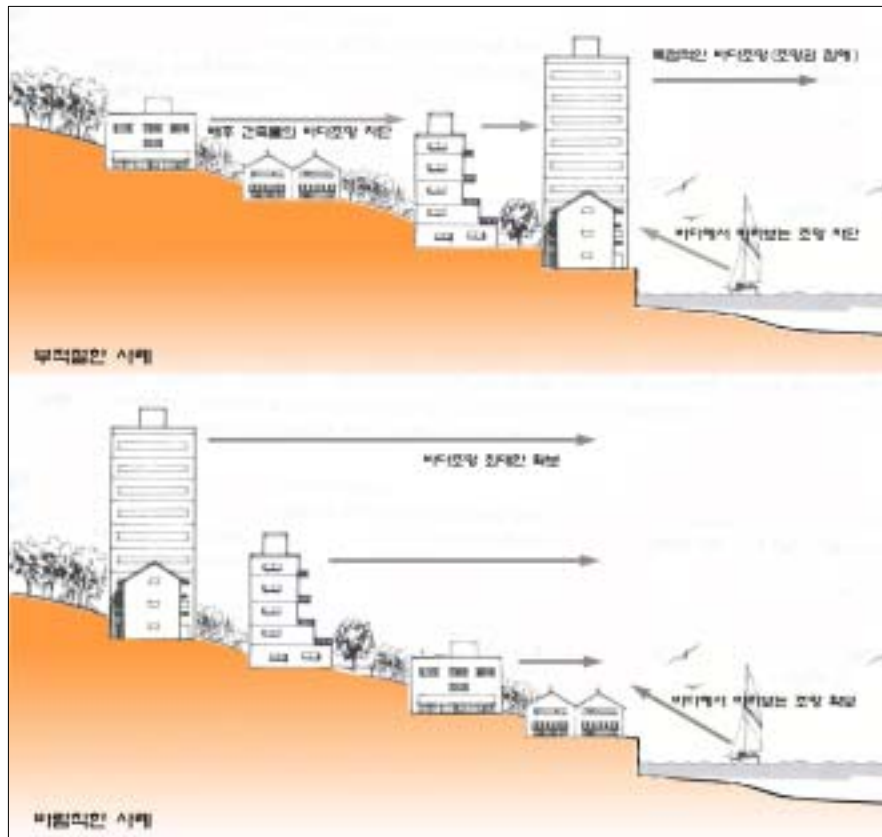
기술로 제작된 시설물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태양열 화장실, 재활용품 시설(폐타이어 바닥 포장재),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공법 등으로 염해나 부식에 강한 제품이 어야 한다.

- 해안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구조물의 설계나 공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 해안 동·식물의 서식환경의 조성을 위해 생태적으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태체험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안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태풍시 배수 체계를 갖추으로써 해안 식생대가 안정될 수 있고, 따라서 해안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어촌경관휴양형

〈그림 5-9〉

바다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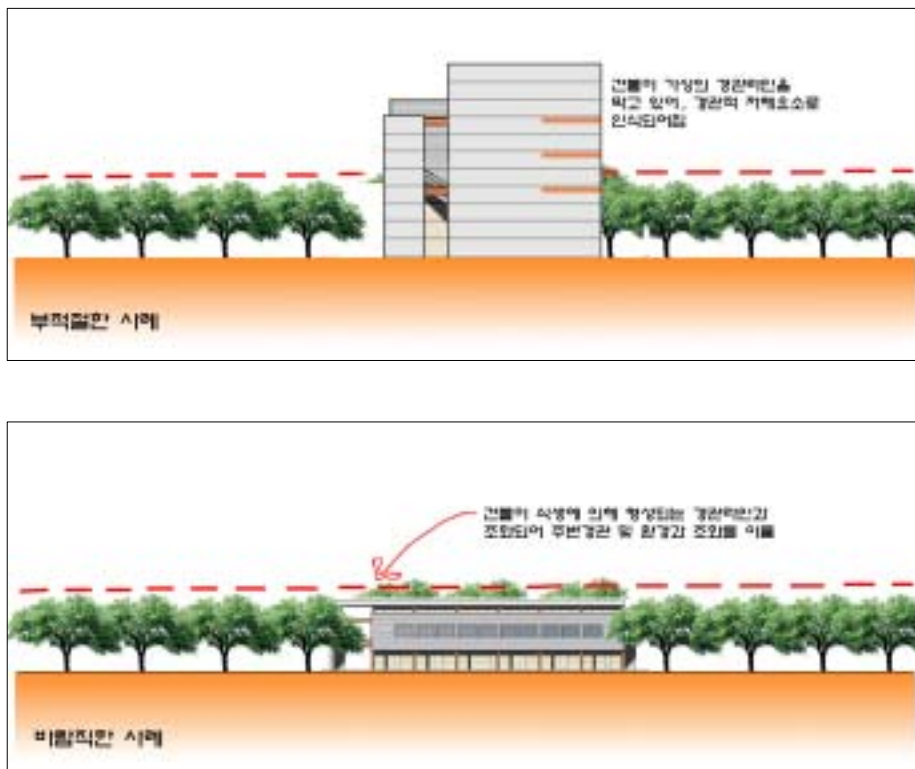


- 해안의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망점에 대해서는 일정폭의 조망축을 확보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의하여 시각적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해안의 경관에서 바다를 향한 경관도 중요하지만, 육지의 배후지 스카이라인(skyline)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바다에서 조망되는 해안지역의 건축물 및 시설물 계획시에는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형태

나 색채의 구조물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 해안가 휴양지 개발에 있어서 주변환경의 가상적인 경관라인을 고려하여 해안경관이 유지·향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10〉 해변조망과 조화된 바람직한 건물 시설 방향



* 주 : Victorian Coastal Council, *Op. cit.* , 1998. pp.23

- 고도제한선이 유지되도록 하여 바다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존 개발의 고도제한선이 유지되도록 한다.
- 해안가에 새로운 개발로 인한 건축물 조성시 대로변의 가로수, 공원 등의 스카이라인이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다쪽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에는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형태나 색채의 구조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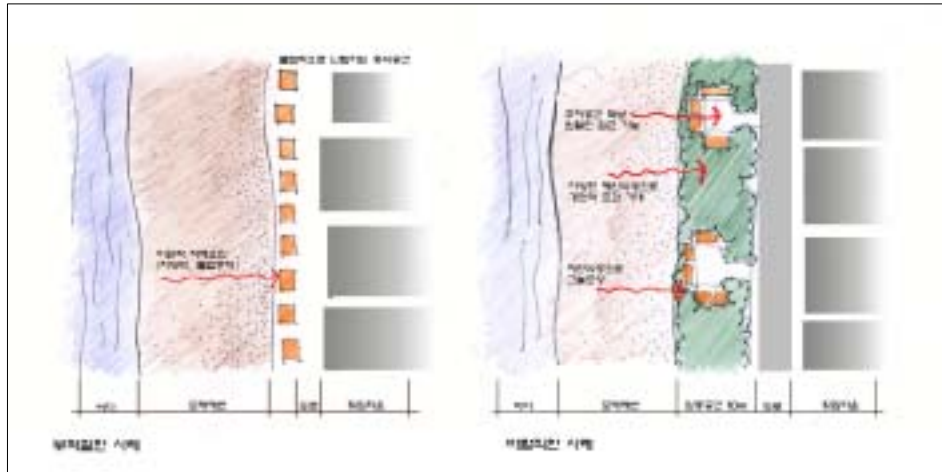
5. 어촌역사문화형

- 해양관련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의 개발 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규모가 작고 테마나 전체적 구성에 있어 상세한 사항을 각 요소별로 분석·검토하여 하나의 완성된 해양 축제 지역을 조성한다.
- 해양문화와 관련한 축제의 개최를 위해서는 축제 규모에 맞게 해안 주변 주차공간을 계획하되, 바닥재는 획일적인 콘크리트 마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재질과 패턴, 색채 그리고 식재를 활용하여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 행사장에서의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식재 또는 단주(Bollard)를 이용하여 명확한 공간분리를 하고, 자동차로부터의 위험 또는 지형지물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한다.
-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보도 폭과 안내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설은 도로의 육지 쪽에 위치하여야 하고, 경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C·I (Corporate Identity) 디자인 모듈에 의해 색채와 시설의 크기, 형태, 위치를 질서정연하게 배치한다.
- 각종 서비스 시설(전기, 통신 등)은 전체 경관 및 미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지하매설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6. 수산물 구매/시식형

국내의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로서 경관이 비교적 우수한 해변을 따라 횃집타운이 조성되고, 그 앞에는 불법 구조물의 휴식공간이 무질서하게 난립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주변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져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그림 5-11〉 식당 등 해변시설물 배치 방안



* 주 : Victorian Coastal Council, *Op. cit.*, 1998. pp.11

- 횃집타운이 불법적으로 여기저기에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환경과 경관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 염해에 잘 견딜 수 있는 해안식생을 횃집타운의 휴게시설 주위에 식재하여 바람, 염분으로부터 재질의 부식이나 변형 등의 피해를 줄인다. 재질은 염해나 수분에 강한 것으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기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식당, 시장 및 배후 휴게공간에서 해변으로의 다양한 진입로를 확보하여 자유롭게 통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간의 연계 효율성을 높인다.

7. 기타 일반적 지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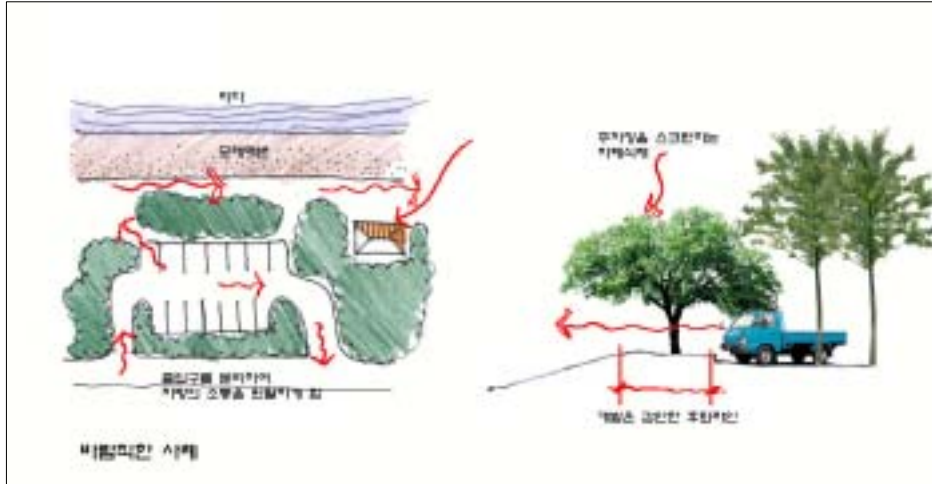
1) 보행자의 접근성

- 해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전방 시야도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5-12〉 바람직하지 못한 해변시설물 설치 사례



〈그림 5-13〉 해변시설물 설치 방안



* 주 : Victorian Coastal Council, *Op. cit.*, 1998. pp.14

- 해변을 따라 배치되는 구조물은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를 방해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 새로운 개발계획시에는 적절한 위치에 해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화된 보행자의 접근로를 고려해야 한다.
- 자전거와 롤러블레이드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일반 보행자의 흐름과 충돌되지 않도록 동선 계획시 고려해야 한다.
- 해변으로 향하는 접근로에는 주차장 그리고 서비스 시설(벤치, 음수대, 화장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동선 및 각종 서비스 시설물의 배치를 가능한 멀리한다.
- 접근로의 개수와 유형은 그 지역의 이용밀도, 지형, 토양에 따라 다르며 특히 사구나 경사가 급한 곳에는 사면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펜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해변으로의 접근로에는 장애인을 위해 램프시설 등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2) 옥외광고물 & 서비스 시설

옥외광고물(간판)은 분명한 내용과 정보를 가져야 하지만 일정범위의 규제를 벗어나면 정보전달의 기능보다 경관적 장애물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해안가 상업지역의 옥외간판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토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5-14〉 경관에 악영향을 주는 옥외 광고물 설치 사례





- 옥외광고물은 경관·미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집중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은 도로의 육상 쪽에 위치하여야 하고, 경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은 주변 빌딩의 지붕선이나 식생보다 높게 설치되어서는 안되고, 움직이거나 네온사인 등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제는 개발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해안지역에만 적용된다.
-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색채와 간판의 크기, 형태, 위치를 질서정연하게 배치한다.

〈그림 5-15〉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정비 방안



* 주 : 강원도,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1997, pp.4-2-42

- 광고물 배치시에는 광고물의 운곽선을 맞추거나 한 간판에 집합시켜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 및 이와 연계된 구조물은 보행자, 특히 조깅하는 사람 및 자전거를 이용자에게 통행의 불편이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는 광고판의 높이, 위치, 재질의 예리한 정도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시 유의해야 한다.
- 각종 서비스 시설(전기 및 통신라인)은 경관 및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지하에 매설하도록 유도한다.

3) 해안의 건축물 관리

해안가의 건축물 설계시에는 주변환경에서 주요하게 인식되는 색채와 재질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해안경관이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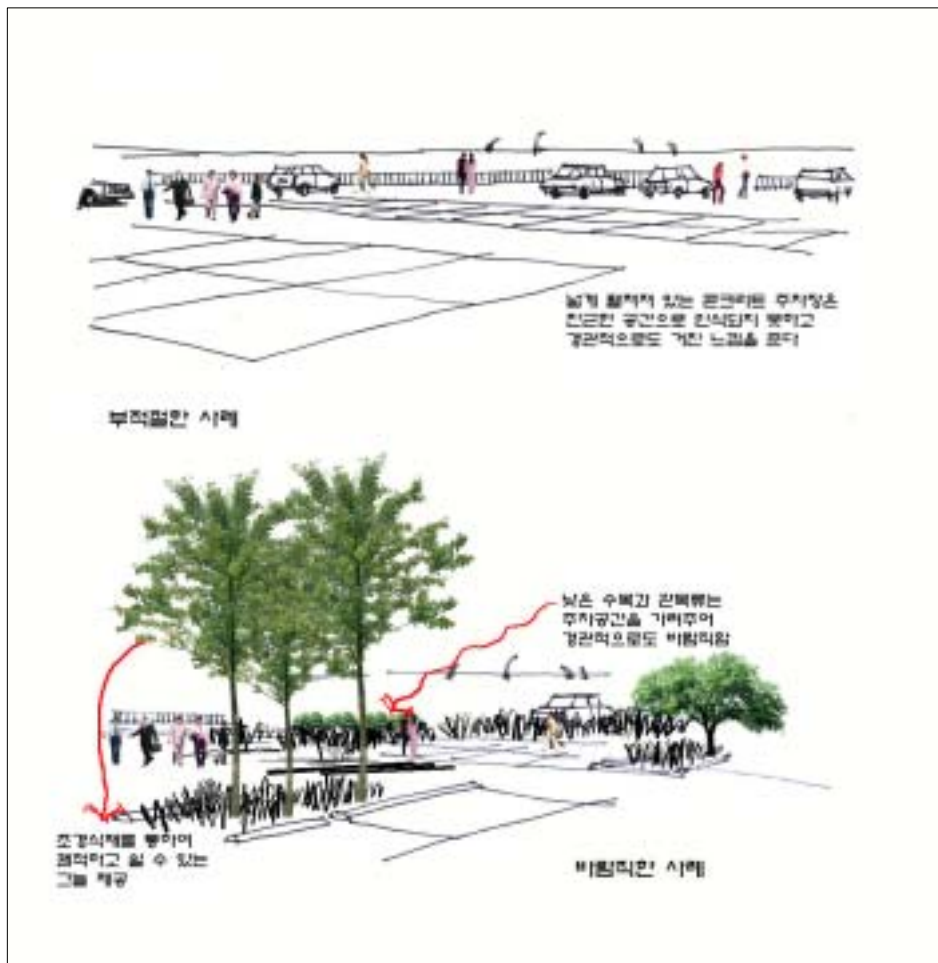
〈그림 5-16〉 주변과 조화된 바람직한 건축시설물



- 색채와 재질은 그 지역의 경관성향에 적절히 융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조례 또는 경관조례에서 명시하도록 한다.
-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에서는 건축물의 색채나 재질은 지역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와 재질은 식생, 토양, 지형 등 주변 자연여건과 연계하여 조화있게 설계한다.

4) 주차장 조성

〈그림 5-17〉 바람직한 주차공간 조성 방안



* 주 : Victorian Coastal Council, *Op. cit.*, 1998. pp.31

- 해안에 인접한 대형주차공간을 계획하는 경우 바닥을 획일적인 콘크리트 마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경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식재와 바닥재를 활용하여 조성한다.

- 식재계획에 있어서 해안선 쪽으로는 낮은 수목위주로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반대쪽은 그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주변의 구조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높이와 위치를 고려한다.

5) 해안 경사면 보호

해안경사면 붕괴는 기존 식생 군락의 파괴나 배수패턴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붕괴시 파도, 바람에 의한 영향은 식생 군락의 파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되어 구조물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그림 5-18〉

관리가 부실한 해안구조물





- 해변부근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 후퇴선의 설정을 건축조례 및 경관조례에 명시화함으로써 해안식생 군락을 보호하여 해안 경사면 붕괴를 예방하고 경관성도 확보한다.
- 이미 경사면 토양붕괴가 나타나는 곳은 생물공학적 복원 (Bioengineering Technical Restoration)⁸⁰⁾이나 리노 매트리스(Reno mattresses) 방법 등의 하드웨어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해안경사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리노 매트리스 공법은 철망에 토양을 넣고 해안 식생을 식재하여 토양의 안정을 기대하는 공법으로, 자연 식생을 통하여 경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방법 역시 간단하여 국내 해안에 시범적 도입이 가능하다.

80) USD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The Practical Streambank Bioengineering Guide*, 1998, pp.18~35

〈그림 5-19〉 르노 매트리스(Reno Mattress) 공법에 의한 시공지



* 주 : Maccaferri, *Where the grass regrows*, 1997, pp.15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의 어업인 소득은 도시민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므로 어촌관광이라는 어업외 소득을 통하여 이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광의 다변화 등이 예상되어 어촌에서의 각종 관광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비가 요망된다. 또한 어촌관광의 실시로 국토의 균형개발이 가능해지고 어촌의 미이용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어촌관광 자원들의 분포와 어촌관광의 개념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어촌관광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 활동으로는 해돋이, 바다 갈라짐 등 경관 감상/해변 휴식(43%), 해수욕(30%) 등 휴식·휴양형의 활동이 압도적이 나 생태 관광 등은 관심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동반형태로는 가족(57.1%), 친구/친지(48%) 등으로 나타났고 쓰이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61%), 기차 혹은 버스(34%) 등이 대부분이다. 이용 숙박시설로는 민박(34%), 콘도(24%), 야영(15%) 등으로 나타나 향후 어촌에서의 민박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 형태로는 친구/친지(61%), 인터넷(15%), 신문(7%), 관광안내 책자(7%) 순으로 나타나 점차 인터넷 등의 이용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시 문제점으로는 긴 여행 시간(26%), 관광시설 낙후(22%), 높은 여행비용(19%), 정보부족(15%) 등으로 나타나서 접근성과 관광시설의 개선이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개선이 필요한 관광시설로는 화장실/샤워장/탈의실(73%), 상하수도/쓰레기/오폐수(68%), 숙박/야영시설(33%), 진입로/주차장(28%) 등으로 나타나서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어촌관광 유형을 지형조건, 관광형태, 활동유형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어촌에서의 7가지 관광활동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7가지 각 유형별 정책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었다.

해수욕형에서는 법제도의 수립 등 해수욕장 관리체계의 개선, 모래 침식 및 환경 개선 대책 수립, 해수욕장 임대 사업의 개선방안 수립, 해수욕장내 활동간 충돌 등을 막기 위한 수역 공간의 구획·조정 및 시설 개선 등이다.

바다낚시형에서는 갯바위 낚시의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과 안전한 낚시 잔교의 도입 검토, 유어선의 레저 잠수객 승선 합법화 문제, 민박 등 고급형 숙박 시설 정비 등이 요구된다.

해양스포츠형에서는 특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과 요트 등 소유자의 차별 문제, 해양스포츠 전용 수역공간의 설정, 요트 등 항행 가능공간의 확대, 규제 해양스포츠 훈련센터의 건립 등이 요구된다.

생태체험형에서는 갯벌 등에서 비어업권 어장의 황폐화 문제 해결, 갯벌·철새 등의 체험관련 기반시설 정비, 유어장의 수익모델화를 위한 방안 수립 등이 제시되었다.

경관휴양에서는 경관의 유지를 위한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준농림지관리 개선이 요구되며 국립공원내의 현실적인 지구지정 해소방안 수립, 연안 경관 및 미관 개선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어촌역시 해양문화형에서는 지역별 축제의 특화 및 정부의 우수 축제 지정 방안, 해양문화지표의 조사, 해양역사문화 유적지 등의 관광상품의 필요성 등을 제가하였다.

수산물 구매/시식형에서는 시장 등 불결한 환경이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정비, 테마의 강화로 당일형에서 체류형으로의 이행 방안, 수산물 공급 부족시의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유통 체계의 개선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7가지 유형별로 어민 소득 증대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들의 개발과정에 따른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7가지 유형별로 어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경관과 미관 보존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향후 어촌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의 어촌관광자원 잠재력은 상당히 크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여러 가지 어촌관광 유형 중 해수욕형, 수산물 구매/시식형에 관광활동이 치우치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활성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접근성의 개선이 크게 요구되며 아울러 주차장, 화장실, 샤워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어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 미관 가이드라인을 조례 등에 반영하여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어촌관광사업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들의 여가 생활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은 한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동양문헌〉

- 강원도,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1997.
-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 강원도 동해안 경관형성 기본계획」, 2001 9.
- 경기도,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2001 5.
- 경기문화재단, 「경기만의 갯벌」, 기전문화예술총서6, 2000 5.
- 국민총리실·해양수산부, 「1999년도 해양환경 업무편람」, 1999 4.,
-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0.
- 민상기 등,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12.
- 미야자키 미쓰히로 등(원저), 강신겸 등(번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11.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해양위터프런트의 개발 및 보전」, 1998 3.
- 수협중앙회, 「어촌계 현황」, 1999 12.
- 新建築社, 「ウォ-タ-フロートの計画とデザイン」, 1991.
- 이재천, 「관광어촌」, 서울:백산출판사, 1994.
- 제주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1 9.
- 한국개발연구원, “해양관광을 통한 어업외 소득의 증대”, 「Vision 2011 Project」: 농수산 발전반 1차 토론회의 자료, 2001 7.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1.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1 11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 개발사업 우수사례집」, 1999 12.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1999.
-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안내서」, 1999 3.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0 4.
- 황기형·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12.

〈서양문헌〉

Cambers, Gillian, *Planning for coastline change*, 1998.

Maccaferri, *Where the grass regrows*, 1997.

Pearce, Philip L., et al., *Tourism : Bridges Across Continents*, McGraw-Hill, 1998.

Tore, L. Azeo, *Waterfront Development*, 1989.

USD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The Practical Streambank Bioengineering Guide*, 1998.

Victorian Coastal Council, *Siting & Design Guideline for Structure on the Victorian Coast*, 1998.